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1월 26일(음력 10월 29일) 수요일(주간)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일체제불에 의지하라" 14 선지식-도문 스님


영산재 세계유산 등재 최선 5 인터뷰-운산 스님


한·북·미 관계 기여 6 인터뷰-법륜 스님


'동체자비' 불교인권 지향점 13 함께가요 강의실- 안옥선 교수

지관스님 검문 등 종교편향 〉 어 청장 사과 〉 경찰포교활성화

경승활동 다시 불 붙이자

종교편향 논란을 빚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했다. 8 · 27 범불교도대회를 촉발시켰던 "총무원장 스님 일수록 더욱 검문해야 한다"던 한 경관의 버르장머리도 지관 스님의 "없던 걸로 하자"는 말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졌다.

교계에서는 경찰조직에 의한 종교편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게 경찰포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할 만큼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공권력이다.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된 어 청장이 본래 불자였듯이, 경찰 조직 내 진급을 위해 개종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중의 십자가'가 되어 가는 15만 경찰 및 전의경 포교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편향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열악한 경찰 포교 실태

군포교를 군승이 맡듯, 경찰포교는 주로 경승이 담당한다. 1986년 12월 '경찰 위촉 승려운영규정'으로 시작된 경승은 경찰포교의 주역으로 경찰들의 신행활동을 도왔다. 경승조직인 대한불교경승단은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사회기여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10월 27일 서울신문의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경찰서 내 경목(개신교) · 경승(불교) · 경신(가톨릭)실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위촉된 경목은 137명, 경승은 76명, 경신은 16명이다. 경승은 경목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용산 · 동작 · 구로 · 양천 4개 경찰서에는 경승실조차 없다.

#경승 수첩은 교통위반시 면책용?

옥천경찰서 경승실장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은 "경승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스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경승 추천을 반기는 각 일선 경찰서 상황과 달리, 경승이 경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지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각 종교 당 성직자를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 스님은 이어 "처음 원력을 세우고 경승이 됐더라도 경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경승위촉을 받더라도 활동하지 않는다. 과시용이나, 교통법규 위반시 면책용으로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경승단 체계적 지원 시급

스님 개인뿐만 아니라 종단도 문제다. 현재 조계종의 경승단 지원금은 20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종단의 경우는 아예 전무하다.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리체제 또한 정비가 시급하다.

조계종 포교원 '2007 지방경찰청 경승위촉 현황'에 따르면 제주(121%), 부산(84%), 대구(69%), 충남(69%) 등 지역의 위촉율은 평균 이상인 반면 전북(25%), 전남(46명) 지역은 13개 경찰서에 위촉경승이 없다. 단지 경승이 부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편차 등 체계적인 관리 체제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위촉율과는 별개로 서울지역(위촉율 48%, 미위촉경찰서 8곳), 경기 지역(위촉율 122%, 미위촉 경찰서 8곳) 등은 쏠림현상으로 인원배분 필요성 또한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경승위촉 시 교단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찰청 예규 제9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도에 묶인 경찰 불심

실질적인 경승단 업무를 보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중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단의 추천서'로 불명확하게 명시된 경찰청 예규 제9조를 '경승단 추천'으로 개정요구 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장 위촉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경찰조직이 경승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9조 가운데 경승단을 경승회로 오기한 부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경찰불자회장직이 공석인 경찰불자회 또한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 경찰불자회 사무국장 문용찬 경위(서초서 교통시설과)는 "2년마다 부임지가 바뀌는 경찰업무상 임원직을 맡더라도 타지역으로 발령이나 불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사무국장은 "특히 회장직은 중앙부처 고위급에서 맡아야 하나 진급시 피해를 우려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포교 다각화로 새로운 대안 모색

경승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승단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경승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교사를 활용한 제도와 지역사암연합회 등과의 연계도 필수다. 이와 더불어 경찰, 전의경, 경찰 가족 포교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종교활동을 담당하는 경종관 도입 또한 고려해볼 만 하다.

뒤늦게나마 조계종 포교원이 경승지단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2001년 이후 열리지 않은 경승대회 개최의향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예규 개정을 통한 경승체제정비와 지역사찰과의 연계, 더 나아가 경종관과 포교사 상임간사제 등 경찰포교 활성화의 길은 열려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를 계기로 해빙분위기로 접어든 경 · 불관계. 경찰포교 이제 다시 불을 당겨야 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예,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1월 21일 서울캠퍼스 금강계단(체육관)에서 '2008학년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 · 중 · 고등학교 합동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인 현성 스님을 계사로 모신 이날 수계법회에서 동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 학생 1300 여명은 지난날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5계를 받아 청정한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박재완 기자

"효율적·안정적 문화재 보호기반 마련"

박근혜 의원 등, 문화재보호기금 법안 발의



문화재 관리의 해법은 예산이나 그동안 기금 하나 없었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구를 위해 당시 당선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성금을 모으자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나 2005년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알고 보면 문화재를 위한 기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문화재 관련 기금이 조성돼 문화재 보호 등의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당 · 사진)은 11월 11일 강승규 주호영 나경원 이혜훈 이경재 이정현 홍사덕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 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발의했으나 시한만료로 자동 폐기 돼 이번에 일부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금 사용은 문화재청이 주관해 문화재 긴급보수 및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측은 "유네스코도 각 국가마다 문화재 기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으로 기금 재원을 준비한 미국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는 영국 사례를 혼용해 실용적인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찰 등 대부분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11월 20일 대변인 장적 스님(기획실장)이 발표한 논평에서 "문화재 예산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가운데 문화재 보존 ·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며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문화재 보존 ·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숲 항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첫서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故최진실 49재와 종교의 신뢰성

11월 19일 양수리 갑산공원에서 열린 故 최진실 씨의 49재를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개신교 신자였던 고인이 왜 불교의 49재를 지냈는가 하는 의문, 그것도 '기독교식 49재'를 지냈다는 보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다음카페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진실 성도의 교회는 49재를 지내지 않습니다'라는 해명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회측은 이 글에서 "최진실 성도의 유가족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이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티즌과 팬들이 나서서 49재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기독교식 49재' 논란과 관련 "제사를 대신해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유가족을 위로하는 위로예배"라고 설명했다.

종교의식의 진정성에 대한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한 개신교 단체의 설문조사결과는 종교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뜻밖에도, 이 설문조사 결과는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주요 교단 가운데 바닥 수준임을 나타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8.4%에 불과한 반면, '불신한다'는 비중은 48.3%로 높았다. 다른 종교와 비교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가톨릭 35.5%, 불교 31.1%로 답변한 데 비해 개신교는 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종교별 호감도에선 불교가 31.5%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 29.8%, 개신교 20.6% 등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기독교에 호감을 나타낸 응답자의 80%가 기독교인인 데 반해, 불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비불자들이었다. 종교 호감도 1위, 신뢰도 2위라는 상대 분석만을 놓고 볼 때 불교 포교의 전망은 장밋빛으로 보인다.

이 설문조사 문항중 '교회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뀌어야 할 것'으로 '교인들의 언행일치'가 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타종교에 대한 관용'(25.8%), '사회봉사'(11.9%), '재정 사용의 투명성'(11.5%), '교회 성장주의 지양'(4.5%) 등 순으로 조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행일치와 사회봉사, 재정 사용의 투명화 등을 통해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전법도 가능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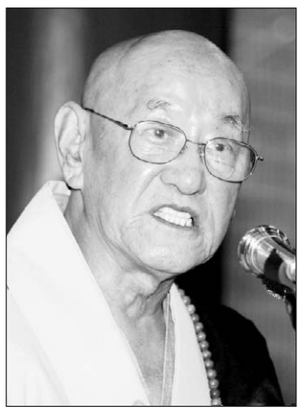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올해의 포교대상 능가 스님

포교원, 수상자 17명 12월 2일 시상식



2008 조계종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로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18일 제20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원은 포교대상에 능가 스님을,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안성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명예단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진오 스님(사회포교, 대둔사 주지), 법농 스님(사회포교, 면목동 방과후공부방), 도제 스님(계층포교, 원각사 주지), 보림 스님(사회포교, 보문선원주지), 지상 스님(계층포교, 신흥사 포교국장), 김상래 군승법사(계층포교, 군종특별교구), 조당호(사회포교, 평택노인복지관장), 이인자(사회포교, 여성개발원 고문), 김주환(매체포교, 동련 운영위원), 김영미(계층포교, 전국산악인연합회 이사), 이영채(계층포교, 부산 파라미타협회 임원), 전완중(계층포교, 해인사수련동문회장) 등 12명이 선정됐다.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능가 스님은 195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주지, 세계불교도대회 회장 등 한국불교 세계화에 중심 역할을 했다. 특히 30여 년 전부터 삼보불교재단을 설립해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법보시운동을 전개, 매년 6만부 이상의 불교성전을 호텔과 군법당 등 각계각층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이번 상은 포교에 더욱 정진해달라는 격려차원에서 공로상 2명을 비롯 총 5명의 대상자를 늘렸다"며 "그럼에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입후보해 선정에 고충이 많았다. 상을 받으시는 분들과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모두 포교활동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공직자 불자회 기지개 켠다

조계종, 정부부처 불자회 간담회 열고 활성화 지원

이명박 정부 들어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으로 움츠러든 공직자 불자회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1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불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장적 스님은 "종단과 불자회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부부처 불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불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불자회 관계자를 만나 침체기에 빠졌던 불자회들이 처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템플스테이나 법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실은 지방정부 불자회와 중앙정부 불자회를 연계해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불자회(회장 강윤구)도 11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제 3차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신행활성화를 다짐했다. 행사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법사로 청와대 불자 46명과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문 스님은 법문에서 "3·1 독립운동 당시 불교와 천도교, 개신교, 장로회 및 감리회가 화합해 구국운동에 나섰다"며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문(聞), 사(思), 수(修)의 삼혜(三慧)로서 수행해 열반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윤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회를 계기로 청불회가 더욱 발전하고, 소원했던 불교계와 정부 관계가 원만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70여 회원이 활동 중인 청불회는 매월 한차례씩 정기법회는 물론, 매분기마다 산사순례 등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11월 15일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내 독거노인 주거개선환경 봉사를 하는 등 '제5회 재경지역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보냈다.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족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경기제2청사, 서울 성북구청, 은평구청 등 8개 단위 불자회 20여 명 회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바라밀행을 실천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공불련은 오는 12월 13~14일 사무국 22명 임원 수련회를 개최해 내년 사업계획과 발전방향 등 공불련 활성화를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원로 불자 정치인 모임인 정각동우회(회장 권익현)도 11월 19일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사찰순례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다졌다. 관문사(주지 정산) 부전 석용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무부장 무원 스님, 정각동우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법문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여러분들의 불교 신행 활동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불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사찰 산불 피해 막는데 최선 다할 터"

산림청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예방

하영제 산림청장이 11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제2의 낙산사 사태 예방을 다짐했다.

하 청장은 "4월 화순 운주사 산불에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며 "2008년을 산불로 인한 산중사찰 피해를 막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낙산사 복원 등 산림청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집을 짓는 것은 10여 년이면 족하나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0년도 부족하다.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은 필요하나 벌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19일 포살법회 봉행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허운)는 11월 19일 동화사 대불전에서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을 포살법사로 동안거 대중결계를 겸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강주 지운 스님 등 350여 스님이 동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국제포교사 28명 새로 탄생

조계종 포교원 제13기 국제포교사 품수식 봉행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11월 16일 제13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번 품수식에서 자격을 받을 국제포교사는 총 28명으로 필기고사와 1차 인성 · 습의 2차 원어민 영어구술평가와 다면평가 등 면접고사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

포교원은 그동안 283명의 국제포교사(비구 12명, 비구니 26명, 우바새 96명, 우바이 121명)를 배출해 불교저변 확대와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사업단 '최고 디자인부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1월 13~16일 경기도 안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단체 가운데 최고 디자인 부스로 선정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모두 30개국, 302기관과 업체, 944개 부스가 참여했다.

이번 부스의 구성은 체험프로그램과 불교문화상품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 운영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형 리플렛과 전국 87여개 운영사찰의 브로슈어 등을 비치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조상천도재의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분 원로대덕큰스님 초청 법화산림법회 봉행



조계사에서는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조상천도재의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한분씩 모시고 법화경 28품을 1품씩 설법하는 법화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라옵니다.

일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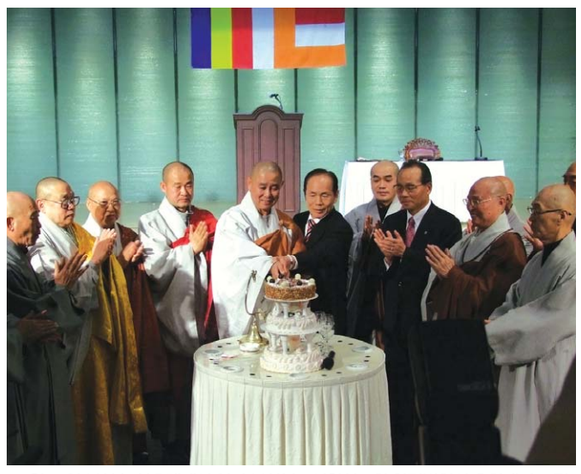
※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천도재에 동참하신 분은 누구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사금 : 탑내부에 원불 부처님을 봉안해 드리는데 1인 100,000원 입니다.

문의전화 : 조계사 종무소 02)732-2115

- 28분의 법화산림법회 초청법사 큰스님과 법회일정 -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11월 28일 (음 11.1)	1. 서품	총무원장큰스님	3월 6일 (음 2.10)	15. 종지용출품	월파큰스님
12월 5일 (음 11.8)	2. 방편품	무진장큰스님	3월 13일 (음 2.17)	16. 여래수량품	도영큰스님
12월 12일 (음 11.15)	3. 비유품	월운큰스님	3월 20일 (음 2.24)	17. 분별공덕품	혜인큰스님
12월 19일 (음 11.22)	4. 신해품	정무큰스님	3월 27일 (음 3.1)	18. 수희공덕품	총무원장큰스님
12월 26일 (음 11.29)	5. 약초유품	무비큰스님	4월 3일 (음 3.8)	19. 법사공덕품	성우큰스님
1월 2일 (음 12.7)	6. 수기품	법산큰스님	4월 10일 (음 3.15)	20. 상불경보살품	근일큰스님
1월 9일 (음 12.14)	7. 화성유품	해남큰스님	4월 17일 (음 3.22)	21. 여래신력품	밀운큰스님
1월 16일 (음 12.21)	8. 오백제자수기품	원학큰스님	4월 24일 (음 3.29)	22. 촉루품	혜창큰스님
1월 23일 (음 12.28)	9. 수학무학인기품	무관큰스님	5월 1일 (음 4.7)	23. 약왕보살본사품	현해큰스님
1월 30일 (음 1.5)	10. 법사품	흥교큰스님	5월 8일 (음 4.14)	24. 묘음보살품	청화큰스님
2월 6일 (음 1.12)	11. 견보탑품	도문큰스님	5월 15일 (음 4.21)	25. 관세음보살보문품	세민큰스님
2월 13일 (음 1.19)	12. 제바달다품	인환큰스님	5월 22일 (음 4.28)	26. 다라니품	옹산큰스님
2월 20일 (음 1.26)	13. 권지품	지하큰스님	5월 29일 (음 5.6)	27. 묘장엄왕본사품	혜총큰스님
2월 27일 (음 2.3)	14. 안락행품	종진큰스님	6월 5일 (음 5.13)	28. 보현보살권발품	총무원장큰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창립…회장에 설동근 부산교육감



11월 20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의 축하케이크 절단식. 가운데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과 설동근 교육감.

부산 불교계 14개 종단, 45개 사찰, 21개 신행단체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11월 20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창립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추진위원장 기조연설, 임시의장 선출, 정관심의의결, 임원선출, 회장 수락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200만 부산 불자를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재가불자 대표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00만 부산 불자 뜻 받들어 정토 구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설동근 교육감

"부산의 200만 불자의 뜻을 받들어 불국정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초대회장 설동근 교육감이 소감과 앞으로의 구상을 털어놨다.

설동근 회장은 "부산시교육감이란 공직자의 신분으로 연합신도회장까지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출범한 오늘이, 자비를 통한 중생 구제와 정토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또 "이 모든 것은 부산지역 모든 대덕스님들과 재가불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발원할 때 원만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불교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잡는데 연합신도회원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50돌 'vision2025' 선포

기숙사 · 수행센터 '21세기 행복발전소 관악센터 건립' 추진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가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생활 · 수행 공간 '21세기 행복발전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했다. 관악센터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숙사 및 수행센터로, 총불교학생회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과 불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는 11월 15일 서울대교수회관에서 동문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0주년 기념 창립식을 열고 동문회 법인화와 서울대 총불 동문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 이를 위한 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그 밖에도 과거 활동사진, 현재 활동 모습을 담은 "총불 50주년을 말하다" 상영,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의 동영상 축사, 재학생 축하 퓨전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선 · 후배 간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성태용(우리는선우 이사장) 총불교학생회 발전위원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불교와 자신의 모습을 항상 성찰해야 한다"며 "불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내일을 위해 도약하자"고 말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11월 1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50주년 창립제를 개최했다.

이날 2000만원을 약정한 명호근(성진지오텍 회장) 총불교학생회 발전위원회 고문은 "자신의 구도 열정을 회향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며 "총불교학생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서서 변화의 선두주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식을 위해 1년간 준비한 곽기훈 총불 재학생 대표(경제학과 03학번)는 "학점취득 및 취업경쟁으로 인해 다수 대학불교학생회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총불은 수련대회 및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봐왔고, 스스로도 학업과 생활면에서 눈에 띄는 현실적인 이득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1958년 11월 법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창립했다. 1968년 1차 경주 분황사 수련대회를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총 40회가 넘는 수련대회를 진행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정기법회를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사찰에서 집중수련을 한다. 수련회에서는 고성염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인간관계, 성격문제 등을 해결해오고 있다. 정기법회 외에도 새벽기도를 하는 등 신심이 두텁다. 백경록(조경학과 07학번)씨는 "고성염불을 통해 복잡한 생각들이 모두 침잠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불법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성염불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고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외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문출신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태용 교수(건국대),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김문환(前 국민대 총장), 신호철(온세통신 감사)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전국 사찰 불심으로 김장 버무리기



조계사(주지 세민)는 11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담근 1만4000 포기의 김치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주요 사찰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버무리기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1월 20일 1만4000 포기 김치는 종로구청을 통해 독거노인 등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전달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11월 23~25일 6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불우이웃 108 가정에 각각 김장 김치와 라면 1박스를 전달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산)도 18개 사찰과 복지단체에서 총 2만3000포기에 달하는 김장 김치를 불우이웃에게 나눠준다. 이밖에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11월 14일, 안양 한마음선원이 11월 22~23일 김장김치행사를 진행하는 등 김장보시는 줄을 이을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개운사 문제 대책 마련할 것"

최문순 의원, 고려대 기숙사 공사현장 방문

고려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고려대와 개운사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연등회장)이 11월 14일 공사현장을 찾아 범해 스님(개운사 주지), 초우 스님(보타사 주지)을 만났다.

최문순 의원은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북구청의 허가과정 및 석조마애불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문화재 훼손과 수행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불자의원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1월 13일 있었던 문화재영향 검토는 문화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50억 모연·고객만족대상 수상 東大 겹경사

일산에 아시아 최대 줄기세포 은행 설립도

로스쿨 선정 탈락으로 위축됐던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대학최초로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하고, 50여억 원 후원금을 모연하는 등 희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후원의 밤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해 50억여 원의 발전기금 약정을 했다. 14일 '줄기세포 은행'의 산학협동 파트너로 조인한 (주)휴림바이오셀(대표 성제경)이 30억원, 한의과 대학 동창회가 5억원, 정훈탁 IHQ 대표가 3억원을 약정했다.

일산 메디클러스터 내에 휴림바이오셀로부터 160억원을 투입 받아 조성될 줄기세포 은행은 건강한 세포를 냉동보관하고 관리 ·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320만 명의 세포를 보관해 관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오영교 총장은 "이번 산학협력은 동국대의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실용적 기술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만큼은 동국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고객 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박서진 CS경영팀장(동국대)은 "오영교 총장의 강력한 CS리더십과 부서장들의 솔선수범, 성과와 고객관리의 선진 시스템화 등으로 이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협 후원회' 결성

포교원장 등 교계 원력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불교언론인을 지원해 불교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불교기자협회 후원회'를 결성한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불기협 후원회 기금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불기협에 기부할 3000만원에 기타 후원금을 모연해 조성된다. 불기협 후원회는 장학사업과 기자상 선정 등 불교언론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한편 불기협 언론인 후원회 발족식은 12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앞 만복림 '불기협의 밤' 행사에서 함께 열린다.

조동섭 기자



일타 대종사 사리탑 '우뚝'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일타 대종사의 부도를 제막하고 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1929~1999)의 사리탑과 비가 해인사 비림(碑林)에 조성됐다.

해인사 지족암 동곡문도회(문도대표 혜인 · 항적)는 11월 19일 오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인사 비림에서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사리탑과 비 제막식을 갖고 대적광전에서 9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곡당 일타 스님의 사리탑과 비 제막을 축하하며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만 오늘은 사리탑으로 모습을 나투니 대천의 세계가 모두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백천삼매를 갖춘 이 물건만은 언제나 신령할 것이로다"를 내용으로 하는 법어를 내렸다.

이날 제막된 동곡당 일타 스님의 사리탑비의 비문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썼다. 또 글씨는 서예가 유형재 선생이 각자는 나익환 선생이 맡았으며, 탑과 비의 설계와 조각은 이영섭 작가의 솜씨다. 임연태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7명에 장학금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 사진)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은정학술상'을 수상한 실상사 화엄학림 스님 6명과 불교학자 2명, 불교계 단체자녀 4명, 대학원생 20명 등 불교인재와 독거노인 및 장애인 117명에게 1억735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박재완기자

社 告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군포교 괄목성장…새 도약 필요

군승 40주년 맞아 '군불교 40년사' 봉정 등 행사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지만 열악한 포교환경으로 아무나 나서기 힘든 곳.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호국불교의 명맥을 잇기 위해 스님들이 군포교에 나선지 4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1월 25일, 군종교구 호국원광사(주지 함현준 법사)에서 군승 통일가사 봉정식을 시작으로 군승 파견 40주년 기념 '군승의 날' 행사를 성대히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군포교사를 정리한 <군불교 40년사> 봉정과 순직 군승 합동 천도재, 전 군법사가 참여한 군승회의 등이 열린다. 군승회의에서는 올해 군승사업 결산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군승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념법회는 오후 6시 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봉행된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보선 스님(중앙종회의장),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 정인악 회장(군불교후원회)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할 행사는 총무원장 스님 법어와 40년간 거쳐 온 군승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통일가사와 <군불교 40년사> 봉정식, 공로자 표창수여식 후 만찬을 연다.

국군에서 군법사가 등장한 것은 1960년대.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불교는 개신교, 카톨릭과 함께 국군조직법에 따라 정식으로 종교 활동을 펼쳤으나 한국전쟁 이후 한동안 공백기를 맞았다.

1950~60년대 청담 스님, 능가스님 등 당시 조계종 중진스님들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군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1964년 3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이 국방부에 '군종법사 제도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군법사의 태동은 시작됐다.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1965년 2월 11일 조계종은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까지 '군법사제도 설치 청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3월 17일 국회 국방분과위원회가 1년간 군법사 제도 연구기간을 정하는 등 4개항을 결의하면서 8월 30일 각 군 본부 등의 불교활동 지원을 위해 군포교사 10명이 위촉됐다.

동국대에 군승후보 교육원이 개설되면서 군법사 양성이 가시화되자, 개신교는 거센 반대에 나섰다. 1967년 군법사 탄생을 위해 사부대중이 모두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시위를 벌이는 등 종단과 신도들의 끈질긴 요구로 군법사 파견을 위한 행정조치가 하나 둘 시작됐다.

1968년 5월 독실한 불자였던 최영희 장군이 장관에 임명돼 군승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1968년 11월 30일 훈련을 마친 제1기 군승후보생 5인(김봉식 · 권기종 · 권오현 · 장만수 · 이지행)이 군승 1기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군승의 역사가 시작됐다.

군승 파견 40주년을 맞은 지금, 최초 5명이던 군승의 수가 14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곳도 없던 군법당도 200여 도량을 갖췄다.

2007년 12월 현재 군불자는 11만4085명이다. 개신교 신자 21만5280명의 절반수준이다. 군포교 주역인 군종 법사는 139명(육군 97명, 해군 19명, 공군 23명/사미계 수지자 80명, 구족계 수지자 59명)으로 군승 파견 최초 5명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한 곳도 없던 군법당도 200여 도량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다. 민간성직자 600여 명과 불광사, 조계사, 봉은사 등 대형사찰 신도회와 조계종 포교사단 등이 군포교를 돕고 있다.

미래불교를 위해 군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조계종은 2005년 7월 25일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켰다. 군종특별교구는 2008년 5월 20일 종단 최초로 결계 및 포살법회를 봉행한 것은 물론 체계적인 군불교 지원과 군불자 자긍심 고취, 군종법사 위상 및 복지 향상에 앞장서왔다.

교구장 일면 스님은 "군종교구는 출범 이래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를 표어로 △제도정비 통한 교구 체계구축 △종단 정체성 확립 △군포교 역량강화 모색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시스템화된 군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국방부의 2013년 육군 훈련소 통합 계획에 맞춰 육군훈련소 내에 5000명을 수용할 법당 불사를 비롯해 군구조개편에 따른 전략적 포교정책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의정 조계종 신도회장 WFB부회장 당선

58년 WFB 역사상 여성 최초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金宜正) 회장이 제24차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총회에서 본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WFB(본부회장 팬 와나메티)는 1950년 태국에서 창립돼 전 세계 146개국 불교단체가 가입 · 활동하고 있는 범불교적 연합체로 제24차 총회는 11월 14~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됐다.

동경총회에는 조계종 진월 스님, 재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손안식 상임부회장 등 16명의 한국 대표를 비롯해 세계 62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중앙신도회 최초 여성신도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의 당선은 58년 WFB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이다. 이번 당선은 불교국가 중 가장 체계적인 비구니 교단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만의 특색이 발현된 것으로, 한국 여성불자의 위치와 힘을 보여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본부 부회장은 4년 임기동안 WFB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과의 불교문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불교국가의 국익과 문화진흥에 기여하게 된다.



WFB 팬 와나메티 본부회장으로부터 본부 부회장 임명장을 받는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왼쪽).

한편 WFB 제24차 총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진각종 지역본부 가입인준 승인과 함께 양장운 본부부회장 연임, 진월 스님 등 총 11명의 각국 상임이사가 선출돼 기쁨을 더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서울시립영등포복지관 11월 26일 개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거)은 11월 26일 오후 2시에 대강당 부루나홀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태 · 전여옥 · 권영세 · 주호영 · 박지원 · 나경원 · 강석호 · 강승규 국회의원, 방송인 엄앵란 · 현철, 지역장애인과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 할 예정이다.

지거 스님은 "관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인 만큼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및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11월 착공해 2007년 11월에 완공된 장애인복지관은 별관을 포함해 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2,2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상언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가 11월 18~19일 서울아트시네마와 허리우드클래식에서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했다.

18일 개막식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과 영화감독 배창호,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하고 어르신 500여 명이 객석을 채운 가운데 개막작 '브라보 나의 인생아'로 시작을 알렸다. 전국노인영상공모전에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들로 19일까지 총 21개 작품과 어르신이 선정한 추억의 한국영화가 상영됐다.

일문 스님은 "어르신의 시각으로 개인 · 가족 ·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영화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래사냥' '흑수선' 감독으로 유명한 배창호 영화감독은 "영화는 삶 · 인간 · 인생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며 "삶의 깊이를 통찰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 제작으로 완성된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떤 영화제보다 의미가 깊다"며 기대를 표했다. 이상언 기자

무료 입장
BUDDHISM CULTURE EXPO PALKWANHOE 2008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11. 28 (금)_ 각 사찰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수계발원 입재

2008. 12. 4(목) ~ 12. 7(일)
해운대 BEXCO 특별전시장
문의 : (051)867-0501~3
※ 매일 유명다도회에서 다례시연을 하며 각종 공연과 체험부스도 운영합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서화 작품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됩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지인 불도(佛都) 부산에서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합니다.
불교 법회의 전통과 각종 불교문화, 산업을 함께 어우르는 종합전시를 결합하여
법회와 문화, 전시와 축제의 새로운 팔관회의 모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008 불교문화엑스포『팔관회』가 그 예전 화려하고 장엄했던 고려『팔관회』로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팔관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조직위원장 정 여
수석부위원장 영 제 합장
상임부위원장 정 각
www.bba.or.kr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 2008불교문화엑스포『팔관회』조직위원회 특별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후원 : KBS 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KNN,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텔레비전, 국제신문, 부산일보 外 교계 각 언론사

十方世界
시방세계

중국서 사라진 영산재 1200년만에 현지 재현

현장속으로

중국에서 바라춤 덩실 덩실~



11월 17일 중국 하북성 조현 백림선사에서 봉행된 '사천성 지진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대재'에는 3000여 중국불자들이 동참해 기립박수의 성원을 보냈다.

태고종 및 중국불교협회 대표단.

조주선사탑에 예배하는 태고종 스님들.

한국으로 전수된 후 중국에서 사라진 영산재가 1200여 년 만에 본토에서 재현됐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11월 15일 중국 북경시 서산에 위치한 불치(佛齒)사리 성지 영광사에서, 17일 하북성 조현 백림선사에서 '사천성 지진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대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중국 종교국과 중국불교협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영산재는 한중 불교문화 교류 및 우호증진과 지진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원법회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중국의 불교교향악인 '신주화학(神州和樂)' 한국 공연에 대한 화답형식을 띤 이번 영산재 시연은 신라 진감(眞鑑, 774~850) 국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와 하동 쌍계사(옛 옥천사)에서 범패를 가르친 이후, 1200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재연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 불교음악을 결합해 '신주화악'을 만든 중국에서는 영산재를 복원해 단절된 불교문화예술의 맥을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원효 스님 이래 중국에 불교문화를 역수출하는 쾌거가 될 전망이다.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영광사 영광강당에서 첫 시연회를 가진 영산재는 역사적인 의미만큼이나 높은 관심속에서 중국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한국 대표단 130여 명과 중국불교협회장 일성(一誠) 스님, 영광사 방장 상장(常藏) 스님, 광제사 방장 연각(演覺)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양국 고승을 모시는 종사 이운으로 시작됐다.

한중 양국의 불교의식에 이어 △천수바라 △요잡바라(성중의 강림을 환영하는 바라춤) △도량게 △사다라니바라(공양음식의 질과 양을 변화게 하는 진언을 봉독하는 의식) △다게 △향화게 △법고춤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산재는 1시간 30분으로 축약돼 공연됐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인 영산회상의 제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영산재(靈山齋)의 전 과정을 재현하는 데는 120명이 3일 동안 꼬박 진행해야 하는 대규모 공연이기 때문이다.

영산재에 앞서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신주화악' 한국 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오늘,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공연을 보게 된 것은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영광사에서 영산재를 모시는 것은 인연법의 소산"이라며 "지난 5월 사천성 지진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정성껏 기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국 종교국 관계자들과 중국불교협회 스님들은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정도로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영산재에 대한 중국 불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17일 백림선사 공연에서 더욱 고조됐다. 인구 6000만여 명을 자랑하는 하북성의 손사빈(孫士彬) 부성장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淨慧) 스님, 백림선사 방장 명해(明海) 스님 등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립박수를 받았다.

종교국과 하북성 등이 연일 공식만찬을 베풀며 행사를 지원하고 격찬한 두 차례의 공연을 지켜본 중국불교협회 사무국장 보정(普正) 스님은 "오늘 공연을 보고 범음과 춤사위 하나하나가 법문이 돼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연을 지휘한 옥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영산재 준기능보유자)은 "중국의 국가행사로 치러진 이번 영산재 공연은 우리 전통불교문화의 높은 예술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자평했다.

이번 공연의 성공으로 태고종은 문화관광부 지원아래 추진중인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백림선사=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



"영산재 중국 공연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태고종이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종단 위상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영산재 중국 시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은 "이번 공연에 중진 어산 스님들이 모두 참가할 수 없어서 옥천범음대 및 동방불교대 학생들이 동참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를 계기로 영산재를 전수하는 교수진 및 커리큘럼 단일화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영산재 상설공연장과 옥천범음대 건립을 포함한 봉원사 성역화사업을 본격화해 영산재를 대내외에 선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역할을 정리하는 시점(내년 3월 퇴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돕겠다는 단체가 있는 만큼 다음 총무원 집행부가 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북경=김성우 기자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 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란? 미얀마말리어로 '감로'(부처 앞에 올리는 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주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위문공연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1월 16일 누리예공연단을 초청해 시흥 혜명양로원 어르신을 위해 공연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법화경 강의' 출판기념회·사인회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11월 30일 서울 불광사에서 초청법회를 겸한 '<법화경 강의> 출판기념회 및 사인회'를 갖는다. (02)413-6060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1주년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은 11월 16일 인천 보현선원(총무원)에서 '창종 1주년 기념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국제넷 '붓다링크' 발행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www.dourim.net/kbin) 대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소식지 <클리어마인드> 제호를 <붓다링크>로 변경해 첫 호를 발행했다.



제4회 장애인 정보화기능경진대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11월 28일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제4회 장애인 정보화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02)989-4215



제1회 종로마루 축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11월 26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어르신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 '제1회 종로마루 축제'를 개최했다.



우리는선우 송년법회 · 정기총회

우리는선우 성태용 대표(건국대 교수)는 12월 6일 오후 3시 우리함께회관 6층 선우법당에서 송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2278-8672



웰다잉본부 발대식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11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8돌 기념 및 원장 이·취임식과 웰다잉본부·여성불자 108인회 발대식을 연다.

인 사

BBS 사장직무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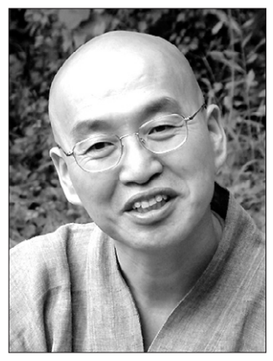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11월 21일자로 최명준 전무를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최명준 신임 사장직무대행은 194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육군 군종법사로 제1군 사령부 군승단장 등을 역임한 뒤 불교환경연대 감사, 대한불교진흥원 등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불교방송 전무로 재직해 왔다.

오바마 캠프 한반도정책담당 면담 "한·북·미 관계 기여"

평화재단 4주년 맞은 이사장 법륜 스님



"불교는 사회 현안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 4주년 기념식을 가진 이사장 법륜 스님은 "사회적 대안 제시는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일제시대 독립운동, 독재시대 민주화운동, 분단시대 평화정착운동, 현대에 들어 자살 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 종교차원을 떠나 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이어 "군부정권 당시 민주화에 기여한 가톨릭이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은 것처럼, 불교 또한 사회기여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로 사회현안을 해결할 때 존경과 지지를 받는 리더십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포교차원에서는 더욱 불교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교도들이 변화에 수동적이기 보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 평화와 북한인권 등 민족문제에 불자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화재단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가안보 및 북한 전문가를 초청,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정책을 연구 · 제안해왔다. 특히 법륜 스님은 오바마 美차기 대통령 당선 직후인 11월 11일 오바마 캠프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 담당(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해 화제에 올랐다.

4주년 기념식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전 주미대사), 맥피터 주한 미대사관 서기관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법륜 스님은 오바마 당선에 대해서는 "미국민과 전세계인이 변화와 희망을 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단순히 미국정권이 바뀐 사실보다, 일방주의에서 대화 · 타협주의로 선회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당선자가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 아시아 전략, 통상 정책 등은 부시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구성될 미 행정부의 정책 또한 어느때보다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 평화는 실체적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에 있다"며 "평화재단은 한반도 종전 선언과 다자간 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협정, 북 · 미관계 정상화와 한국입장 강화에 정책연구 · 제안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노인복지에 힘쓸 것"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각현 스님



불교인권위원회는 11월 20일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4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2만불 시대를 창출한 오늘의 노인들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지만 가족들로부터 소외돼 하루 13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와 인권 증진 현장에서 수행 아닌 수행, 정진 아닌 정진을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돼가고 있는 요즘,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불교인권문제가 인도주의(人道主義)로 접근해 불교계도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불교인권상 수상은 1990년 의료법인 연꽃마을을 설립, 노인종합복지타운 등 재단 내에 6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2008년 파라밀양 · 한방병원 개원, 불자봉사단 · 후원자 양성 등 노인복지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노인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포교·수행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각현 스님은 11월 15일 불교사각지대인 서울 서초구 방배노인복지관을 수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스님은 홍콩 등 해외 포교와 복지에 원력을 세우고 실천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력으로 스님은 6월 제23회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12월 2일 있을 제20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2002년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스님과 스님이 만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늘 청춘이다.

한편 각현 스님은 인권상금 300만원을 노스님 간병비에 전액기부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무주상보시 앞장서자"

로터스월드 10주년 이사장 성관 스님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동남아 국가 돕기에 불자들이 앞장섭시다."

11월 27일 (사)로터스월드 10주년을 기념해 이사장 성관 스님은 "경제난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죄송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 대표적 해외구호단체로 자리잡기까지는 자비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한 성관 스님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안타깝다. 해외봉사단 등 젊은 불자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BWC 등 동남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병원 · 학교 등 구호사업을 펼치고 교민 신앙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터스월드가 병불련 등 불교의료단체, 김안과 등과 함께 실시한 의료봉사에는 매년 백내장 수술 50여건등 1200여 명의 소외받는 지구촌 이웃이 지원을 받았다.

성관 스님은 "해외 제3국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름 모르는 이를 돕는 무주상보시로 추운 겨울 스스로 마음을 살찌우자"고 당부했다.

각박한 세상, 빈자일등(貧者一燈)을 실천하는 로터스월드의 연향이 더 넓게 펼쳐지고 있다.

한편, 11월 27일 W컨벤션센터에서 열릴 로터스월드 후원의밤은 해외봉사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감사패 증정과 함께 버블쇼, 전명신의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02)725 -4277, 후원 :신한은행 100-020-535905

노덕현 기자

'공으로의 여인' 출판기념법회 봉행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의 저서 <공(空)으로의 여인(旅印)> 출판기념법회가 11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제1회 축서사 바라밀합창단 정기연주회



봉화 축서사(주지 무여)는 11월 19일 봉화청소년수련관에서 봉화발전을 위한 '제1회 축서사 바라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안동MBC어린이합창단, 안동국악단 등이 공연했다. 박영애영주지국장

김흥국장학재단 제9회 장학금전달식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은 11월 15일 서울 베이징코아에서 제9회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박재원(번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외 9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올해 총 78명을 장학 지원했다. 기연숙기자

천태종 청주 명장사서 '자비의 김장나누기'



천태종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는 11월 17일 '2008 자비의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정산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남상우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 대성사 포교원·열린마음상담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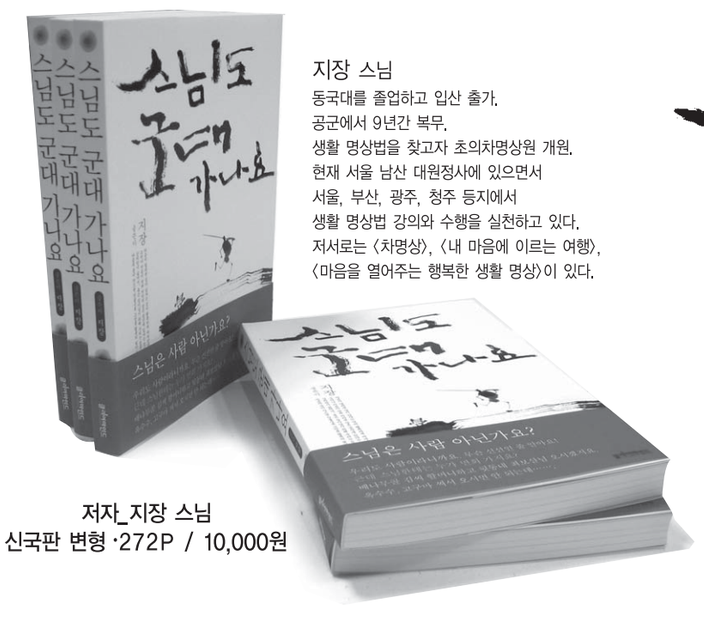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포교원을 개원했다. 옥천사 포교원은 결혼매칭 상담 등 계층별 상담을 위한 열린마음상담원과 계획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한국다중지능적성평가원도 함께 열었다. (042)223-8214

우리를 진정으로 살맛나게 하는
내 마음속의 평온과 행복,
이 맛있는 기쁨을 즐기자!!

지장 스님의 군생활 경험담

스님도 군대가나요



지장 스님
동국대를 졸업하고 입산 출가.
공군에서 9년간 복무.
생활 명상법을 찾고자 초의차명상원 개원.
현재 서울 남산 대원정사에 있으면서
서울, 부산, 광주, 청주 등지에서
생활 명상법 강의와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는 〈차명상〉, 〈내 마음에 이르는 여행〉,
〈마음을 열어주는 행복한 생활 명상〉이 있다.

저자_지장 스님
신국판 변형 ·272P / 10,000원

공군 군종장교로 복무했던 지장 스님이 군 생활 경험담을 담은 책
『스님도 군대가나요』에서 스님이자 군인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지장 스님이 독특한 체험과 실수담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일반 대중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이다._조선일보

스님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신선인 줄 알아요!
근데 스님한테는 누가 면회 가지요?
배나무골 김씨 할머니하고 뒷동네 최보살님 오시겠지요.
옥수수, 고구마 쪄서 오시면 안 되는데…….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선문답,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제시

해외불교칼럼

다음 글은 <즐겁게 떠나는 해탈의 길> <유머; 깨우침의 산파> 등 참선과 혜학에 관한 서구불자들의 저술을 인용 편집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스승에게 제자들이 지혜의 한 말씀을 남겨주시길 청하자 스승이 말한다. "진리란 강과 같으니라." 이에 한 제자가 묻는다. "진리는 강과 같다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스승이 빙긋 웃는다. "그래, 진리는 강과 같지 않으니라." 가벼운 우스개 같은 이 일화는 매사를 따로 갈라 작은 상자에 나눠 담으려는 분별심에 대한 경구다.

또 "한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날꼬?"라든지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면 그 나무는 넘어지는 소리를 낸 걸까? 안 낸 걸까?"라는 기이한 질문도 있다. 이처럼 일반상식과 논리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참선혜학'은 때론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벌거벗고 방귀를 뀌는 꼬마, 좌선을 하듯 쭈그리고 앉아 씨익 웃는 두꺼비 등의 그림 역시 뭇 중생이 지닌 불성을 재미있게 가시화한 것이다. 참선혜학은 서구불교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어느 미국선사가 제자에게 묻는다. "그대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가?" 그러자 제자가 되묻는다. "지금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즉,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내게 웬 질문이시죠? 라고 대뜸 되받아친 것이다. 선사의 어설픈 가르침에 대한 제자의 당찬 역습이다.

이렇듯 참선혜학은 세파에 지친 중생에게 잠시 웃음을 주는 동시에, 심오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순간 전달하는 희극적 기습(comic surprise)이다. 흔히 불가의 유머는 승속(僧俗), 미추(美醜), 영육(靈肉), 우열(優劣) 등의 양분구조를 무너뜨린다. "붓다란 뭔가?"란 질문에 "마른 똥"이라 대답한다. 그에 대한 불교학자인 콘래드 하이어즈의 명쾌한 해석이다. "이는 어느 누구든 무엇이든 높고 낮을 바 없다는 '영적 민주화'를 뜻한다."

참선혜학의 요체는 희극적 반전(comic reversal)이며 대개 이런 투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게 뭔가?" "죽은 고양이네." "왜지?" "아무도 그 값조차 알려고 안하니까." 이러한 반전은 일반통념을 깨뜨리며, 이것저것을 비교 판단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 자체마저 우스개로 만든다.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옛 일본의 얘기다.

자기 상관의 처와 간통한 사내가 들통이 나자 상관을 죽이고 그녀와 도망친다. 그러나 이내 그녀에 싫증을 느껴 내쫓아 버린다. 이러구러 세월이 지나 그는 속죄하는 뜻으로 마을사람들이 지나다닐 긴 땅굴을 홀로 파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상관의 아들이 검객이 되어 그를 죽이러 온다. 그는 검객에게 자신은 죽어 마땅하나 제발 땅굴을 다 뚫은 뒤에 죽여 달라고 간청한다. 검객이 아량을 베풀어 기다려준 몇 달 동안 그는 더욱 열심히 땅굴을 판다. 그를 빨리 죽이고픈 마음에 검객도 함께 파기 시작한다. 그러다 검객은 어느덧 그의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존경하게 된다. 이윽고 땅굴이 다 파졌다. 그는 검객에게 감사하며 이젠 죽여 달라고 목을 내민다. 그러자 검객이 말한다. "제 어찌 스승님의 목을 치리까?" 검객은 극악한 부친 살해범의 또 다른 면모, 즉 참된 스승의 표상을 발견한 것이다. 서로 대치하는 상극(Opposites)도 마침내 하나(Oneness)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얘기다.

참선혜학은 분별(分別)의 벽을 무너뜨리며 상반(相反)의 강위에 결합(結合)의 다리를 걸쳐준다. 또한 참선혜학은 갇히고 닫힌 긴장감을 훌훌 털어내는 해방과 자유를 주는바, 이것이 곧 일종의 해탈(Liberation)이다.

젊은 제자가 스티브 앨런이란 미국선사에게 묻는다. "만일 모든 욕망을 다 들어주는 여의주를 갖으신다면 선사님께선 뭘 소원하시겠습니까?" 제자의 끝없는 욕망이 늘 마음에 걸린 선사가 대답한다. "욕망을 멈춰달라고 빌겠네." 그 말에 제자는 크게 깨우친다.

참선혜학은 애써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다르마를 달리 전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장황한 서술보다는 대개 쉽고 짧은 문답형이다. 어느 외국청년이 내게 물었다. "하심(下心)이란 뭡니까?" "내려두는 것(put down)입니다." 그러자 또 물었다. "도대체 뭘 내려두죠?" 다시 대답했다. "그 의문마저 내려두는 것입니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 Humor Function in Meditation 기타

"Knowledge is one thing, wisdom another"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라니까**

A proud priest, an expert on the Diamond Sutra, came upon an old woman selling tea and cakes on the road. The hungry priest wished to refresh himself, but had no money. He told her, "I have upon my back a treasure beyond knowing the Diamond Sutra. If you will give me some tea and cakes, I will tell you of this great treasure of knowledge." She knew something of the Sutra herself, and proposed her own bargain. "Oh, learned priest, if you answer a simple question, I will give you tea and cakes free." "Good enough." Then she asked, "When you eat these cakes, do you eat with the mind of the past, the mind of the present or the mind of the future?" Alas! No answer occurred to him. so he took the text of the Diamond Sutra out of his backpack, hoping to find the answer. As he studied and pondered, the day grew late and she packed up her things to go home for the day. "Tut, tut. Such an idiot !" She murmured as she left him in his quandary. "You eat the tea and cakes with your mouth, not with your mind. Knowledge is one thing, wisdom another."

<금강경>에 달통한 자부심이 강한 스님이 길가에서 차와 떡을 파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걸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싶은데 빈털터리던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바랑 속에 <금강경>의 지혜보다 더 큰 보물이 들어 있소. 그 차와 떡을 좀 주면 내가 그 엄청난 지식을 알려주겠소." 자신도 <금강경>을 얼마간 알던 그녀는 나름대로 흥정을 걸었다. "예, 학식 높으신 스님, 제가 여쭙는 쉬운 질문에 답을 주시면 차와 떡을 거저 드리지요." "좋소."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제가 차와 떡을 올리면 스님께선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때의 마음으로 드시렵니까?" 어라? 답이 도통 떠오르지 않아 그는 바랑에서 <금강경>을 꺼내 답을 찾아내려고 살살이 뒤적였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노파는 집에 돌아가려고 슬슬 좌판을 챙겼다. "쯧쯧, 아둔하시긴!" 그녀는 여전히 쩔쩔매는 그를 남겨둔 채 중얼대며 떠났다. "차와 떡은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거지.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라니까."

번안: 성휴 스님

UCLA 불교학회 심포지움 '불교미술연구현황' 주제

미국 UCLA대학의 불교학회는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교 하신엔다교직원클럽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불교미술연구현황'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심포지움은 UCLA 및 예일대, 뉴욕주립대 등의 김민구, 김선경, 소냐 리, 낸시 스타인하드, 필리스 그래노프, 코이치 시노하라교수 등 16명의 저명한 관계석학들이 대거 참여, 6세기 동아시아의 불교건축, 굽타시기의 동남아불교미술사 등의 개별 주제발표 및 종합평가토론으로 이어진다.

출처: UCLA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성휴 스님이 이끌어온 해외면은 막을 내립니다.
그 동안 해외 불교계 소식을 다양하게 전해준 성휴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 앨런 긴즈버그 ❸

잭 케루악 불문으로 이끌어줘

처음엔 저항문학의 동지로 만난 잭 캐루악은 긴즈버그를 불문으로 안내한 선배도반이기도 하다. 긴즈버그의 회고다.

"그가 말해줬어요. '존재의 본질은 괴로움이며 불교의 4대 진리(Four Noble Truths), 즉 사성제(四聖諦) 중 첫 번째 가르침이다. 삶엔 괴로움이 있고 거기엔 까닭이 있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멈춤이 있으며, 그 멈춤으로 이어지는 여덟 묶음의 고결한 행로(The Noble Eight-fold Path)를 팔정도(八正道)라 한다. 이는 불교수행의 기본방편인 '바른 삶'을 뜻한다.' 근데 당시 저는 이를테면 좌경진보성향의 자유지식인, 뭐 그런 거였죠. 그런 저한테 존재의 본질이 고통이니 뭐니 말하니까 첨엔 짜증도 나고 모욕감도 좀 느꼈어요. 암튼 그는 그 답엔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설명해줬어요. 그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열렬한 팬이었죠. 시나트라의 내리까는 듯 당당한 발성, 명확한 언사와 자기표현, 그 모두를 무지 좋아했거든요.?그래서 그는 삼귀의(Refuge in the Three Jewels)에 시나트라 식의 노래 가락을 넣어 읊어주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를 불문으로 향하는 두 번째 연등을 밝혀준 겁니다.

붓다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다르마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상그하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여기서 붓다라 함은 특정한 인물보다는 큰 깨우침을 상징하죠. 즉,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우주를 느끼는 경지를 말해요. 또 다르마란 깨우침의 상태를 내비쳐주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불경과 불교철학, 그리고 실천방편을 뜻합니다. 이어 상그하란 깨우친 분을 따르는 무리를 일컫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인연으로, 저는 비로소 불교의 섬세하고 오묘한 진리와 아울러 고통과 번뇌의 참뜻, 덧없는 제행무상의 참뜻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긴즈버그나 영원한 캐루악도 존재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후 긴즈버그 역시 자작시의 낭송회나 대중공연 때 자주 불교성향의 명상음악과 염불을 도입하고 때론 연주에도 직접 참여한다.

1956년 그는 미국의 기존가치관과 사회적 병폐를 그린 '울부짖음'을 발표하며 계몽적 저항시인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후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찬란한 몽환을 도출한 '카디쉬와 다른 시' 등을 발표한다.

걸작 카디쉬는 불행한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연민,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 긴즈버그 자신의 내면에 새까만 콜타르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은 악령을 긁어내는 영적 카타르시스 내지 구마의식이랄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 그는 카디쉬의 처연한 후속인 '하얀 수의'를 발표한다. 그처럼 그는 일생을 두고

'울부짖음'으로 계몽적 저항시인 대열 합류
비트닉 부디즘 '자아회복' 일깨우는 메시지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엾고 한 맺힌 여인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

다른 한편, 그는 대중연예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음악인들로 비틀즈의 존 레넌, 폴 매카트니, '바람 속에 들려오는'이란 반전가요로 유명한 밥 딜런 등 현대판 음유시인들이 있다.

비트세대의 끝자락인 1974년 미국의 각계인사들은 비트닉 부디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미국 최초의 불교고급교육기관으로 정규인가를 받은 나로파대학을 콜로라도에 설립했다. 긴즈버그는 이 대학에 도반이자 동지인 캐루악의 신 계몽사상을 기리는 '잭 캐루악 해탈시문학부'를 설립하고 자신도 몇 년 뒤에 사망한다.

이렇듯 비트닉 부디즘은 과거완료의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문화조류다. 그 선구자들은 무작정 '믿습니다'라는 녹슨 컬트의 덫에 걸려든 중생에게 '자아회복'을 일깨우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신앙의 자유란 믿음의 자유만을 뜻할까요? 믿지 못할 건 믿지 않는 불신의 자유(Freedom Not to Believe) 역시 신앙의 자유임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끝> 성휴 스님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수행의 결실 '지묵 스님 전집'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문상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는 지묵 스님

지묵 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원願 때문일 것입니다.
《지묵 스님 전집》의 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지묵 스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정토사회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며 마음모아 《지묵 스님 전집》을 엮어내는 바입니다.

01 죽비 깎는 아침 02 인도순례기 나마스테 03 봉주르, 길상입니다 04 달마와 혜능 05 초발심자경문 강설
06 육조단경 강설 07 산승일기 08 날마다 좋은 날 09 노스님의 젊음 10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 팩스 02-393-9696

간화선·위빠사나 '선정'서 동질성 찾아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9차 간화선 세미나 개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각각 대승과 소승불교의 대표 수행법이다. 국내에서는 간화선 우위론의 대세 속에 간화선 전문가들은 위빠사나를 '낮은 단계의 소승불교 수행법'이라 폄하하고, 위빠사나 전문가는 부처님 전통수행법을 주장하며 '간화선이야 말로 종파불교의 산물'이라며 반목해왔다. 불교수행법으로서의 동질성보다 차별성이 부각된 현실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동질성을 강조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은 '간화선의 지평확대를 위한 학술적 모색'을 주제로 제9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11월 21일 개최했다. 선심리치료 분야 국내개척자 김보경 명예교수(경북대)와 초기불교 전공자 조준호 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이 심리치료로 이해되고 위빠사나와 통섭됨을 강조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주제발표 '간화선과 위빠사나'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가르침이라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위빠사나 수행은 '선정의 바탕 없이 위빠사나는 가능하다'는 등 선정한 무관한 수행법이라는 주장에서 지금까지 간화선 우위론 입장에서 위빠사나 열등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되는 위빠사나는 대부분 근본 위빠사나 수행법이 아닌 대중 교화 방편에서 개량된 위빠사나. 조준호 연구원은 "개량된 위빠사나가 마치 초기불교 위빠사나인양 소개돼 위빠사나와 화두선이 별개인 것으로 왜곡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리인식에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알아차림' '감지한다' '마음챙김' '마음지킴'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위빠사나가 오해 받은 원인"이라 설명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교집합을 선정(禪定)에서 찾았다. 조 연구원은 "간화선에 '선(禪)'자가 붙은 이유와 위빠사나의 사념처에 있어 '염(念)'은 바로 선정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라며 "일각의 선정 배제나 선정 경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두와 Sati(念)의 역할과 기능이 상통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준호 연구원은 "간화선에서 잠에서 조차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아야 한 것이나 위빠사나에서 '잠자는 동안(sutte)'에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며 "화두나 위빠사나나 깨어있는 본성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은 △모든 중생의 정화를 위해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 △올바른 수행의 길을 위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다. 조 연구원은 "위빠사나를 구경열반의 일승도(一乘道)라 한 것이나, 간화선이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 한 것은 그 기준이 모두 깨달음과 열반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다"고 말했다. '단 하나의 수행법(일승도)'나 '최고의 수행법(최상승선)'이나 결국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한 길을 간다는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은 불교는 '극단적 수정주의(修定主義)'로도 표현됐다.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동질성에 대해 발표한 조준호 연구원(왼쪽)과 논평한 임승택 교수..

조 연구원은 "낮은 단계로도 열반 ·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정통을 벗어난) 개량된 위빠사나가 간화선과의 갈등을 야기했다"며 수행에 지친 사람들이 솔깃해 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경전에는 항상 계 · 정 · 혜 삼학이 강조됐다"며 갈등의 해법이 부처님 말씀과 경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김보경 명예교수는 '간화선 수행과 심리치료'를 발표했다. 김 명예교수는 "연기와 무아관으로 정리되는 불교의 핵심적 철학이 학습 및 행동심리학의 철학적 배경과 다르지 않다"며 "선은 무지에서 오는 온갖 번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학적 방법"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금당 부속건물 있다

정림사지서 백제 가람구조 밝혀져

백제 사비도성의 중심사찰이었던 부여정림사지(사적 제108호) 발굴과정에서 백제시대 가람구조가 새롭게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정림사지를 발견했던 후지사와 가즈오의 학설을 인용해 백제 가람은 '일(日)자형'으로 남북 직선축을 따라 대문-탑-금당(金堂, 본존불이 있는 본당)-강당이 놓이고 사방에 회랑을 두른 것으로 알려졌었다. '1탑 1금당식'으로 불리는 가람 형식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가 금년 실시한 제8차 조사결과, 강당지(동서길이 39.1m, 남북 폭 16.3m) 좌우로 1m 간격을 둔 대형 부속건물지(동서 폭 12.1m, 남북길이 39.3m)가 발견됐다. 이러한 강당 및 금당 좌우로 회랑과 연결된 부속건물의 배치형태는 6세기 세워진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왕흥사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전형적인 백제시대 가람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부여정림사지 조감도.

김낙중 학예연구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은 "1942년부터 7차례 걸친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다"며 "기존에 조사돼 다른 가람 배치로 보고된 사지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서양 철학의 융합 모색… 학계 주목

한자경 교수 제2회 청송학술상 수상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 사진)가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소광희)가 선정, 시상한 제2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15일 서울 함춘회관에서 개최됐다.

한자경 교수는 독일에서 선험철학을 전공하고 다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다.

<칸트와 초월철학>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 등 역서를 통해 한국에 근대 독일관념론을 소개했고, 저서 <유식무경> <불교철학의 전개> 등으로는 불교철학의 심식이론을 체계화했다. 특히 한 교수는 <자아의 연구>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등에서 자아 · 주체 · 마음 · 인간 등에 관한 동서양 철학의 융합을 모색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저서 <불교의 무아론>은 무아론이 윤회론, 해탈론과 양립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 동서양 철학을 회통시켰다는 호평 속에 청송학술상을 수상하게 했다.

소광희 이사장은 "한자경 교수는 청송 선생처럼 동서양 철학의 가교를 놓는 등 학문적 경향이 같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청송학술상은 국내 서양철학 연구 1세대로 불교 철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故 청송 고형곤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고전 前 총리가 청송장학회 설립과 함께 제정한 상이다.

고 교수는 고건 前 총리의 부친이다. 연세대 ·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전북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철학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1970년 동국대 역경원 심사위원도 지냈던 고형곤 교수는 선(禪)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진력했다. 특히 학계 최초로 서양철학인 하이데거 철학으로 선학을 설명한 저서 <선의 세계>는 동서양 철학을 회통시킨 수작으로 통한다. 말년에는 원효 연구에 천착해 1987년부터 10여 년간 내장산에서 <금강삼매경론> 재해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차별금지입법 위헌일수도"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서 이정훈 교수 주장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 민주당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안 등 종교차별금지 법안이 줄 잇는 가운데 종교차별금지입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이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11월 22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48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유주제발표에 참여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주제발표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 입법 요구의 위헌성'에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를 ①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정종교집회에서의 '서울시 봉헌' 발언 ②포항시 예산의 성시화 운동 지원 ③성북구청의 교동(교회-동사무소) 연합회로 나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②번 사례만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일 뿐, ①번 사례는 법적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③번 사례는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인지 선교 등 종교목적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정해진다.

이 교수는 "오히려 공직자의 사적인 신앙고백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고지해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소지마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불교계의 종교차별관련 입법요구는 법리상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고, 대정부 요구 내용 또한 다소 감정적"이라며 "불교계의 입법요구 내용과 대정부 요구 내용은 상당부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간화선 대중화로 영성에 다가가야"

종교교육학회 세미나

과학자마저도 영성을 이야기하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 불린다. 영성이 대중화되고 보편화 되는 시대, 불교 등 종교계가 전략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회지도자적인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황수경(동국대 강사)씨는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11월 14일 선문대에서 '영성계발과 종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의 수행과 영성계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씨는 "현재는 기업도 SQ(영적지능, Spiritual Quotient)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종교가 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천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강조했다. 황수경씨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간화선 대중화다. 황씨는 "소수 엘리트만의 난해하고 어려운 방법으로는 어렵다. 간화선 대중화를 비롯해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일반인이 영성에 쉽고 바르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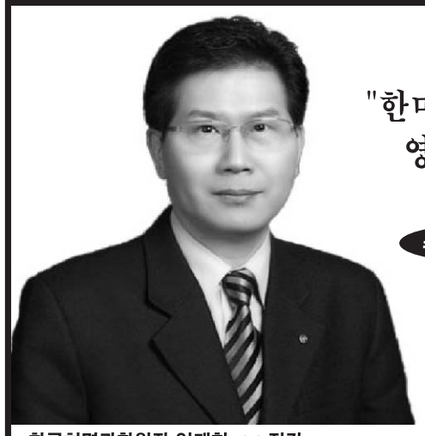
'육식' 학술대회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동국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실에서 '육식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008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와이 쇼우고 교수(일본, 동양대학), 아상가 교수(스리랑카 콜롬보 대학), 황샤니엔 교수(중국, 사회과학원), 박정진 교수(한양대), 고영섭 · 허남결 · 김동일 교수(이상 동국대)가 발표자로 나선다. (02)2260-8507 조동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고 행하면 행복해져요"



이 란 (가정법회 지도법사)



#18년간 가정법회 이끌어

여여원(如如院) 입구에 들어서면 "그대 스스로 그대를 점검하시라" "그대 스스로 그대를 일으키시라"라고 쓰여 진 주련과 마주하게 된다. 몇 개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묵언"이라는 글자와 마주치게 된다. 이리하여 여여원에 들어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매만지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3층 법당에는 상징적으로 관세음보살상 한 분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정법회'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형편인데, 이란씨는 18년 동안 가정법회를 이끌어 왔다.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18년이나 지속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 물었더니 '좋아서 하는 일이면 힘든 것도 모르고 즐겁게 하며 그러다 보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답하였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주부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우리가 여성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자의 힘은 자신을 살리는 힘도 되지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힘의 원천인데 왜 함부로 살아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집에서 18년간 가정 법회를 이끌어왔는데,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와 함께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이 바로 광진구에 위치한 '여여원'이라는 법당이다. 이란씨는 "이젠 밖으로 드러내도 된다는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란씨는 또한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 법사이기도 하다.

"이곳 역시 가정법회의 연장입니다.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체나 사랑방처럼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 보살, 천주 보살도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하다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 삶이 고단한 사람도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마음이 아픈 이가 와서 이야기 하면 잘 들어주고 아프겠다 하면서 차 한 잔 주고, 화가 난 사람이 오면 '화 나겠다' 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요. 전 별 것 안 해주어도 예수 보살, 천주 보살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여여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여기서 사주 봐주나요?"하고 묻는 사람이 있단다. 그럴 때면 "여기서는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 자신이 자신을 알게 해주는 철학을 가르쳐주는 집이지요"라고 답한다. 이란씨의 뚜렷한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실천

이란씨는 절에서 들은 스님의 법문이 너무 좋아 경전을 공부했고 그것을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웠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친구를 도반으로 해서 이란씨의 거실이 법당이 되어 우선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했다. 그 후 법사스님을 모시고서 서른 명의 사람들이 모여 <육방예경> <법화경> <무량의경> <법화삼부경> 등을 공부했다. 이러한 경전공부를 통해서 올곧은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거실에서 공부를 시작한 도반들이 이젠 육십을 전후한 나이에 들었기에 지금은 <승만경>을 공부하고 있으며, '승만 보살'의 삶으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단다. 그 말미 끝에 따끔한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천원을 놓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전 재산을 놓고 기도를 해도 내 업장이 가벼워질까 말까한데… 천원을 놓고 원을 성취하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가야 지요. 세상을 급히 가려하지 말고 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이란씨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 하나로 꿰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믿는 것과 동시에 행하여야 하고, 행하는 것이 열매로 증득되어져야 하며, 불교를 믿는다면 믿는 그대로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처님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 부처, 아들 부처, 이웃 부처님께 회향하다 보니 저보고 주변에서 보살의 삶을 산다고 하데요. 저는 '법당에 가서 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안방에서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14년에 걸쳐 <법화경>공부를 하고 나니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부처입니다'라고 말해주었듯이 이란씨 역시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더란다.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은 부처요'라고 반복해서 말해주니 감추어진 능력이 들어납디다. 약간의 제주만 있어도 도반들끼리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 재주를 어떻게 부려먹을 지를 궁리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붓글씨를 잘 쓰니 경전을 써서 책으로 엮는다, 누구는 바느질을 잘 하니 도반들에게 예쁜 가방을 만들어준다, 어떤 도반은 한과를 잘 해서 행사 때 만들어온다는 등 그렇게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었다. 이란씨 역시 외부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기독교재단의 학교로부터 초빙 받았으니 더욱 귀한 일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교가 되어야 하며, 예술이 되어야 하며 아름다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 소문이 성신여대까지 퍼졌나 봐요."

자잘한 일상의 행복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일상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란씨는 결코 일상의 행복에만 안주하지는 않는다. 부단히 노력하고 배운다.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동국대에 입학하여 만학도가 되어 2년 정도 배웠지만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서울 전문 강당에 다니고 있다. 이란씨가 지금까지 가정 법회를 이끌어 온 것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란씨는 갈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웃는 얼굴도 보시임을 가르쳐 주고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을 것'을 권한다. 내가 찾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내 발밑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여여원을 나서면서 주련의 글귀를 다시 한 번 새겼다.

"그대 스스로 그대를 점검하시라."

"그대 스스로 그대를 일으키시라."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수 제 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 금 계 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최고의 선 물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풍산동 99%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15,000원

옥관문화훈장 수훈

망운암 성각 스님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의 옥관문화훈장 수훈 기념법회가 열렸다.

11월 14일 오후 6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법회에서는 불자대표 탤런트 전원주의 발원문 낭독, 성각 스님 지인들의 축사·격려사가 이어졌다. 성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항상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 선서화를 그릴 뿐. 부끄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옥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성각 스님은 30여 년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선서화에 담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법회와 전시가 만나 축제가 된다

12월 4~7일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열려

법회와 전시컨벤션이 결합한 불교문화축제가 12월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가운데 매일 오후 3시 벡스코 제2전시장 특설무대에서 4일 팔재계수계법회, 5일 연등공양관음기도, 6일 영가천도지장기도, 7일 대입합격발원합동기도 순으로 이어진다.

또 전시장 내 200여개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불교 산업 유관업체 150여 곳이 참가하는 불교박람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업체로는 차, 승복, 불상, 석조물, 불교미술, 향, 불교여행사,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전국 약 150여 업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그밖에 바라밀 예술단, 부산연예인봉사단 등 각종 불교예술단체의 민요, 성악, 마술쇼, 선무도 시연, 불자가수공연 등으로 신행과 불교문화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불교축제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동안 부산 경남 지역 사부대중 10만 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기존의 팔관회에 불교문화엑스포를 접목해 우리나라 대표 불교문화축제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한, 중, 일 및 동남아 불교권 국가를 초청해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 불교행사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2월 4~7일 부산 해운데 벡스코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모습.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09년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준비 중이다. 전세계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 세계불상전시, 해외고승초청법회 등을 통해 서로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택시가 대웅전입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20주년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김기태)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오전11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지도법사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비롯해 개인택시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달리는 법당'이란 슬로건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두가 불교홍포에 전력하는 주지이고, 택시가 바로 부처님께서 정좌하신 대웅전이고 극락보전"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지향하는 부처님 정법포교단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는 소년소녀가장 23명을 초청해 택시 차량 내 모금함을 통해 모은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총 115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모금함으로 모은 장학금을 소녀소녀가장 23명에게 전달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김기태 회장은 "오늘 학자금을 받은 학생 모두가 오늘을 기회로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내가 먼저 돌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정진해 우리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운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구현하고 불국토를 만드는 개인택시기사모임이다.

1988년 창립 이후 12차례 총 670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해왔다. **박지원 기자**

"이제 부처님과 친해졌어요"

범어사, 비불자 어린이 지도교사 템플스테이

부산에서 불교어린이집·유치원 비불자 지도교사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사)동련(이사장 지현)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범어사 말사 및 부산지역 불교어린이집·유치원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란 주제로 비불자 교사들이 불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5일 오후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론강의, 저녁예불, '어린이용 선체조' 실습, 촛불발원과 명상 등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새벽 3시 새벽예불 후 명상 108배, 계명암 암자순례, 운력, 회향식을 끝으로 회행됐다.


'어린이용 선체조' 실습을 통해 불교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비불자 교사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중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직접 강의한 '어린이용 선체조' 수업은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불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타종교인이거나 무교인 점에 주목해, 사홍서원 퍼즐 맞추기, 합장주 만들기, 만다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동련 정일훈 교육지원팀장은 "참가자 대부분은 불교에 무관심했었는데 교육이 끝난 후 불교와 부처님, 불상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불교보현회

"봉사 아니라 부처님 법 따를 뿐"

세 살 때부터 기른 천진이는 올 가을 군에 입대했고, 미선·도훈 남매는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 성윤·대광·대복 3형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정이는 간호대학, 세진이는 사회복지사를 꿈꾼다. 이들에겐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낳아주진 않았지만 20년 넘게 길러주고 보살펴준 부모가 같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수백 명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준 이들은, 바로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다.

부산불교보현회는 1982년 7월 보름 창립멤버 13명으로 결성됐다. 27년이 지난 현재 회원은 약 300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주부, 시장 상인,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27년동안 한결 같이 보시를 실천해 온 부산불교보현회 회원들.

27년째 부산불교보현회를 지켜온 안성이 회장은 "이웃에 사는 실명위기 독거노인의 눈을 고치려고 탁발로 돈을 모아 치료해 드렸다"며 "거짓말처럼 6개월 만에 할머니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일을 계기로 보현회를 창립했다"고 보현회의 처음을 회상했다.

회원들의 집을 돌면서 가정법회를 시작하고, 이때 모인 회비와 후원금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27년 전부터 부산불교보현회의 회비는 '없다'. 최저 1000원부터 각자 형편에 맞게 내면 된다. 그렇지만 회비 운영만큼은 여느 대기업만큼 투명하다. "10원 한 장 허투로 쓰지 않고 수익전액은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모든 지출결산을 확실히 했기에 지금까지 보현회가 살아남은 것"이라고 안성이 회장은 자부했다.

그동안 부산 경남지역 양로원, 고아원, 소쩍새마을, 예천연꽃마을, 소년소녀가장, 군부대, 결핵요양원 등 부산불교보현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문이 퍼졌고, 점점 많은 회원들이 모였다.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요양원의 행려환자들에게는 의약품과 옷을 지원했다. 국군부대에도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안성이 회장은 "그동안 후원하며 아들, 딸 삼은 아이들 중 단 한사람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모두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 아이들이 어려운 곳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1982년 창립 당시 중장년층이던 회원들이 이제 60~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부산불교보현회는 보현홍법청년회·보현축구봉사회 조직으로 점점 젊어지고 있다. 젊은 청년 불자들이 장애우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천마재활원, 성우원, 평화의집에 축구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11년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동안 받은 상도 수십 개. 하지만 27년을 함께해온 원로멤버들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최춘자 총무는 "상 받은 것은 중요치 않다. 보현회가 한마음을 낸다는 게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11월 10일 창립 27년 만에 보현회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 부산 범천동에 법당과 사무실을 개원한 것. 큰 결실이지만 보현회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부처님법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부산불교보현회가 만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닐까. **박지원 기자**



전각 갈라져도 시공사 "몰라"

정읍 다천사, 도로공사로 피해 늘어나


터널발파공사로 균열이 발생한 정읍 다천사 대웅보전 기둥.

도로공사 발파작업으로 정읍의 한 전통사찰이 법당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임시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태고종 다천사(주지 등각, 전통사찰 제98호) 대웅보전과 원통전, 요사채 등은 2006년 6월 착공한 원평~태인간 도로공사 2공구 항가산 터널 발파 공사로 균열이 진행 중이다. 대웅보전의 경우 기둥에 발생한 균열의 폭이 3cm 정도까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대들보와 도리 등 각 부재들이 심한 균열과 비틀림으로 인해 이탈된 상태다.

요사채도 벽면 균열이 진행돼 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해 대중들은 가건물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천사(茶泉寺)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된 경내 1300년 된 샘터도 공사와 때맞춰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수록 고갈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터널 발파공사 당시 다천사 측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점거농성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익산지청과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전각의 균열원인은 발파작업이 아닌 자연현상"이라며 민원을 묵살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등각 스님은 "국토관리청은 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전통사찰보호법에 따른 아무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재 소송은 공인기관의 피해조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행사는 법원의 피해보상 조정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사찰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창립

송광사 백양사 등 5개 교구본사 광주사암련 등 동참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11월 15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식과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 수용을 정점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가라앉는 가운데,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가 창립식을 열고 공직자 종교편향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상임공동대표 영조, 이하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11월 15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1000명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과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 5개 본사(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 치사를 대독한 세영 스님(사회부장)은 "자비는 방관이 아니다. 평화와 이타적 자비를 증시하는 불교지만 인내와 관용만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잘못은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불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당당한 불교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치사에 앞서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봉행사에서 종교차별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종교 자유를 보장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계는 인재불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정부에는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 △국회에는 종교차별 금지 입법의 즉각 처리 △공직자에게는 성시화운동 참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차별철폐와 종교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종교차별 종식과 정법 수호를 위한 활동과 국민주권 및 불자 인권 옹호 활동, 생태계 및 사찰 환경 보호 활동, 성보문화재 보호 활동, 시민사회 및 타종교와의 연대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기정 의원, 오병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정치인들도 다수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전주 정혜사 상락정토마을

"모든 중생 부처님 품으로 이끌어요"

천년고도 전주와 함께 이어온 완산의 정맥 완산칠봉아래 자리한 정혜사. 때마침 내린 첫눈이 소복이 쌓인 도량 한쪽에 위치한 상락정토마을(대표 혜일, 원장 지각)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꿈길을 걷는 듯 포근해 보인다.

상락정토마을이 자리한 정혜사 도량은 1898년 청정 비구니 수행도량이다. 창건주이자 보문종 종정 혜일 스님이 보문유치원과 완산불교회관을 개관해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상락정토마을 개원은 창건주 이래 원력으로 도량을 지탱했던 포교와 복지사업의 기반을 이뤘다. 보문유치원-완산불교회관-상락정토마을을 잇는 복지벨트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부처님 품안에서 회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상락정토마을은 대지 4582㎡ 연건평 1471㎡ 지상 3층으로 지어졌다. 전북 지역 최초의 불교전문 실버타운 상락정토마을은 완산칠봉 산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등산뿐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도심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상락정토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정혜사 내에 위치해 기도와 수행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혜사 경내 완산선원과 보광전, 명부전 등 법당에서 명상, 참선, 사경, 간경 등 각자의 근기에 따라 맞춤형 수행이 가능하다.

상락정토마을은 입주자들이


전주 상락정토마을 전경.

종 종정을 지낸 명주 선사의 부친 정원명 거사가 터를 잡은 유서 깊은 도량이다.

정혜사 대중들은 알뜰한 살림살이로 유명하다. 예부터 불교포교와 사회복지사업에 뜻을 둔 명주 선사와 정원명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정혜사에 많은 어르신들을 봉양해왔다. 그런 가운데 정혜사 주지이자 보문종 종정 혜일 스님이 보문유치원과 완산불교회관을 개관해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상락정토마을 개원은 창건주 이래 원력으로 도량을 지탱했던 포교와 복지사업의 기반을 이뤘다. 보문유치원-완산불교회관-상락정토마을을 잇는 복지벨트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부처님 품안에서 회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상락정토마을은 대지 4582㎡ 연건평 1471㎡ 지상 3층으로 지어졌다. 전북 지역 최초의 불교전문 실버타운 상락정토마을은 완산칠봉 산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등산뿐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도심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상락정토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정혜사 내에 위치해 기도와 수행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혜사 경내 완산선원과 보광전, 명부전 등 법당에서 명상, 참선, 사경, 간경 등 각자의 근기에 따라 맞춤형 수행이 가능하다.

상락정토마을은 입주자들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탁의사와 간호사에 의한 간호서비스, 정기적인 검강검진을 실시중이다. 최신식 시설을 이용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 요가 프로그램 운영, 국선도 배우기,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 등 상락정토마을만의 특화된서비스도 제공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지역이 문화예술 지역인 점을 감안해 정기적인 공연관람과 인근 지역 온천 나들이,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 사회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노래교실, 다도, 자원봉사자들의 말벗과 전문가를 초빙한 상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원장 지각 스님은 "불자들이 임종 무렵 마땅한 불교시설이 없어 타종교 시설에서 회향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부처님 도량에서 회향하고 싶은 불자들의 원을 받들어 보다 많은 불자들이 노후를 부처님 도량에서 바르게 회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늘부터 참불자가 되세요"

목포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11월 20일 목포교도소 대강당에서 봉행된 재가불자 오계 수계법회.

전남 목포교도소는 11월 20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53명을 대상으로 재가불자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 교도소 2팀(팀장 이종관)이 주관해 진행된 행사는 전계아사리 경훈 스님(무안 약사사)과 지황 스님(해남 광보사)을 비롯해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인근 사암연합회 회원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훈 스님은 계를 전하는 말에서 "오계는 불교에 처음 발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숨처럼 지켜야할 계율임과 동시에 인간과 세상을 편하게 하는 근본 윤리"라며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언행으로 참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동참 수계자에게는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관음경> 등 불교 경전과 다과가 제공됐다.

정영균 포교사(광주전남포교사단)는 "교도소 수용자들은 사회에 적응못한 사회적 약자"라며 "불교의 가르침에 동참시켜 불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교도소 불교교정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불자수용자들, 스님, 포교사와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회 불교입문자와 불자수용자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해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산재 전수관 건립

전북도, 봉서사에 추진

전라북도에 영산작법 교육전수관이 건립돼 전북지역 고유의 영산재 보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11월 18일 "전북 지방무형문화재 제18호 '봉서사 영산작법' 교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영산작법 교육전수관 건립 예정지는 현재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있는 전주시 중노송동 465번지 일대다. 504㎡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평 1155㎡ 규모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상훈 학예연구관은 "우리 고장의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신 찾는 것이 극락가는 길"

진도 서학사 한국전 희생영령 천도재


진도 서학사는 11월 16일 월출산에서 한국전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천도재가 영암 월출산 산자락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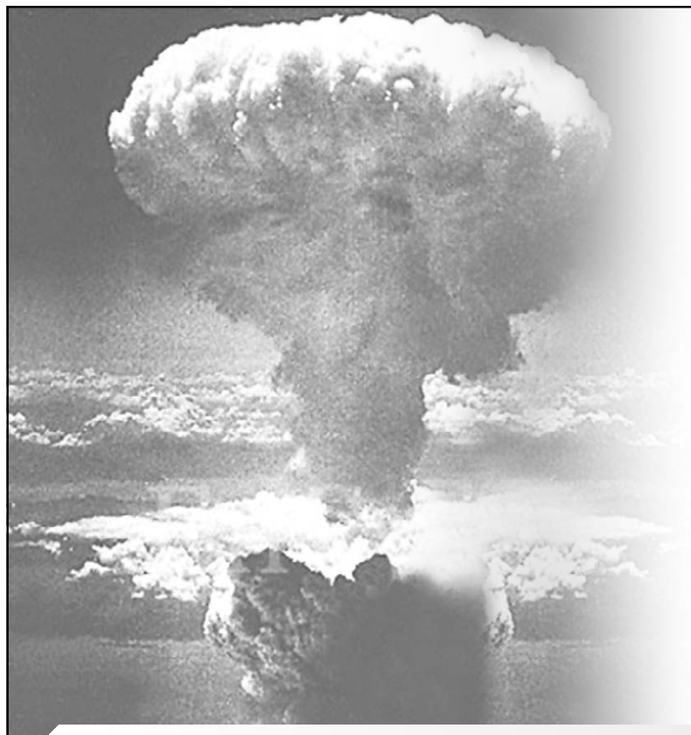
진도 서학사(주지 중화)는 11월 16일 월출산에서 한국전쟁 때 영암군 11개 면 등에서 희생된 9000위에 대한 합동 천도위령재를 봉행했다.

보성 봉갑사 회주 도륜 스님을 비롯해 영암군 11개면 주민들이 참석해 봉행된 행사는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호산) 회원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도륜 스님은 법문에서 "자기 마음의 진면목을 찾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같은 입장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야말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이며 최고의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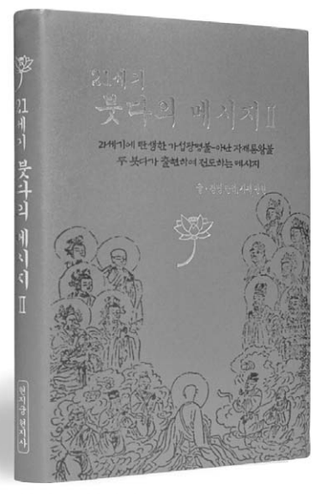
한편 중화 스님은 4년 전부터 매년 진도에서 희생당한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1세기 불교계에 새로운 경전 탄생!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Ⅱ**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이 땅에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현지궁 현지사 / 378쪽 / 25,000원 / 초판

발간 하자마자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탄**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습니다.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가 궁금하십니까?
붓다가 밝히는 사후세계의 진실과 생사관이 여기 있습니다. 깊은 삼매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 받아 썼습니다.

"새벽에 올리는 남섬부주 제자의 공양을 드시고 천녀들이 가져온 차 공양을 ....
... 불세존께서는 모든 불보살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시간은 거의 2시간 ...

-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열리는 영산불교 붓다회상의 희유한 설법장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현지궁의 모습과 부처님의 일상 일부를 공개
- 불세존 등 여러 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나타나시는 변화신의 모습을 공개
-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의 생성원리와 무량광의 실체등 부처님 세계를 깊이 묘사
-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와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인 중음세계 · 육도윤회세계 · 해탈세계의 실존과 실상을 밝히면서 완벽한 생사관을 제시
- 보살 ·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자 · 타력불교'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파라다임 변혁을 주도.
-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체분리와 업장소멸과정의 밀장일부를 공개
-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관계에 대한 불교계의 오랜 논쟁을 명쾌하게 해결
- 수행을 방해하는 용신 · 이매망량 · 정매마 · 천마 등 마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

2008년 신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와 자재만현 큰스님의 70여회 붓다회상의 설법내용중 핵심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가르침의 종합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우리 종단을 말한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진봉 스님

"삼론의 대승반야공관 설파"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시기, 불교는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의 삼론이 근간을 이뤘다. 특히 삼론의 근본인 중론은 대승반야공관(大乘般若空觀)이야말로 불교의 연기, 무아, 중도를 가장 바르게 실현한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 ·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교리와 개념에 집착 · 분별 · 희론하는 것을 파해 바른 지표를 제시했다. 이 후 생겨난 많은 종파는 이러한 중도 대승반야공관의 사상을 모태로 발현했다.


진봉 스님.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불교는 불법의 근본을 놓치고, 삼론을 단지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게 됐다. 이에 고, 삼론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총본산에 금강계단을 세워 출가득도수계를 단일화했으며, 출가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창종 초기부터 연 2회 종도 교육연수를 활발하게 펼쳐 스님 · 신도들이 종단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삼론종도로서 자긍심을 갖게 했다. 2006년도에는 길장 스님의 <삼론현의>를 일반 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각 사찰 및 신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삼론종단 신도들이 2년에 한번 보살계단에서 수계를 받으며, 환경지킴이 서약을 하는

역사 속 삼론종 가르침 되살리고자
300여 개 사찰서 수행과 포교 매진

혜봉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중도화합을 이루고, 역사 속 삼론종의 가르침을 되살리고자 1989년 4월 대한불교삼론종(종정 혜공)을 창종했다. 현재는 총본산 우암정사(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30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에서 450여 명의 스님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삼론종은 창종 후 종단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중국 서하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국가와도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서하사는 삼론종에 정통한 고구려 승랑 대사가 중국에 건너가 법을 설파한 '삼론제일발원사찰'로 평가받는다.

본 종단은 종통을 바로 세우고 삼론종풍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 방편이다.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 · 인류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보다 활발한 행보를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삼론종에서는 각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한국문화 그 자체가 된 불교는 시대정신을 깨달아 시대와 중생의 아픔을 함께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앞으로 대한불교삼론종은 보다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총무원 (02) 937-0343 정리=김진성 기자

"천태종승 조선불교 주도"

황인규 교수, 천태불교학술대회서 주장

고려말 조선초 격동기, 천태종승의 활약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이끈 원동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천태종 종학연구기관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1월 15일 서초동 관문사(부주지 세운)에서 2008년도 천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교육부장 세운 스님, 권기종 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정병조 교수(동국대)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규 교수는 '여말선초 천태종승의 동향'에서 "불교가 여말선초에 이르러 보수화되고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회개혁이나 민중 구제를 펼치며 시대적 대응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동국대)는 "고려말 의선 · 희암 · 나암 · 요원 스님 등 천태종승으로 이어지는 조인규가(趙仁規家)의 승려 등이 천태종계를 주도하며 백련사 결사정신을 선양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백련결사는 1216년 천태종승 요세 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돼 불교의 자각과 반성 등을 촉구한 신앙결사다. 이어 그는 "고려말 신조 스님이 이성계의 신사회건설 및 왕조창업에 뜻을 같이하면서 조계종 무학 스님은 왕사로, 천태종 공앙 스님은 국사로 책봉됐다"고 말했다.

황인규 교수는 "유생들에 의해 주살된 나옹 스님처럼 천태종승 행호도 순교했다"면서 "행호의 순교는 허응당 보우와 환성지안으로 계승돼 오늘날 불교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조선 태종~세종대에 걸친 유례없는 불교 탄압 속에서 행호 스님은 백련결사 본산인 백련사를 중창하는 등 고려말 생불로 추앙받던 나옹 스님과 비견됐다"며 "이러한 천태종승의 노력으로 불교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미 교수는 주제발표 '신라 승려들의 여성관'에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등 여왕이 통치하던 신라에서 여왕의 치세가 사라진 것은 불교의 영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에는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았으나 부처님 입멸 후 비구 중심 교단에 의해 가부장적이던 인도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며 "신라 승려들도 경전에 근거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주장을 폈다"고 설명했다.

불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는 주장은 오장설(五障說)과 용녀의 성불 문제, 아미타신앙에서 극락에 여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모두 여성의 성불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들이다. 오장설에 따르면 여성은 제석천, 마왕, 범천왕, 전륜성왕, 부처가 될 수 없다.

김영미 교수는 "불교수용 초기에는 여왕이 존재하던 시기로, 불교를 믿는 목표가 성불보다 삼악도(지옥 · 아귀 · 축생)를 떠나거나 복을 비는 것이었다"며 "승려들에 의해 오장설이 처음 신라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말했다.

선덕여왕만 해도 오애설이 신라사회에 알려지기 전으로 석가모니에 비견됐다. 아버지 진평왕은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부인으로 칭해질 정도였다. 진덕여왕은 키가 일곱 자,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을 정도였다고 해 부처의 32상 중 하나를 갖춘 것으로 기록됐다.


'여말선초 천태종승의 동향'을 발표한 황인규 교수.

김영미 교수는 "647년 비담은 반란을 일으키며 '여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며, "여왕이 재위했던 시기는 승려들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전"이라며 "오애설 등이 유행하면서 여왕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병삼(동국대 박사과정)씨가 '근본불교의 깨달음', 박서연(동국대 강사)씨가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의 주석학적 이해', 오지연 연구원(원각불교사상연구원)이 '<법화영험전>의 신앙유형 고찰', 이종수(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조선후기 삼문수업의 성립연구' 등을 발표했다.

한편 학술발표 시작 전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망이다. 탐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나오는 정책은 일시적 처방일 뿐"이라 말했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고(苦)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원력과 정진으로 솔선해 해결해야할 과제"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태 청년 하나돼 미래로"

천태종 중앙청년회 제19회 단합대회 성료



제19회 천태종 중앙청년회 단합대회 축하공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청년 불자를 위한 화합의 장이 열렸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오순학)는 11월 15~1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9회 전국 청년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천태 청년, 하나돼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기념법회 및 축하공연, 16일 경주 기림사, 골굴사, 감은사지 등 유적지 답사도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기념법회 법어에서 "활기가 넘치고 씩씩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천태종이 현대 · 생활 · 대중불교 지향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각 지역 청년회원들이 자부심과 큰 뜻을 품어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찾는 길이 대승"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년회 회원들이 권역별로 매년 2회씩 법회를 열어 화합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순학 중앙청년회 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이번 단합대회는 각 지역 청년회가 그동안 정진해 온 노력을 격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년회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공연에는 △경주 청강사 사물놀이 △김해 해성사 색소폰 연주 △대구 대성사 응원단 △서울 명화사 난타 △초청가수 김성면(K2)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나라안정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회장 의륜)는 11월 17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나라안정기원 및 불교중흥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제5기 임원 추대식을 겸해 봉행된 이번 법회는 총재 인왕 스님(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 연합회 소속 각 종단 종정 · 총무원장스님,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계는 난국에 처할 때마다 불법을 숭신(崇信)해 복을 구하자는 기치아래 불교중흥을 진작했다"며 "2천만 불자가 나라안정과 불교중흥을 꾀하는 부싯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창종기념법회

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10월 25일 삼화총림 백화사에서 창종6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속 스님 100여 명과 200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법회에서 혜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5개년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 됐고, 이제 새로운 불교문화 창조와 더불어 수행가풍의 확립, 교육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대한불교무량종 혜안 스님 종정 추대

대한불교무량종은 11월 10일 제17차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혜안 스님(종정권한대행 · 총무원장)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총무원장에는 중앙종회 의장 보경 스님(보경사 주지)이 선임됐다.

혜안 스님은 세계불교도대회 이사,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남북불교도교류추진위원회 중앙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부총재,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총무원장에 선임된 보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량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정스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생각으로 종도 화합과 종단 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원했다.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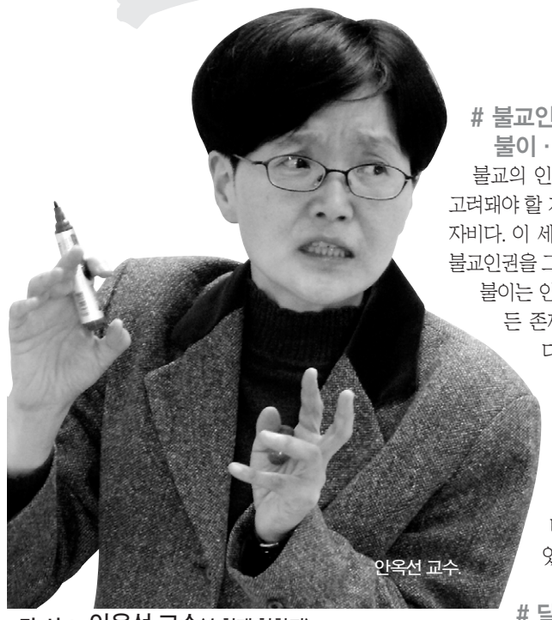

혜안 스님.


보경 스님.



불교인권학교 3강

"만중생 향한 '동체자비' 불교인권의 지향점"


안옥선 교수.

강 사 : 안옥선 교수(순천대 철학과)
주 제 : 부처님 사상에 입각한 인권개념
일 시 : 2008년 11월 18일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 관 : 종단협 불교인권위원회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1박2일간 '불교인권학교'가 열렸다.

불교인권학교에서는 불교인권의 개념과 이론, 그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불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향상 방안이 모색됐다.

불교인권학교 3번째 강의 안옥선 교수의 '불교와 인권' 세계로 들어가 보자.

불교인권의 전제 불이 · 자기보존 · 자비

불교의 인권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할 개념은 불이(不二), 자기보존의 보편성, 자비다. 이 세 개념은 불교인권에 전제돼 있으면서 불교인권을 그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불이는 인권(人權)이 인권에 한정될 수 없고 모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보존의 개념은 타자보존 및 모든 존재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욕구 인정 또한 포함한다. 자비는 그 요청의 논리상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 자신에 대한 보살핌을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과 타존재에 대한 보살핌의 책임을 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 '불교인권론' 대표적

1993년 단체 및 정부 세계회의에서 달라이 라마(Dalai Lama)가 피력한 불교인권론은 인권을 보는 불교의 기본입장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인권과 관련해 '보편책임(universal responsibility)'을 피력한다. 그는 "전 지구의 인류는 한 가족처럼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서 한 국가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범지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에 의하면 보편책임은 무국경적 현실과 상호의존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달라이 라마는 '보편책임'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개념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세계의 모든 동료 인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예컨대 지구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들 모두가 그에대해 항거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학대당하는 것에 항의해야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전 인류가 우리의 형제자매이므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보편책임'을 인류생존을 위한 열쇠로서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한다. 그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은 인류 공존적 번영 없이는 확보될 수 없다고 본다.

현대 불교윤리학자 키온(Keown)은 '불교인권'을 의무에서 권리까지 확장시킨다. 그는 불교인권이 오계(pancasila)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는 계가 일종의 약속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계하는 것은 불법이 제시하는 지켜야할 의무를 형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키온은 계의 의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부연하며, 계로부터 권리의 개념을 도출한다. 예컨대 첫 번째 불살생계가 의미하는 권리는 부당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권리로, 희생자가 갖는 권리는 공격자에 대한 부정적 청원권으로써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인 것이다.

희생자는 공격자가 존중해야할 의무인 생명권을 갖듯이 의무의 성격을 지닌 계들은 각각 권리로 환원된다. 생명권뿐만 아니라 불투도계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권리(재산권), 불사음, 불음주계로부터 충실하고 신뢰의 결혼을 보장받을 권리와 개인의 안전권(사회권, 사회안전권), 불망어계로부터 거짓말 당하지 않을 권리(인간존엄)가 생겨난다.

불교인권 성립근거는 '불성'

불교인권 성립의 근거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부처 될 도덕적 가능성'과 '불성'에서 찾아진다. 이 두 개념은 외연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그 태생과 지향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평등하게 태어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천명한다.

'도덕적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절대적 신뢰를 갖는다. 짐승같은 행위를 하는 자라도 결코 짐승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도덕적 가능성으로 인해 짐승과 비교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인간 모두가 갖는 '도덕적 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의 존재인 것이다.

인권의 성립근거가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 혹은 '도덕적 능력'에 있다는 것은 인권실현의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법적, 정치적, 사회적인 강제적 구속력보다 인간의 도덕성 개발과 성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실현에 있어서 외적 강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내면화된 도덕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인권의 실현범위를 우리 자신만의 인권수호나 타자의 인권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약자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자발적 배려까지 확대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각자 고양된 내적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불교인권 원칙은 '연기' '평화'

불교인권 실현의 원칙은 연기적 원칙과 평화적 원칙이다.

'연기적 원칙'은 인권인식과 실현에 있어 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실상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적 원칙'은 세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어떠한 폭력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무한한' 비폭력의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불살생, 자비, 자애하는 덕목을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교화의 태도를 통해 나타난다. 악을 악으로서가 아니라 악 내면의 선을 봄으로서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다. 불교가 실천코자 하는 평화는 언어 ·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외적 폭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폭력상태까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 동물 · 만존재 존중

불교적 관점에서 인권은 인간존중에 국한되지 않고 만존재의 존중까지 확장된다. 연기, 공, 무아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권은 인권만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 동물존중, 만존재 존중의 개념은 모두 연기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자비의 실천을 요청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존중'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 '평등'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존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개체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심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다름의 존중으로서의 평등'은 존재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는 동체자비의 실천을 의미한다.

인권 보장 및 신장에 불교 사상 필수

인권은 법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도덕의 문제다. 인권은 실정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에는 아직 실정법화 되지 않은 수많은 인권들이 법과 도덕 사이에 잠재적 형태로 놓여있다. 도덕적 권리의 최소치로서 법적 권리를 지니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법의 현실을 넘어 도덕적 당위를 실현하는 인권 보장과 신장에는 불교사상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현재까지의 인권은 인간만을 생각하는 인간중심 경향이 짙다. 만존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권도 가능하다는 불교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이를 생태, 환경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인류가 지닌 서로에 대한 '보편책임'
불교윤리학자 키온… 오계서 출발한 의무이자 권리

대한민국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제 2 건백서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심정(心情)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계단사적(戒壇史的)에 문제가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계율맥(傳戒律脈)에 문제가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계의식(傳戒儀式)에 문제가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사의규(袈裟儀規)에 문제가 있다.

1. 따라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나라의 대표종단이라 하는 연유(緣由)가 심히 의심(疑心)되고,
2. 전통(傳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疑心)되며,
3. 정통(正統) 불교종단인지 심히 의심(疑心)되니,
4. 대한불교 조계종에 과연 정법(正法)이 존재(存在)하고 있는가?

출가자가 4바라이법(波羅夷法)의 범계를 하면,
단두죄(斷頭罪:승려자격박탈의 뜻) 구빈죄(驅擯罪) 혹은 불공주(不共住)라고 하여, 승려가 4바라이법을 지었을 경우에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불공주 즉 상가(僧伽)에 같이 살수 없는 승단에서 추방함을 말함.

大韓佛教曹溪宗에 比丘, 比丘尼가 과연 存在하는가?

大韓佛教 曹溪宗의 戒壇에 問題가 있는 것 같다.
本是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 傳戒時 各己 三衣一鉢을 受持하고 있는 "三衣一鉢이 모두 너희들 것이냐고" 正問難法에서 묻고 "저희 것입니다"라고 對答하면 正授戒體에서 羯磨를 四次에 걸쳐 阿闍梨가 그것도 屛處에서 "作白이 成立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七證師는 合掌하고 "되었습니다" 라고 確認 證明 對答하는 것이다.
그러나 大韓佛教曹溪宗 袈裟儀規에는 具足戒 受戒가 七條이고 三級僧伽考試가 九條이니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를 받고 그다음 三級을 패스해야 비로소 九條를 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式叉摩那와 比丘, 比丘尼戒 傳戒時에는 九條가 없다는 뜻 인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大韓佛教曹溪宗의 戒壇은 큰일이다. 三和尙과 七證師는 四番이나 傳戒時에 거짓말을 하고 傳戒者도 거짓말을 처음부터 한것이니 이는 式叉摩那와 比丘, 比丘尼戒를 주고 받음에 十重難法과 十六輕遮法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大韓佛教曹溪宗은 지금까지 沙彌, 沙彌尼는 存在할지언정 애초에 比丘, 比丘尼는 한 분도 없다는 뜻이니 衆生의 歸依處는 어디에 있는가?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 傳戒時 正問難法에 三衣란 安陀會(五條) 鬱多羅僧(七條) 僧伽梨(九條~二十五條) 鉢多羅(鉢盂)를 말하는 것이다. 曹溪宗 袈裟儀規에는 具足戒 受戒를 한 스님이 七條를 着하고 三級僧伽考試 패스한 스님이 九條를 着하도록 하였으니 曹溪宗의 具足戒는 儀規와 맞지 않고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 受戒는 形式도 갖추지 않은 잘못된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 受戒式이다. 따라서 大韓佛教 曹溪宗은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를 다시 傳하고 받아지녀야(受持)한다. 爲法忘軀의 마음(心)으로

가칭<한국불교정화운동본부>결성을 제안하며,

산승 석가산은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진작 시키고 난립된 종단을 통불교로 하여 화합 승가와 도제양성의 제도적 보완적 기능을 구현하고 이 나라 불교가 단일 승가의 제도권에서 공동 발전의 기틀을 이루도록 정화운동불사를 일으키고자 가칭**<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창설을 사부대중에게 제안합니다.

1. 모든 종단의 종지와 종풍은 각 종단의 소의경전에 따라 유지하되 불교의 출가 계단만은 단일계단으로 하여 조선불교 중흥율맥에 의한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 비구니(이상 출가 중) 삼귀의계. 재가오계. 보살계(이상 재가 중)를 전계하되 재가 5계 수지자도 장삼을 입히고 보살계 수지자에게도 만의(縵衣)가사를 입히도록 해야 한다.

2. 불교의 재산은 종단의 것도 아니요. 승려의 것도 아니요. 더욱이 주지의 것도 아니라, 이 나라 불교 사부대중의 청정한 삼보의 정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찰의 재산과 승려의 개인 재산도 이 나라 불교를 총칭하는 가칭<대한불교회>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3. 불교에는 본시 대처와 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구만이 있을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결혼한 승려를 불교계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를 포교비구로서 사자상승(嗣資相承)의 전통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포교비구란 명칭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불교지도자들과 함께 결정하면 될 것이다.

4. 이러한 제도적 통합승단이 확립된 이 후에는 율장에 따라 모든 승려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승려는 그 자격을 회수해야 한다.
5. 사찰의 재정 관리는 세입 세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부대중이 참여 하는 사찰 경영을 전담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전통적 승가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6. 모든 출가승은 사찰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부대중의 공동 관리에 따른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삼보 정재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면 충분할 것이다.

7. 모든 승려의 자격은 각 종단의 종단장이 추천하여 가칭<대한불교회>에서 관장해야 한다.

8. 승려의 자격과 주지 및 모든 임원은 각 종단의 종단장이 추천하되 가칭<대한불교회>에서 관장토록 해야 한다.

9. 각 종단의 모든 승려교육기관을 개방하여 각 종단의 승려가 불교의 각 교육기관의 입학 자격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대한불교 조계종의 1급 사찰은 가칭<대한불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일정한 면모를 지닌 각 종단에 고루 배치하여 각 종단과 종파의 소의경전을 연구토록 하고 수행 처로서의 그 역할이 통불교적 승가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11. 모든 승려는 직능과 기능의 소임에 따라 백장청규에 준하는 수행 정진으로 무위도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 가칭<한국불교회>는 모든 승려의 노후 복지를 위한 불교계 차원의 장단기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가칭**<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협의 제정하면 될 것이다. 위의 12개항은 산승 석가산의 제안일 뿐 다만 사부 대중의 의견을 구함이로다.

산승이 제안한 가칭**<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결성에 뜻을 가진 종단과 사부대중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무자년 11월 20일

朝鮮佛教 中興律 第八世 泰和 釋迦山 和南

가칭 **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전화 (02)720-6363 FAX (02)720-6340

불심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중생끼리 의지하면 성불 못한다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이 무량한 지혜…전법도 수행
자리이타의 바라밀 실천 없이 보리심 얻지 못해
서원 크게 세우고 매순간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 돼

법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불보살의 화현이어서 곳곳에 불법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만 중생의 눈이 어두워 밝은 자성의 빛을 볼 수 없고, 중생의 귀가 어두워 청량한 법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우주법계가 다 법석인데 굳이 설법좌를 마련하는 것은, 선지식의 법력을 통해 자성의 빛과 법의 소리를 훈습하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도량도 절대공간이 아니다. 법을 설하는 선지식의 자비와 법을 구하는 중생의 염원이 있는 곳이 도량이다. 일체제불의 원력이 한 찰나에 응결해 한 도량을 세운다. 부처님께서도 제석천의 요청에 풀 한 포기를 세우고 "이로써 도량 하나를 세웠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어느 법석이든 설법사(說法師)가 있고 청중이 있어 청정한 깨침의 인연을 맺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베푼 공덕도 무량하다. 법을 설하는 법사와 듣는 대중 그리고 법좌를 마련한 시주의 원력이 계합해 무시무종의 공덕이 된다.

비가 내리다가 홀연히 개인 아침, 가을빛 찬란한 산색(山色)이 극락세계를 그려보게 하는 11월 8일. 이날은 울산 연화사 법당에서 개원3주년 기념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덕륜 스님이 도심 포교의 원력을 바랑에 메고 찾아 와 아담한 법당을 마련하고 호계불교대학을 꾸려온 지 3년. 이날 법회는 포교 원력을 세운 덕륜 스님과 연화사 호계불교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며 불자의 길을 닦아 온 불자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자리였다.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스님과 불자들이 '이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처님과 세상을 향해 회향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회에 앞서 관세음보살님 점안의식도 봉행돼 감격과 환희심은 더욱 컸다.

"이렇게 훌륭한 원력으로 지난 3년 동안 법회와 불교대학을 잘 이끌어 오시고 오늘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점안까지 했으니, 이로써 더 이상 큰 법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법사의 법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친절하게 도량과 법석의 거룩함을 찬탄할 수 있을까? 불심 도문(佛心 道文 · 74) 대종사(大宗師)는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의 포교원력과 호계불교대학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님들의 원력이 둘이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뜻 깊은 법회를 열게 되었으니, 지금보다 더 큰 원력으로 공부와 전법 수행에 매진해 한 불자가 여섯 사람을 포교하고 25명에게 법을 전하고 33명에게 깨침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문했다.

대종사께서 법석에 오르시어 주장자를 곧바로 세우고 잠시 침묵을 하시니 법석이 숙연해졌다. 그 고요를 깨치며 대종사는 그윽한 게송을 읊고 힘찬 사자후를 토해냈다.

약수습정념(若修習正念)
명료견정각(明了見正覺)
무상무분별(無相無分別)
시명법왕자(是名法王子)

만약 바른 생각으로 닦아 익혀/ 밝게 올바른 깨달음을 요달해 보면/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어서/ 이 이름을 법왕자라 하리로다.

오늘 이 법회에 초청돼 온 이 법사는 행림(行林)보살의 찬불게를 읊는 것으로 설법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서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계 · 정 · 혜' 삼학(三學)을 근수해 '문 · 사 · 수' 삼혜(三慧)인 무량혜를 나투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혜란 무엇이냐. 우선 문혜(聞慧)이니 부처님과 제보살과 선지식의 설법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법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혜(思慧)입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생각한 바 대로 닦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니 바로, 수혜(修慧)라 합니다. 이렇게 잘 듣고 생각하고 닦으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무량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세음 보살님 점안의식을 봉행 했으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모두 무량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에게 어떻게 나투어 가피를 내리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6도응화신'으로 나투어 중생의 고통을 살피시니 그 거룩한 원력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등의 4악취와 인간 4주, 욕계 6천과 색계 7처천, 무색계 4천을 합한 25류 중생을 다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또 32가지의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보살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32응신)과 33가지의 온갖 모습으로 변화해 중생을 구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33화신)께도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대종사는 이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일일이 선창하시고 불자들에게 큰소리로 따라 호명하도록 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커다란 원력과 그 가피가 여러분들께 고르게 전해 졌으리라 믿습니다. 이 인연으로 무량 가피를 받으시어 연화사 호계불교대학과 여러 불자님들이 일익번창 하시고 세계 일류의 도량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응신이고 화신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응신이고 화신입니다. 동남 동녀도 모두 관세음보살이고 천인과 용과 야차까지도 모두 관세음보살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대상을 관세음보살로 보고 지극히 귀의하면 귀의하는 자기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니, 인응신(人應身)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32응신과 33화신이란 바로 일체의 모든 존재의 귀함을 아는 것이고 일체의 존재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념법회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과 가피의 원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 도량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생각하는 것도 수행이고 닦는 것도 수행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법당으로 안내해 공부와 인연 맺게 하는 것도 들은 법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불법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을 법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수행이란 말입니다.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 가운데 전법도 포함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하고 어떤 행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 계실 적에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이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이렇게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질문을 올리니까 보현보살이 그 200가지의 질문에 각각 10가지로 답해 무려 2000가지의 답을 말합니다. 이를 '보혜병사이백문(普慧甁斜二百問 普賢雲輿二千答)'이라 합니다. 보혜보살이 병의 물을 쏟아내듯 한꺼번에 200가지의 질문을 쏟아내니, 보현보살이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듯 한 질문에 열 가지 씩 2000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첫 질문인 열 가지의 의지처를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아라(菩提心爲依)하는 것이니 무상정등정각(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이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의 실체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극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에 의지(善知識爲依)해야 합니다. 선지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를 3종선지식이라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살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호선지식이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행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잖습니까? 절 뿐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동행선지식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수선지식인데 매순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다 교수선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선근(善根爲依)입니다. 선근이란 바른 삶의 지혜이고 근원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온갖 죄악을 차단하는 뿌리입니다. 신(身)선근과 구(口)선근, 의(意)선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고 안으로는 선근을 잘 기르고 지키는 것이 수행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라밀로써 의지를 삼으라(波羅密爲依)고 합니다. 인간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은 생사고해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사고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일체여래에 의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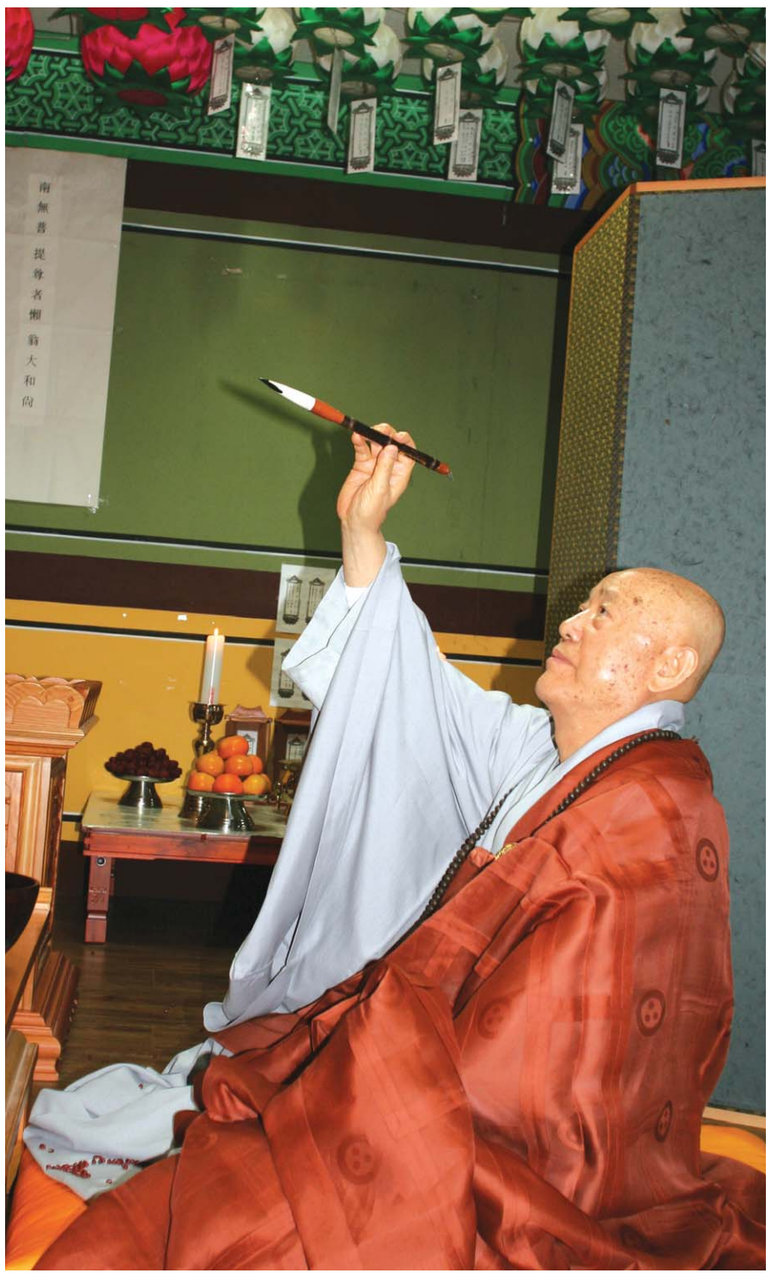
선지식을 찾아서 도문

면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르치는 덕목이 바로 십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바라밀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실천덕목이고, 방편 원력 지의 네 가지 바라밀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바라밀의 실천덕목을 지킴으로써 무상정등정각의 보리심을 지키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종사는 열 가지의 바라밀 항목을 모두 선창하고 불자들에게 큰 소리로 따라 외우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일체법으로써 의지를 삼으라(一切法爲依)고 했습니다. 세간의 '유루의 인연법' 출세간의 '무루의 근본법' 부사의(不思意)의 미묘법을 통틀어 일체법이라 합니다. 이 모든 법을 의지해 수행함으로써 구경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떠나 진리의 자리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원(大願)에 의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서원이 없이는 성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 무엇을 서원 했습니까?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 보리를 증장하는 인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행(諸行)에 의지라는 것인데, 제행이란 차별을 두지 않고 두루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제행이란, 참선으로 의단독로하고 염불로 삼매를 증득하고 간경으로 지혜를 증장하며 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불사로 복덕을 구족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체보살에 의지하라(一切菩薩爲依)는 것입니다. 중생이 중생끼리 의지하면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소견만 더 키우게 됩니다. 반드시 일체제불과 보살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의지처가 제불에 공양하는 것으로 의지처를 삼으라(諸佛供養爲依)는 것입니다. 모든 보살에게 의지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의지처를 삼으면 신심이 청정해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의 의지할 바를 잘 알아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일체여래를 의지하는 길(一切如來依)입니다. 보현보살이 열 가지 의지처를 설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열 가지의 뜻을 잘 새기시어 정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임연태 기자



울산 연화사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의 점안을 하는 도문 스님.

불심 도문 스님 백용성(白龍城) 조사의 10가지 유훈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불심 도문 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다. 19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 스님를 은사로 득도해,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주 분황사, 영주 부석사,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장수 죽림정사, 경주 천룡사지 조실이다. 국내와 인도의 부처님 성지 복원에 힘쓰고 있으며 〈불교인의 365일〉 등의 책을 펴냈다. 무엇보다 옹사(翁師)이신 용성 진종 스님의 번역본 경전과 어록 등을 140만 권이나 무주상법보시로 보급하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 조계종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받았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0〉숭산 스님의 법은사 고봉 대선사



고봉 스님(1919~1979)은 숭산 스님(1927~2004)의 은사이다. 1960년 탑골 승방에서 처음 뵙고 16년 만에 스님의 전기를 쓰다 보니 그의 역사가 더욱 소상하게 드러나게 됐다.

고봉 스님의 모습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마가 더 넓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으며,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생긴 미남 장부였다. 평상시 거의 말이 없고 글 한 쪽을 남기지 않아 스님의 역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스님은 1890년 대구에서 태어나 15세에 유교를 공부하고, 파계사 성전에 가서 도를 깨닫고 22년 정혜사 만공 스님께 가니 물었다.

"뭘 하러 왔느냐?"

"보여 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

와서는 '당나귀 값을 내 놓으라' 했다.

"이놈, 탁발은 해 오지 않고 왠 당나귀 값이냐?"

"제가 여기 있었으면 보름동안 당나귀 값만 먹었겠습니까? 쌀도 먹지 않고 용돈도 쓰지 않았으니, 어서 값이나 내 놓으세요."

하여 만공 스님은 당나귀 값을 줬다 한다.

스님은 1939년 대구 청수장으로 나와 김법린 선생과 같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잡혀 심한 고문을 당했으므로, 말년에는 중풍이 들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양산 내원사 선방에 있을 때는 혜월 스님이 논밭을 개간한다고 학승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 모두 바싹 말라 있었다. 혜월 스님이 부산에 가고 없는 틈을 타 큰 소 한 마리를 몰고 가 팔아가지

평상시 조용하고 글 한쪽 남기지 않아 행적 찾기 힘들어

고 실컷 먹고 남은 돈을 원주에게 맡겼다.

혜월 스님이 돌아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야단치자,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조실방을 기어 다니면서, '음매 음매' 하니,

혜월 스님이 "내 소는 어미 소지, 새끼소가 아니다"하고 궁둥이를 쳤다.

고봉 스님이 "새끼가 어미 되고, 어미가 새끼 됩니다"하니, 그 이후로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스님은 금강산에 탄옹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긴 장마에 식량이 떨어져 겨우 한 되 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보고 탄옹 스님이 말했다.

"우리 참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죽이나 한 그릇 쑤어먹고 내려가세."

그리하여 서로 기다리다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죽 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탄옹 스님이 "비가 그쳤네"하고 죽을 쑤어 먹은 뒤 말했다.

"자네 기다리다 꼭 죽을 뻔 하였네."

"뭐냐?"

"이것입니다."

하고 밤새도록 도반 금봉과 함께 그린 묵화를 내놓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내 대장부입니다."

"어허, 꼭지가 잘 익은 복숭아로구나. 네 이놈들, 어른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작란(作亂)을 쳐!"

"작란이 아니라 법담입니다."

"종아리 걷어라."

하고 한참을 치다가 물었다.

"아프지 않느냐?"

"시원합니다. 무심(無心)으로 맞으니 맺혔던 어혈이 풀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 법은 꾸밈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철 나려면 식량을 구해와야 하니 가서 탁발을 해오너라."

그래서 스님은 나가 보름동안 놀다가 남의 당나귀를 빌려 타고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하여 두 사람이 한 바탕 웃었다.

이렇게 한 세상을 지낸 고봉 스님은 탑골 승방에 계시다가 화계사로 옮겨 1961년 8월 19일 입멸하셨는데, 시종일관 말 한 마디 없이 가셨다. 다비 후 그 사리를 화계사 동산에 모셨는데, 대은 스님이 짓고 무애 거사가 쓴 작은 비가 세워졌다.

'단지불회 즉시견성(但知不會是卽見性).'

단지 알지 못할 것인 줄 알면 이것이 견성성불이라는 말이다.

스님의 기라성 같은 도반으로는 장수도인 혜암 스님과, 무욕의 성자 전강 스님, 원효의 후손 설석우, 생사에 자재한 운봉 스님, 대쪽 같은 효성 스님, 숨은 보살 적음 대화상, 의식 잘하는 용음 스님 등이 있었다.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이야기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신국판 464쪽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고목스님의 책들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선수행자여 아만을 없애라"

오늘의 禪語 ㊸ 간화선

'무'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등 화두 참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선 공부법을 '간화선(看話禪)' '화두선'이라고 합니다.

간화선은 1134년 경 중국 송대의 유명한 선승 대혜(大慧, 1088~1163) 선사에 의해 성립됐습니다. 그 이전엔 중국의 전통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선이 있었고 동시대에는 굉지정각 선사(1091~1157)가 만든 묵조선이 있었습니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주시하다' '참구하다'는 뜻이고, '화(話)'는 '화두(話頭)'를 가리킵니다. 즉 '화두를 참구한다(看話)'는 뜻입니다. '참구한다'는 말은 '탐구한다'는 뜻인데 요즘처럼 분석, 분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무분별 즉 직관적인 방법으로 참구하는 것입니다.

간화선의 대표자 대혜 선사는 자신의 저서 <서장>에서 "일체의 사량 분별심과 차별심을 버리고 오로지 그곳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있다 없다'는 '상대적인 무'로 생각하거나 '참으로 없는 무'로 생각하거나 '현묘한 이치나 심오한 도리가 들어 있는 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추측하거나 천착하지도 말고, 일체의 언어문자나 사량 분별심을 버리고 오로지 무자만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두를 통해 분별 망상을 버리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 즉 본래 청정한 마음(불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화선에서 참구하는 대표적인 화두는 '무자화두' 외에도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동산수상행' '일구흘진 서강수' 등 7~8종이 있습니다.

간화선은 대혜종고 선사에 의해서 완성됐지만 처음 화두를 개발한 분은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 선사입니다. 오조법연 선사는 처음으로 조주 선사(778~897)와 어느 신참승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는 공안에서 조주 선사의 답어인 '무' 한 글자를 뽑아서 제자들에게 참구 과제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손제자인 대혜종고에 이르러 체계화된 것입니다.

간화선의 성립 배경은 선의 세계를 선시나 게송 등 문학적 수사로 표현, 설명하는 문자선(文字禪)과 공안선의 폐단, 묵조선이 지나치게 '무심(無心)' '무사(無事)'로 흐른 나머지 무사안일에 빠진 데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송나라가 여진족(금나라)의 공격으로 국가존망 위기의 상황에서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국가가 피폐해 무력해진 상황에서 침묵하는 무사안일한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식, 시대의식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화선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선법인 문자선과 공안선, 묵조선 등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론 좀 일방적인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행방법을 확립시키고자 하다 보니 비판 일변도로 가게 됐는데, 그 결과 과거 조사선 시대의 여유 넘치는 선의 생활과 문화, 파격적이며 재치 있는 선문답으로 참선자들의 닫힌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풍요로운 선의 정신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무분별 직관적인 방법으로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
화두로 분별 망상 버리고 본래 청정한 불성 깨달아야

간화선 역시 천여 년이 흐르자 오늘날에는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서 좀 변질돼 깨달음의 정의와 수행법 등을 무시한 채 정신적 영적체험을 추구한다든가 신통술 등 신체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도교적인 색채로서 선에서 말하는 수행도 깨달음도 아닙니다.

근래에는 일부 수행자 사이에서 '오매일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 "실제 깊은 잠 속(숙면)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잠이 꽉 들어서도 화두공부가 돼야 한다(오매일여)"는 말로 이해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 난센스입니다.

'오매일여'란 오매불망과 같은 뜻으로서 '자나 깨나 오로지 일심으로 화두를 참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음 상태를 오매일여가 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일심으로 참구하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두 참구하는 이들의 단점은 대부분 아만이 많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화두 외에는 모두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기 주장 외의 타인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전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중도와 무집착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정반대로 아만과 자존심, 고집,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닐 것입니다. 아만을 없애는 것이 선수행의 급선무입니다.

간화선은 중국에서 생긴지 약 60~70년 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선수행의 중요한 방법으로 도입했는데, 진각·나옹·태고·서산·경허·한암 등 선승들이 계승·발전시켰습니다. 간화선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참회·계행 없는 염불수행은 사상누각"

㊸ 독고황후

수나라 최초 황후, 염불정진으로 정토종 확산 공헌
육바라밀 공덕 지어 중생제도하는 것이 대승보살도

문헌황후 독고씨(文獻皇后 獨孤氏, 543~ 602)는 중국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황후로서 '독고황후'로 잘 알려져 있다. 수나라 최초의 황후인 그녀는 수문제 양견의 정실부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독고가라(獨孤伽羅)이다.

황후는 황실에서 정토염불을 닦은 신심깊은 우바이로서, 인도 위제(희) 부인에게 비견되는 인물이다. 마갈타국 빈비사라왕의 황후이며 아사세왕의 어머니인 위제희 부인의 청(請)으로 부처님께서 <불설관무량수경>을 설하셨듯이, 독고황후의 염불수행으로 중국에서 정토종이 널리 퍼지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연종집요>에 따르면, 독고황후는 궁중에 있으면서 대승(大乘)을 존경하고 사모해 항상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염불할 때는 반드시 먼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수향(沈水香)을 씹어서 입을 깨끗이 했다고 전한다. 황후는 인수(仁壽) 2년 8월 갑자일에 영안궁(永安宮)에서 운명했는데, 지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고 천악(天樂)이 하늘에서 떨쳐 울렸다.

수문제가 사제사나(闍提斯那) 스님에게 "무슨 길한 조짐이냐?"고 물었더니, 사제사나 스님은 "정토에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황후가 정토에 왕생하셨으므로 이런 길조가 있사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황후의 신분으로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도 염불할 때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향을 사르며 정성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한 것이다. 하늘음악이 들려오고 천상의 향내음이 진동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남모르게 일념으로 정진했음을 알 수 있다.

<연종집요>의 편찬자는 '찬(贊)'을 통해 "궁중의 '부귀와 총애(貴寵)'를 버리고 정토를 바래 왕생한 이로서, 예전에는 위제(韋提)가 있었고 지금은 이 분을 보겠다"고 찬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사에서 '중국의 위제희 부인'으로 칭송받는 독고황후는 중국사에서는 '질투의 화신'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서위의 선비족 대장군 독고신의 7녀로 태어난 독고가라는 14세 때에 대사공 양충의 자제 양견과 가례를 올렸다. 그녀는 이 때 양견에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자신 이외의 어떠한 여인에게서도 자식을 보지 말라'는 약속을 내걸었다.

581년, 양견이 외손자 정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려 하자, 독고가라는 그에게 "거사는 돌이킬 수 없으니 어서 결행하라" 일렀다. 이에 양견이 결단을 내리고 나라를 세우니 이 나라가 바로 수나라이다.

독고가라는 황후가 돼 양견을 옆에서 보좌했으며, 평소 금욕적인 성격과 가례 때 맺은 약속 때문에 양견과 후궁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 심지어는 양견이 총애하던 궁녀 위지녀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양견에게 바치자, 양견이 진노해 궁궐을 나갔다고 한다. 602년 8월, 독고황후가 향년 60세로 영안궁에서 한질로 병사한 후에야 수문제가 비로소 거리낌없이 비빈(妃嬪)들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니, 당시 황실의 법도와는 맞지 않게 황제에게도 금욕을 강요한 셈이다.

이처럼 질투심이 대단한 그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존경받는 황후였다 한다. 또한 자신의 장남 양용이 행실에 문제가 있자, 양견에게 건의해 폐출시키고, 그 자리에 차남 양광을 세웠다.

황후는 말년에 자신의 질투심과 그로 인한 악행을 참회하고 오로지 염불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참회와 계행이 없는 염불수행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나 밑빠진 항아리에 물붙기와 다름 없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수경>에서 위제희 부인에게 '불국토에 가서 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며 이렇게 설하셨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손히 섬기며, 자비심으로 산 것을 죽이지 않고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 둘째, 삼보에 귀의하고 여러 도덕 규범을 지키며 위의(威儀)를 범하지 말 것이니라. 셋째,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남에게도 이 길을 권해야 한다. 이를 청정한 업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청정자성은 본래 선악을 초월한 자리이지만, 선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공덕을 지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사띠파타나 위빠사나 집중수행**=연방죽선원은 12월 1~10일 용인 행복선원에서 사띠파타나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지도법사 법주 스님이 매일 인터뷰와 담마토크를 진행하고 동참금은 자율보시다. 출퇴근 수행이 가능하며 참여일은 본인 자유. (031) 286-0265

●**아비담마 특강 법회**=수행공동체 떠따와나는 12월 12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8시 서울 상도선원에서 아비담마 특강 법회를 개최한다. 일묵 스님은 아비담마 개론, 인식과정, 마음과 마음부수(心附隨), 물질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일반 8만원, 학생 5만원. (02)815-0198

●**불교서울전문강당 수강생 모집**=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학장 청화 스님)이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09년 3월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2년 간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 진행된다. 조계종 소속 스님 60명과 재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초발심자경문> <서장> <법화경> 등 전통 강원 교과목을 강의한다. 입학원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조계종 교육원으로 11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2011-180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왜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효사육임산책」(휴대용)·「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 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되는, 고복자 효사만의 적중도와 효과성을 제고시킨 쉬운(易) 활용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일 제 1면
一. 시보(時報) : 매일 매시간들 마다에 아래 8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왜 왔는가? 왜 전화했는가? 무슨 일인가? 2. 바깥 일인가? 집안 일인가? 3.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4. 어떤 사정이 있는가? 5. 후퇴할 일인가? 전진해야 할 일인가? 6. 될까? 안될까?
7. 오늘 어떤 좋은 날인가? 어떤 나쁜 날인가? 8. 오늘 몇시가 어떤 좋은 시간인가? 어떤 나쁜 시간인가?

각일 제 2면
二. 내정(來情)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15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의 현재 전체적 사정은 어떠한가?
2. 이 사람의 세부적인 여러 사정은 무엇 무엇이 또 있는가?
3. 지금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박두해 있는가?
4. 이 사람의 현재 가정사정은 무엇인가?
5. 이 사람과 관계된 상대의 실력은 이득·피해·손해·무력인 중 어느 것인가?
6. 이 사람은 부자인가? 귀인인가? 빈한자인가? 천한자인가?
7. 이 사람이 유리한가? 이 사람의 상대가 유리한가? 모두 좋은가?
8.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인가? 이 사람의 상대한테 당한 일인가?
9.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인가?
10. 이 사람의 윗사람이 유리한가? 아랫사람이 유리한가? 여자쪽이 유리한가? 남자쪽이 유리한가?
11. 새로운 일인가? 오래된 일인가? 반복되는 일인가?
12. 드러내도 좋은 일인가? 감추고 싶은 일인가?
13. 이 사람의 정황을 요약해 말하자면 어떤 것인가?
14. 이 사람이 시험·선거·관공직사에 대해 묻는다면 될까? 안될까?

각일 제 3면
三. 형이상(形而上)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6개 큰 항목과 15개 작은 항목마다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일이 꼬이고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2.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병이 생겼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3. 이 사람에게 무슨 부정빌미(邪祟)가 들어 우환이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4.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산소탈은?
가. 산소탈 해당 육친(肉親)은? 나. 산소탈 해당 묘지 주산(主山)·좌향(坐向)은? 다. 산소탈 이유는?
라. 산소탈 묘지 물형좌(物形座)는? 마. 산소탈 해당 묘지 앞 경관(京觀)은? 바. 산소탈 해당 묘지 속 상태는?
사. 산소탈 침범 재해(災害)는? 아. 해소 시킬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쓸것인가?
누가 수법(修法)을 해야 효과가 있는가?
자. 수법 택일을 당장 해야 좋은가? 아니면, 며칠 후 언제로 택일할 것인가?
5. 이 사람의 흉세(凶勢)는 언제 끝나는가?(기도 일수를 어느 시기로 맞춰야 효과적인가?)
6. 이 사람의 모망사(계획)가 되는 日·月·年은 언제인가?

각일 제 4면
四. 사과삼전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초사(初辭 : ㉮"효사요결」 ㉯"직지요결」을 담고, 사정·형편·전개 길흉을 다음 "예」와 같이 적시해놓았습니다.
1. 예문(例文) : 庚寅日 第四局
가. "가장은 집을 걸돌고 집은 옮겨야 겠고 소송사는 벌어지고…
낮 - 전사귀, 밤 - 변사귀 침범 때문이네? 지금 시작하는 신규사까지 방해 받고있겠어!"
나. "내가 상대에게 구하니 예를 다하여야 한다. 누가 재앙을 일시 풀어준다해도 도리어 나중에 재앙의 씨앗이다"
2. 내외(內外) 어느 쪽에서 발단된 일인가? 3. 내방 조짐은 어떠한가?
4. 길방(吉方)은 어디인가? 5. 택일(擇日)은 몇 일로 할 것인가?

각일 제 5면
五. 천강법(天罡法) : 매일 각 시간마다 아래 3개 항목에 대한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계획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2. 이 사람의 천성이 선(善)한가? 악(惡)한가? 보통(普通)인가?
3. 승부·쟁패·상담·담판 등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 앉아야 하는가?(장(長)시간일 경우와 단(短)시간일 경우로 구분했음)

각일 제 6면
六. 천지반(天地盤) : 「띠」를 알고 판단하는 법칙을 적용, 각 「띠」마다 해당 답(答)을 아래와 같이 11가지로 나누어 달았습니다.
1. 부정침범자 2. 관재자 여부 3. 질병자 여부 4. 곤궁자 여부
5. 불성산기(종교·신명·복명등)자 여부 6. 운명전도자 여부 7. 직녹길사자
8. 승진이동자 9. 귀인발현자 10. 본인재액자 여부 11. 친족재액자 여부

각일 제7·8면
七. 성부단정(成否斷定) : 여기에서는 -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이 묻는 항목에 대한 답(答)을 아래 23개 항목으로 정(定)해 모두 그 성부 여부를 달아 놓았습니다.
1.모망사 2.공명사 3.구재사 4.구직사 5.시험사 6.결혼사 7.임신사 8.가정사
9.이동사 10.소송사 11.질병사 12.매매사 13.출행사 14.도난사 15.가출사 16.대인사
17.면접사 18.채용사 19.투자사 20.승부사 21.가격사 22.묘지사 23.기후사

각일 제9~20면
八. 1년신수(一年身數) : 매년 각 월의 내외 길흉사를 해당 국수별로 크게 보정시켜 적시해 놓았습니다.

각일 통 합 면
九. 육임임상활용신살표 : 우리 활인천역자가 요긴하게 쓰게 되는 신살을 모아 한눈으로 적시했습니다.
十. 효사육임사주감정법 활용편 : 사주(四柱) 뽑고 대운(大運) 적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주(日柱)만 알면 명(命)·운(運)·병(病)·육친(六親)의 변수까지 모두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둔 육임사주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十一. 출생일주(日柱)육임궁합법 : 일주(日柱)에 의한 평생 배우자 복분·폐해를 즉시적으로 판단해 내는 육임비법이 활용 양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十二. 부록이 따라갑니다 : 본 활용서는 고도의 육임비법을 항목마다 적용해 놓았으므로 쉽고도 예리하여 정곡을 찔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사족(蛇足)일 망정 각 항목별 부연설명을 해놓았으므로 이를 학습하면 판단의 효과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十三. 설명 CD가 따라갑니다 : 다시 위 각 면의 항목 비술들에 대한 설명을 부록과 함께 「고복자 효사」 저자께서 해주셨습니다. 2시간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모두는 가장 어렵다는 육임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활인천역의 소질이 있고 굳은 신념만 있다면 누구든 즉시적으로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된 비서(秘書)이고, 저자가 7년간에 걸쳐 빼고 보태고 갈고 닦아 최후로 완성시킨 신력서(神力書)입니다. 단, 가격이 비싼게 흠이긴 하나 효과성에 비하면 매우 싼 값 임을 주지해 드립니다.

한 국 육 임 학 회 www.taotemple.net 총재 고복자 효사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 임근홍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 부 산 지 회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농협 121059-56-023257 진세리)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니 :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
월암당 정대 스님 지음 | 초담 펴냄
1만5000원



정대 스님(1937~2003 · 사진)의 열반 5주기를 맞아 조계종 월암문도회가 정대 스님의 삶과 선시, 선사들의 일화를 담은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니: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를 발간했다. 월암당(月庵堂) 정대 스님은 1937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대학 졸업 후 1962년 홀연히 위봉산 위봉사로 머리를 깎고 입산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 전강 선사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며 생사를 건 수행을 한다. 1967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삼여 년 만의 정진 끝에 해탈의 자유를 터득한다. 이러한 법력으로 수승한 법문들을 남겼다. 특히 스님은 유달리 시를 좋아해 선사들의 일화와 깊이 있는 선시를 인용해 법문을 했다.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니>는 정대 스님의 법문을 깨달음 · 수행 · 회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엮고, 스님을 기억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스님과의 인연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해 살아생전 스님의 생생한 행장과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주옥같은 법문 사이사이 적절하게 드러나는 선사들의 일화 그리고 선시의 여백과 감동은 이 책을 읽는 색다른 재미를 부여한다.

스님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고, 마음의 눈을 떴을때 비로소 불성을 볼 수 있는 것이지"라며 '남김없이 베품'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했다.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해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성사시키고, 동국학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불교병원을 건립하는 등 종단 발전에 일생을 바쳤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치열한 구도를 통해 쌓은 법력을 불교계 · 사회 발전에 쏟았다.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스님의 자유자재한 삶과 행장을 보면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을 아우르는 진정한 선승의 모습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정대 스님의 가슴적시는 글이 겨울의 길목을 따뜻하게 한다.

이나은 기자

법구경-담마파다 전재성 역주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펴냄 | 5만원

시공을 뛰어넘는 가르침의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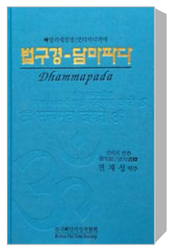
<법구경>은 부처님이 전 생애에 걸쳐 설법한 내용인 팔만대장경 가운데 핵심적인 가르침을 423개의 시로 구성한 경전이다.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다. 악을 보이면 재앙이 오나니 내 몸에 해로울 뿐이다' '분노보다 더한 독은 없다'…. 이처럼 <법구경>에 나오는 시들은 불교라는 종교적인 테두리를 넘어선 인류의 위대한 영적 양식이자 지혜를 담은 격언이다.

당나라 대시인 백거이(白居易)가 도림선사(道林禪師)를 찾아가 불교의 대의(大義)를 묻자 선사는 <법구경>의 시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 답한다. 이는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Dhp. 183)'라는 부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과 인류의 보편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다.

빨리어로 <담마빠다(Dhammapada)>, '가르침의 조각들' 또는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법구경>은 수행자는 물론, 재가자와 동 · 서양인들에게도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고전으로 꼽히는 경전이다. 100여 종의 영역과 10여 종의 독역, 10여 종의 일역, 10여 종의 한글역과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보면 <법구경>이 올바른 삶의 방향과 동시에 삼법인 · 사성제의 원형적 가르침과 불교윤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탁월한 경전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대경전은 법정 스님(조계종 원로), 서경수 교수(동국대), 거해 스님 등의 번역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일역의 중역, 또는 라다크리슈난 영역의 중역인데다 주석이 없어, 본래의 경전의 진의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초로 빠알리 원전을 번역한 <법구경-담마파다>가 출간돼 부처님 말씀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법구경-담마파다>는 단순한 빠알리 원전번역이 아니라, 스리랑카사원에서 전승되어 온 문헌적 주해를 보충해 2023개의 주석을 달았다. 철학적 주석뿐만 아니라 방대한 인연담까지 총망라해 세계 최초로 출간하는 것이다. 이번 주석에는 서양에 가장 널리 알려진 1870년에 이루어진 막스 뮐러의 영역본을 싣고, 그 가운데 번역상 문제가 있는 몇몇 시를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가 교정해 스님들이나 포교사들의 해외포교나 국내 청소년의 교육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빠알리 본과 대략 일치하는 한역 <법구경> 원문을 싣고 그 한역 대장경의 출처를 밝혀 놓아서 전통교학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역자는 "<법구경>은 불교도가 아닌 일반사람에게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교양서이고, 불교도들에게는 짧게 서술된 시들의 의미가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팔만대장경의 입문서"라며 <법구경>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비추어주는 횃불"의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공적개호보험 논의
사토미켄지 지음|흥인 스님 옮김
나눔의 집 펴냄|7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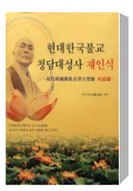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이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들이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 문제는 많은 이론과 현실적인 시행착오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전국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초창기 보험제도의 운영은 성공적일까? 아직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들은 대개 부정적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정책과 수혜자 간의 욕구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흥인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을 나와 일본불교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스님이 일본불교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토미겐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은 이 책의 원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복지정책과 복지 시스템에 어느 정도 문제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현대한국불교 청담 대성사 재인식
선묵 혜자 스님 지음 | 문예마당 펴냄
2만5000원

"이제 조락하는 석양에 나목을 벗 삼아 대화를 나누다, 채 피지 못한 한송이 연꽃을 어루만지다, 서산에 떠오를 밝은 달빛 따라 걷다가, 속연 많은 내 생애도 멀지 않아 조용히 이별을 고할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씻지 못할, 아니 없앨 수 없는 정화의 이념은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야."

입적 몇 시간 전에도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던 청담 스님을 재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현대한국불교 청담대성사 재인식>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시봉했던 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이 '청담 스님 열반 37주기'를 추모하며 펴낸 사부곡이다. 청담 스님은 성철 · 혜암 · 월산 스님 등과 함께 왜색불교 타파 등 불교정화운동에 힘쓴 현대 한국불교의 선구자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회상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청담 스님의 발원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국불교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 불교계 상황을 극복하자"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 인도불교와 석가모니 부처님, 중국불교와 당 현장 삼장 법사, 한국불교와 청담 스님 등을 조명해 한국불교에 대해 재인식해보고, 제2장에서 청담 스님의 생애와 불교사상, 감화력 등을 살펴본다. 또한 제3장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대성사'에서는 저자가 청담 스님에게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외에도 도심권의 불교세 미약, 사회 지식층 불자의 감소 등 불교와 관련된 사회전반에 대한 '현대 한국불교 재인식의 혁신론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통도사 영산전에 봉안된 팔상도, 도솔래의상, 사문유관상 등의 탱화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선문답 강화[宏智拈古]
김호귀 지음 | 석란 펴냄 | 1만3000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가운데 하나가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禪)을 붓다가 자신의 깨침을 위한 방식으로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도록 더욱더 발전을 거듭해왔다. 선의 교리뿐 아니라 수행의 테크닉에 있어서 후대에 간화선과 묵조선의 방식을 창출함으로써 깨침을 중요시 하는 선의 본래적인 특징을 심화하고 확충시켜왔다. 중국 송대에 창출된 수행방법인 묵조선은 순수한 깨침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깨침의 일상화이다. 선문답은 이러한 묵조선의 성격을 온전하게 설파하고 있는 기관(機關)이다. 여기에서 다양하게 소개하는 <선문답 강화>의 내용은 진헐청료(眞歇淸了: 1088~1151)와 더불어 묵조선의 수행과 사상을 가장 잘 현창 · 체계화시켰던 송대의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염고(拈古)>를 바탕으로 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선어록과 선문답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요약해 서술했다. 2부에서는 일찍이 보리달마로부터 수행과 깨침과 교화 및 훈계 등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법이었던 선문답 사례를 수록했다. '설봉과 원숭이(雪峰古鏡)' '조주와 부처(趙州有無)' 등 <굉지염고>의 99개 선문답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 · 풀이한다.

저자 김호귀 교수(동국대)는 저서를 통해 "자력수행을 통해 깨침을 추구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적이고 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선문답은 이를 지향하는 묵조선을 온전하게 설파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선어록은 단적으로 말하면 선자의 언행록이다. 제자에 대한 가르침과 아울러 교훈과 교화의 방식, 심지어 선자의 전기까지도 포함 돼 있다. 그러나 선어록의 전형은 뭐니 뭐니 해도 문답"이라고 강조한다.

이나은 기자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고행
일진행 지음| 운주사 펴냄|9800원

"어머니, 당신은 한국불교의 오늘입니다."

올해 나이 73세 일진행 보살의 일상과 신행을 아우르는 30년간 일기를 고백한다. 오로지 부처님을 마음에 담으려 했던 노보살의 행복 이야기가 잔잔히 흐른다.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일념 하나 때문에 설친 잠, 육신의 조복으로 흘린 땀, 뼈를 깎는 인내로 이겨온 세월이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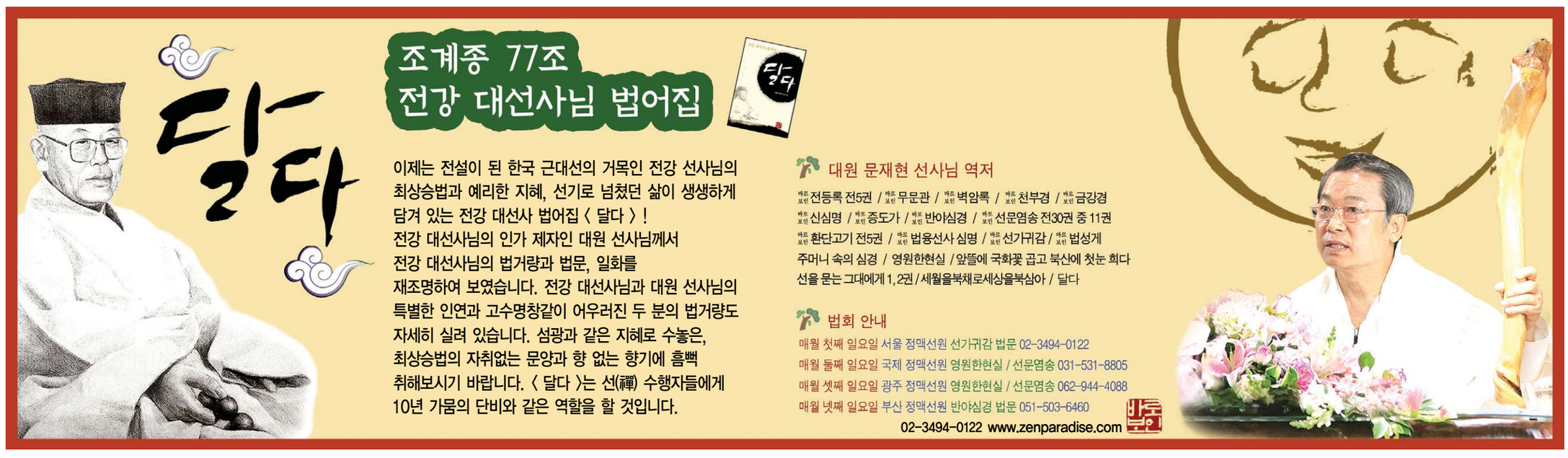
파란만장한 지난날을 돌아보니 삶의 찌꺼기들이 곱게 가라앉아 있다. 마지막 그날까지 부지런히 정진하겠노라는 보살의 서원이 간절하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얀연꽃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9	그것만 내려 놓으라	지명	조계종출판사
10	인과경	현담	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한국불교불광종 입 종 안 내

종단이나 역학협회 전통민속협회 기타 소속없는 분 전종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 하신분 신규 입종을 원하시는분 타종단으로부터 받은 승람 도첩 구족계 대덕 종사 법계는 본 종단 법계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수계 도첩 구족계 승려 사찰등록증 발급

행자모집

각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 예비승 철학사 보살 법사 수행인을 위한 책

상단불공법	신장불공법	지장불공법
용왕불공법	구병시식법	조상천도법
칠성불공법	각단예불법	불명짓는법
산신불공법	법문하는법	불상점안법

책마다 순서대로 천수경 정삼업진언 거불 불공 축원까지 각 단권 맞춤형보시

사물다루는법 각종제반 의식수강생 모집

한중불교주역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역학교수초빙
국제역술인협회 · 천운전통민속협회 회원모집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번지
TEL 053)561-4440,567-2220,011-9422-1885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대우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대우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daewoosuperenertec.com

115회 3000배 용맹정진

염불 삼매 체험의 지혜로
확실한 소원성취 비법 특별 공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1월 29일(토) 저녁 9시 ~
2008년 11월 30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결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동구 이매동 60-1번지
분당선 이매역 1분 출구 앞 SK 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서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제 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 (3개월)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 (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 수 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 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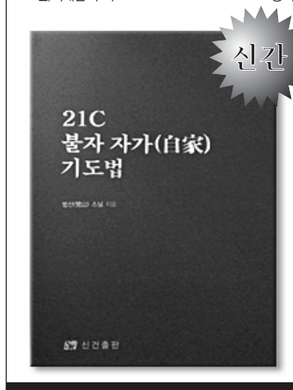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성영록 개인展, 서울 종로 갤러리 현

‘꽃이 시들기 전 그 모습을 어찌 바라보나요?’

고요하고 잔잔한 물결 위에 밝은 빛을 내는 금과 은분으로 수놓은 성영록 작가의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展이 12월 1~31일 서울 종로 갤러리 현에서 선보인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다양한 화면경영으로 나타나 감상자의 미적 감성을 자극한다.

헤어짐의 아쉬움에 대해 “시간이 흐른 후 너와 닮은 새로운 꽃을 사다 다시 이곳에 두겠노라고 그땐 아마도 너를 충분히 잊고 난 후 새로운 누군가에게 조금의 마음을 여는 순간이 아닐까”라며 읊조린다. 해저물녘 먹비로 가득했던 모우(暮雨)와 잔잔하고 푸른 물결 위에서 흩날리듯 서성이는 화가는 설레임과 이별을 화폭에 공존하며 기억의 여운으로 담아낸다. (02)722-0701

가연숙 기자



김양수 作 ‘바람도 다녀가는 이 고요’



갤러리 이즈에서 만난 화가 김양수

우리 서로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백 화선지 위로 먹의 여백이 스민다.

바람을 닮은 화가 김양수는 ‘풀숲이 나를 응시한다. 내가 풀숲을 응시한다. 우리 서로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오랜만에 대중 앞에 다가섰다. 11월 19~25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15번째 개인전을 연 김 화백은 ‘숲’을 소재로 7여 년 동안 담백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 속 단상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김 화백은 고흐처럼 해바라기를 그릴 수 없다. 태양이 아닌 달의 천성을 지닌 이유다. 달밤에 세상을 관조하는 평안한 휴식이 그의 그림에 담겨있다”며 그의 그림세계를 칭송했다. 영화배우 강수연은 “그의 글과 그림이 뭔가 그립고 외롭다는 단어를 연상하게 만든다”며 “그의 그림을 통해 아름다운 영화의 상상력을 제공 받는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극단적인 생각, 팽배한 도전이 펼쳐지는 경쟁의 현실 속에서 고요한 달의 정서를 너그러이 선물하고 있었다.

실제 그의 그림은 인공조명이 아닌 촛불을 배경으로 깊어지는 생각을 음미하며 즐기기에 좋은 배경이 된다. 달빛 아래서 바라본 운치 있는 세상이 더욱 평온한 것처럼 그의 그림 속 관조하는 일상 풍경들은 문득문득 심상이 됐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잠자리, 고양이, 물고기들이 작가 자신과 지극히 닮았다고 여겨졌다.

작품 ‘바람도 다녀가는 이 고요’를 바라보노라면 그가 그림에 담고자 했던 고요한 바람이 자화상으로 비춰진다. 늘 가까이서 숲을 바라보며 언 땅을 뚫고 나온 새싹, 정열적인 여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을 속에서 경외감과 넉넉함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김양수 화백. 시기 질투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에서 여느 인간과 차별된 그 무엇을 느낀다고 전한다. ‘숲’은 그에게 ‘깨어있음’인 것이다. 마음이 들떠있는 세상에서 그의 그림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잔잔한 물결처럼 초연하다. 그의 말마따나 내면의 세계로 천착해 들어가 곰삭혀 묶은 맛을 미술로 구현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그로 하여금 붓끝에서 자유롭게 하는 듯했다.

일휴 김양수 화백은 경기도 안성 동막골 적염산방(寂拈山房)에서 생의 고요를 서정적인 그림에 담아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는 이름의 책도 펴냈다. 그의 시 가운데 ‘외로움’을 보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다. 내가 저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함은 저 길을 따라 걸어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음이다. 가지 위에 참새 한 마리 머물다 간다’며 자연과 가장 닮은 모습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허히 돌이킨다. 53점의 그림과 함께 실린 105편의 글은 문득 바라본 가을 하늘, 가슴 시리도록 푸른 마음을 선사한다. 바움 펴냄 | 1만5000원 (031)674-1357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유심(惟心)’ 격월간 발행

내년 1월부터, 신인등용제 변경도



만해 스님이 1918년 창간했다가 2001년 8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복간된 계간 문예지 <유심>이 2009년 1월부터 격월간으로 거듭난다.

<유심>은 2008년 겨울호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매 홀수 달에 발행 한다”고 밝혔다. <유심>은 발행주기의 변경과 함께 신인등용제도도 개편했다. 기존의 ‘유심신인문학상’과 ‘유심시조백일장’을 ‘신인작품추천제도’로 통폐합 한 것. 신인작품추천제도는 연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을 열고 시(5편 이상)와 시조(5편 이상), 평론(1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신인 작품을 공모해 추천하는 제도다.

매년 훌륭한 작품을 발표해 온 문학인을 선정해 상찬해 온 ‘유심작품상’은 그대로 운영된다. <유심>은 문학 독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www.yousim.co.kr)를 통해 수록 작품을 무료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유심> 2008년 겨울호는 김교한 시조시인과 임연태 시인(본지 편집부국장)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특집과 이근배 김종해 송준영 시인의 ‘시집 깊이 읽기’ 등을 실었다. (02)739-5781

가연숙 기자

‘Nature+Dream+Eternity’ 展

한전프라자갤러리 11월 30일까지

캔버스 위에 아크릴을 칠하고 갈아 문지른다.

생동하는 고운 질감이 연두 빛에 너울져 분홍 빛 깔 연꽃이 바람에 초연하다. 연꽃을 통해 정갈한 인간의 마음을 구도해 온 김호연 교수(홍익대 미술대학)는 11월 22~30일까지 서울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Nature+Dream+Eternity’展을 통해 연꽃과 모란이 선사하는 ‘자연+꿈+영원’을 이야기 한다.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작가의 유희가 푸르른 허공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 가운데서 노니는 물고기는 경쾌한 해학과 익살을 물씬 전한다. 작가의 자연에 대한 모색은 영역과 소재의 다양성을 넘나드는 자전적이고 소박한 발원이다. (02)2105-8190

가연숙 기자

한글만다라 치유명상展

법련사서 12월 5~11일

한글에 담긴 본성이 만다라로 구현된다.

구선 스님은 12월 5~11일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에서 ‘12연기만다라 · 한글자음 만다라’展을 연다. 생명성이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한 한글 자음, 다른 생명과 교류하는 수단인 한글 모음이 어울려 우주 법계를 형상화한 만다라로 태어난다.

“본성에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니 ‘ㄱ’이로다. 이로 인해 천지만물이 생겨나니 원 · 방 · 각이요 천지인(天地人)이로다. 밝은 성품이 서로 부딪쳐 음양이기가 생겨나니 ‘ㄴ’이로다. 이로 인해 하늘생명 · 땅생명 · 인간생명이 생겨나고, 여섯 개의 유상의식이 갖춰지느니라.”

한글 자음 원리를 활용해 개개인이 지닌 생명성을 증장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선 스님은 “감성, 지성,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한글 만다라가 지향하는 바라고 전한다.

문자의 근본인 언어, 생명은 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사상과 의식을 표현하고 교류한다. 스님이 직접 제작한 진본만다라 가운데 ‘12연기만다라’는 최초 생명의 시발인 무명으로부터 우주의 생성원리를 12단계로 나눈다. ‘한글자음만다라’는 12연기 과정 중 행(行)의 원리로서 수행의 방편이다. 스님이 구현한 한글 만다라 법계도는 생멸문(生滅門)의 세간인에게 진여문(眞如門)으로 향하는 한 장의 지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觀 한글 자음 원리> 출판 기념회와 공개강좌도 함께 진행된다. (070)8104-8145

가연숙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2월 2일 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자기 최면 특별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대상 : 유마 최면 연구소 평생회원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읍 칠보암 수련관

자기 최면 완성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고종 곁 지킨 엄 귀비 여성 교육 뜻 품은 선각자

⑥1 고종 후궁 엄귀비 – 영휘원
영친왕 장남 이진 – 숭인원

엄귀비 1854~1911(58세)
이진 1921.8.18~1922.5.11(1세)

1896년 2월 11일 새벽. 천지는 적막하나 치렁치렁한 용포를 입은 임금은 두려움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랫배에는 비통함이 자욱하다.

"전하, 안심하시오소서. 잠시만 고통을 참으시오면 금방 노서아공관에 당도하옵니다. 심지를 굳게 하시오소서. 소인이 목숨을 바쳐 모시겠사옵니다. 모든 절차는 빈틈없이 준비했사옵니다. 어서 가마에 오르시오소서."

차마 가마에 선뜻 오르지 못하는 고종 곁에서 몸집이 크고 당차게 생긴 여인이 주먹을 쥐고 허리를 굽혀 왕을 안심시킨다. 엄 상궁이다. 이국 병사들에 둘러싸여 고종은 잠시 궁궐을 바라본다. 캄캄한 밤중이라 건물의 윤곽조차 어둠에 묻혀 있다. 구중궁궐을 버리고 남의 집 곁방살이 하러 떠나는 비통한 심정을 아는 지 달마저 검은 구름 속에 숨었다. 대장부 같은 여인의 결의에 겨우 힘을 얻은 고종은 허리를 숙여 천천히 가마에 오른다. 생전 타본 적 없는 작은 가마다.


옛 러시아 공관의 비밀통로.

거사에는 러시아 장교 5명, 카자크인 4명, 수병 135명이 참여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이국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가 서서히 움직였다. 경복궁에서 정동까지 거리가 북극에서 남극까지만큼 멀게 느껴졌다. 자칫 일본군에게 발각되면 시가전이 벌어질 판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국왕은 피투성이가 돼 죽음을 맞을 수밖에. 러시아 공사관은 방어를 위해 대포도 동원했다. 여자의 가마는 건드리지 않는 조선의 관습을 이용, 궁녀의 가마에 고종을 태워 파천에 성공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조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고종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당시 고종은 조선의 내정을 장악한 일본인들이 음식에 독약을 넣어 올릴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미국 공사관이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든 밀폐된 음식만 먹었다. 조선은 이렇게 국왕의 안전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다.

19세기말 외국 공사관들이 몰려 있어 공사관 거리라고 불렸던 정동. 이곳은 당시 정치 외교의 중심지였다. 정동에는 눈에 띄는 이국적인 건물이 하나 있다.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관 건물 흔적이다. 러시아 공사관의 본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건물의 중심이었던 전망탑만 남아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에 의해 르네상스풍으로 설계된 조선시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이곳은 명성황후 시해 후 고종이 일본의 압력을 피해 1년 동안 피신해 있던 곳이다. 우리에게는 아관파천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건물 주변에는 러시아 공사관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건물 주춧돌이다. 주춧돌의 흔적으로만 봐도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규모가 상대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동의 넓은 언덕바지에 지어진 러시아 공사관의 전체 면적은 무려 6800평에 달했다고 한다. 한옥을 개조해 쓰던 다른 공사관과 달리 유럽풍의 이층 건물로 화려하게 지었다. 1884년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급속도로 조선과 가까워졌던 러시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해 줄 유일한 나라였다.

러시아 공사관 뒤쪽에 예사롭지 않은 통로가 하나 있다. 높이 1.5m, 넓이는 1m, 통로 길이는 50m 정도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 대사관 건물 아래로 통하게 돼 있다. 시멘트로 덧씌워졌지만 원래는 벽돌을 쌓아 올린 이 통로는 무슨 용도일까? 바로 러시아 대사관과 외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다. 비밀 통로가 설치돼 있는 러시아 공사관. 왕비가 살해되고 일본의 위협으로 고종의 신변마저 불안했을 정도로 조선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다. 일국의 제왕이 개구멍 같은 이 비밀통로를 통해 피신해야 했다. 힘 없는 나라 왕이 감수해야했던 비극의 현장이다.

아관파천은 비록 러시아의 힘을 빌렸지만, 일본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 기사회생한 조치였다.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다.

순헌황귀비 엄씨는 1854년(철종 5년) 부친 엄진삼의 장녀로 태어났고, 8세 되던 해에 입궁해 명성왕후 민씨의 시위 상궁이 됐다. 이것이 인연이 돼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된 엄씨는 민씨에 의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을미사변으로 민씨가 시해당한 5일 만에 고종의 명으로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됐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이범진 등 친러파의 권유를 받아들여 러시아 공관으로 1896년 2월 11일 피신했으니,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이 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의 수라를 맡아 들어간 여인이 바로 엄씨였다.

당시 고종의 계비로 정화당 김씨가 초간택된 상황이었으나 민씨 시해사건의 주범이 점차 일본으로 밝혀지면서 국혼이 계속 연기되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 빈 공간을 엄씨가 맡은 것이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과 함께 지내던 엄씨는 1년 후 독립협회의 주장에 따라 고종이 환궁(1897년 2월 20일)함에 따라 대궐로 돌아왔다.

엄씨는 이 해(1897) 10월 아들 은(慇)을 낳아 고종에게 선영(善英)이란 이름을 하사 받고 귀인으로 책봉됐다. 그리고 3년 후인 1900년 8월, 아들이 영왕으로 봉해지자 순빈으로 책봉됐다가 다음해 10월 빈에서 비로 봉해졌으며 경선궁(慶善宮)이란 궁호를 받았다. 엄씨는 빈에서 비로 승격됨에 따라 사실상 고종의 계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고종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는 엄씨의 아들 영왕이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다. 영친왕으로 알려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가 바로 그다. 엄귀비 또한 황귀비로 책봉됐다.

엄씨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조선의 그 어느 왕비보다 여성 교육에 뜻이 많았던 선각자이기도 했다. 엄씨는 1906년에 진명여학교를 세웠으며, 명신여학교(현재 숙명여자대학교)를 만들 때 거액을 내놓아 사실상 이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양정학교 설립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엄씨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영향력을 발전적인 면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1911년 7월에 죽었다. 같은 해 8월에 안장하고 원호(園號)를 영휘라고 했다. 사실상 고종의 계비였으나 혼례를 올리지 못해 황후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능호도 얻지 못했다. 위패는 덕수궁 영복당(永福堂)에 봉안됐다가 경복궁 서북측에 있는 칠궁(七宮)으로 이안(移安)됐다.

핏덩이 이진의 죽음

할머니 곁 숭인원에는 이승에서 첫돌도 맞이하지 못한 어린 주검이 잠들고 있다. 일제는 고종의 넷째 아들 영친왕을 약혼녀 민갑완과 강제로 파혼시키고 일본 왕실의 나시모토 마사코(이방자)와 1920년 정략결혼시켰다. 황실의 후손을 끊으려는 일제는 일본 어의에게 불임녀라는 판정을 받은 마사코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1921년 8월 18일 그들 사이에서 아들 진(晉)이 태어났다.

1922년 4월 26일,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생후 8개월 된 황손 진을 순종에게 보일 겸 일본에서 귀국했다. 영친왕은 볼모로 일본에 끌려가서 어머니 엄귀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후 11년만이다. 이들 부부는 5월 12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11일, 어린 아기 진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갑자기 죽었다. 아기의 입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해 독살일 거라 했지만, 공식발표는 배앓이로 죽었다는 것이다.

순종은 이를 애석히 여겨 왕자 책봉을 받지 않은 아기지만 왕실의 전통을 깨고 특별히 왕자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게 했다. 어린 주검은 아관파천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용감한 친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할머니 곁에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고종의 후비 순헌귀비 엄씨의 묘소 영휘원(위)과 엄씨의 친손자이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이진의 원소 숭인원.

영휘원(永徽園)과 숭인원(崇仁園)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조선 제26대왕 고종의 후비 순헌귀비 엄씨(純獻貴妃嚴氏)의 묘소. 사적 제361호. 면적 5만5015㎡. 한 묘역 안에 영휘원과 숭인원이 있다.

이곳에는 원래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의 능인 홍릉이 있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천장됐다. 이런 연유로 이곳은 지금도 '홍릉'이라 불리고 있다.

숭인원은 영친왕과 이방자(李方子) 사이에서 태어난 진(晋)의 원소이다. 진은 1921년 8월에 태어나 그 이듬해 5월에 죽었다.

담장 밖 북쪽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관이 있으며, 구영릉(舊英陵,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에서 수습해온 신도비와 능호석(陵護石) 등이 전시돼 있다.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완전 수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전법사
02)985-1360 / 010-9964-2550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상황적 발표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맞춤식 개인지도, 비디오 촬영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1인 개인지도 – 8과정 : 100만원
* 2인 개인지도 – 8과정 : 60만원
* 3인 개인지도 – 8과정 : 40만원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사 주 공 간
日悟스님 전화상담
•사주란 하늘문서인데 그속의 비밀은...
•역학 개인지도
•신생아 작명
010-7171-2202
농협 : 201153-53-076834 장순원

퇴마 심령 기(氣)치료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북한, 조선족여성보호센터
㊊ 어려움에 처한 북한, 조선족 여성 보살펴 드립니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수강생모집)
(빙의, 퇴마, 악령퇴치, 영적신병, 전생...)
1:1 책임지도, 종교인 특별기법전수
인터넷 네이버:울산 최면 클릭
(울산)
010-9932-7656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숙식가능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8세~65세사이 종무보실 사무실 보살님도 구합니다
(유경험자, 숙식가능자)
052)298-9911

영어 배우면서 주지소임 사실분
(필리핀) 비구니스님
조계종
016-428-6665

사찰운영(동참) 하실분 모심
1. 위치: 경주
2. 규모: 사찰건평 350평
3. 신도: 약 2000명
4. 약간의 재력이 있는 처사, 보살, 대 환영
010-7249-0377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참선기도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단 몇분만 모시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암자
054)777-2796
011-876-50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664

행자스님, 공양주, 사무장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경북지역 천년 고찰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204-0040

비구니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향림사
053)854-21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안양
011-241-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
▷김해
010-6473-3347
011-9372-812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신암동 독불사>
053)952-4720
010-5555-4720

불사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543-458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을 모십니다
(1종 면허소지)
055)863-4143
011-392-6885

비구니 부전스님 서울마포 조계종 포교당에서 가족같이 오래오래 계실분만 모십니다
011-229-606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051)266-0330
011-9332-1719

비구니 스님 되실분
(초보자 교육해줌)
평생 서울시내 사찰에서 생활할수 있음
나이제한 없음
010-7262-3338
서울시내 사찰임

스님(비구)을 찾습니다
2002년 4월 경북 영덕 일도사에 소임상주하셨던 대일(이춘송)스님과 혹시 인연 닿으신 스님이나 불자님이 계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054)733-8786 (일도사)
017-519-5388 (총무)

서울근교에 있는 관음기도 영험도량에서 기도하실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자격:승납20년 이상의 비구스님
보시:150~200만원
(능력에 따라 대우합니다.)
문의:010-4540-3344

정진하는 조용한 조계종 사원에 노승이 상좌가 없어 비구니 건당상좌로 운영관리 토록 인연바라며 또한 식구없는곳에 자기수행하며 있을 40~50대의 공양주 속히 구합니다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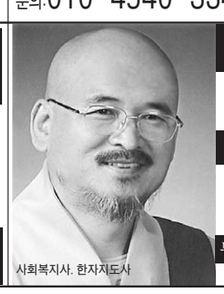
인연있는 공양주 보살님을모십니다
충남아산시에 있는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보살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숙소는 원룸(욕조,씽크대,화장실등)을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011-422-6757
041)545-6531

50세 비구입니다 노전(부전)자리 원합니다
의식잘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9472-3879

가족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과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30 ~ 40대 남자)
063)836-804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약수암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석정수 스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있습니다. 각종빙의나 질병을 상담을 통해 치유할수 있는 수행도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54 선일빌딩701호 약수암쉼터
010-7232-0384, 011-756-5997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 죽비
소승 천일기도중 지리산 깊은숲에서 채취한 대나무로 산중토굴에서 한자루씩 깎았던 108 죽비를 이제 회향하려 합니다
• 마음의 채찍으로 평생 소장하실 인연있는 불자님께 올립니다. 뜻있는 불자님은소승의 원력불사에 정재의 밝은빛 되어 주시길 두손모읍니다.
• 108개 한정품으로 - 대죽비 (3종) 30만원 / 중죽비 (2종) 15만원 소죽비(1종) 5만원
지리산 백운동천 약수암 홍일 합장
문의전화 055)973-0552 / 010-3769-0552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야구,역도,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 / 010-9554-5149

백발백중「구단구궁법」
저자 법화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직업,성격, 명운 척척 들어 맞춘다.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꿰뚫는다.
◆ 2주 완성
당신도 2주후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부산자비원 051)554-6040
010-9399-7442

제대로 만든 사주프로그램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정확한 용신
정확한 만세력
사주, 육효, 대정수, 자미두수
양택풍수, 궁합, 작명, 택일
고객관리, 해외출생자사주
제품구성 :
정품CD, USB락, 사용설명서, 명리보감책자
www.goodcycle.com
Tel. 02-3472-5933
H.P. 010-9273-5850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위치 : 천안
● 법당및요사 : 160평	● 법당 : 24평	● 법당 : 22평
● 부지 : 62평	● 요사 : 24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5억	● 부지 : 560평	● 부지 : 300평
● 지하철 역세권에 위피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시내 천년고찰 (약 800년)
● 대지 약 2700평
● 법당(목조)35평, 산신각(목조)10평
● 대종각(목조),요사채,와가 약 40평
● 6m 도접,주차장 500평
● 보물일부 소장, 남향
● 가액 : 15억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부지 : 1500평. 종교용지
● 법당 : 50평(삼포,칠포,단청)
● 요사 : 70평(닷집)
● 기타 : 산신각, 종각. 연못, 석등
● 가액 : 15억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토굴안내 2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150평
● 건평 : 70평(임법당 ,방3)
● 가액 : 8천만원
● 위치 : 경북 청도읍 소재
● 부지 : 150평 건평 40평(임법당, 방2)
● 가액 : 3천 5백만원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지리산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대봉
● 부지 : 11,000평
● 대지 : 2,000평
● 건물 : 1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 조망, 정동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금대봉
● 부지 : 130,000평,대지 : 1,000평
● 논밭 : 3,000평
● 법당 및 요사채 : 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조망, 정남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011-9516-3326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 방2칸, 공양간, 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238-3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1, 방 3개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내사후 절충
02)902-4070

포교당(급)안내

공찰 주지 발령관계로 급매
● 위치 : 대구시 성당못역 10분거리
● 평수 : 2층건물중 2층(70평)
● 가액: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주차시설완비
017-501-2438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 2000만원
010-4662-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사찰(급)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동 15분거리 대도로변 50m 야산접
● 대웅전, 지장전
● 동굴산신각, 요사채 및 폐도로 2000평 점유
● 가액 : 10억원
010-9164-12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 220평
● 건물 : 1층 요사채47평 2층 법당23평, 산신당 4평 심야전기, 차고15평
● 가액 : 5억원(절충가능)
011-9114-993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음성군
● 법당, 요사채,옆산 옆 계곡 넓은 정원, 각종 유실수
● 국토 2차선 100m 밑
●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2억 5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4층 중 4층
● 석가모니불, 관음지장, 삼존불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130불
● 법당 외 방2, 주방1, 화장실 총 45평
● 보증금 3천만원/월 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51)317-001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 대지 252평, 전800평
● 법당12평, 목조신축 요사채, 청동기와집
● 방, 거실 5칸(등기필)
● 조립식1동, 용궁,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가액 : 1억 5천만원
018-406-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축건물
● 대지 780평, 법당 25평 요사채 45평, 지장전 25평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339-1946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13-12번지
● 임법당, 약사여래불, 신중산신탱화
●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탁트인 전망좋은곳
● 무속인이나 역학하시는분, 비구니스님 가능
● 가액:1천만원,년도지세:25만원
010-6376-0235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 2층 약 45평 요사채1, 2층 약 50평. 단청필
● 대지 약 175평, 마당까지 차량진입, 시내버스왕래
● 가액 : 2억 2천(융자가능)
010-6298-2588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동소재
● 대지 61평, 건평 법당채27평
● 요사채15평,임법당 (아미타 삼존불)탱화포함
● 가액 : 1억 3천만원
011-586-1288

토굴수행터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골리
● 올 관리지역 지목,전 및 임야 1200평
● 현재 목장용지 160평에 축사용도 60평건물 전용되어 있음. 전기 논사용 5K
● 가액 : 융자 3천포함 8500만원
010-2447-1152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 약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50평,방3개,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 -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사찰 전세 및 양도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221평
● 법당 36평, 천불전 25평 산신각 6평, 종각 6평 건평157평(실평210평) 요사채 지하1층 지상 3층
● 전세 : 7억, 매매 : 30억
010-5004-3935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서울역 도보 10분거리
● 4층건물에 3층법당, 상담실 4층 요사방, 부엌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 법당시설 완비
011-9105-0024

급 안 내

● 해운대구 반어동 산139-8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4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0-9242-26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 1, 방 6개 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역 5분거리 대형재래시장입구
● 구조: 5층건물 2,3층 각30평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최저,답사후 결정
010-7742-015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평수 : 25평
● 큰방2, 작은방1, 거실, 욕실, 주방
● 주차가능, 옥상사용 가능
● 산세수려, 큰대로변에서 50m
● 보증금 1500만원, 월 10만원
010-7158-7316
016-204-356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신월동 토월시장 입구
● 평수 : 약 50평
● 방, 법당, 주방, 욕실
● 보증금 2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5)274-1755
011-624-175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 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 20평 (삼존불 모셔져있음)
● 방 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 여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순동 127-1(전주,군산,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옛날구옥: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016-9231-53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50평,주차시설 완비
● 가액 : 6억5천만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 요지
● 신축 불사중 대지186평, 법당건물 목조 25평 건축중.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010-3996-20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4870-83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가액 : 22억. 물물교환가능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010-8507-99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 총평수 900평, 법당, 요사채
● 산세좋고 물좋음
● 가액:1억 8천만원
055)672-0340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중심가. 평수 : 32평 2층
※ 법당, 방2개, 주방
● 보증금 2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500만원(시설완벽)
016-436-6579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⑧ 끝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①

마군은 수행인의 공덕법 빼앗아

二者辯眞正禪發相 行者若於坐中發諸禪時 無有如上所謂諸邪法等 隨一一禪發時 卽覺與定相應 空明淸淨 內心喜悅 擔然快樂 無有覆蓋 善心開發 信敬增長 智鑒分明 身心柔軟 微妙虛寂 厭患世間 無爲無欲 出入自在 是爲正禪發相 譬如與惡人共事 恒相觸惱 若與善人共事 久見其美 分別邪正二種 禪發之相亦復如是 三明用止觀長養諸善根者 若於坐中諸善根發時 應用止觀二法修令增進 若宣用止 則以止修之 若宣用觀 則以觀修之 具如前說 略示大意矣

두 번째로 진실하고 올바른 선정삼매에서 일어난 선근의 모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좌선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삼매가 발현할 때는 마음속으로 애증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앞에서 설명했던 갖가지 삿된 선정없이 낱낱이 텅 비고 밝고 청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만 리의 푸른 하늘에 끝내 한 물건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천연적인 오묘한 즐거움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며 또한 내 마음을 번뇌가 뒤덮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것은 지혜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삿되고 거짓되고 오염된 법과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진실하고 올바른 선정에서 발현한 선근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고 단지 선악의 인연을 따르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선성으로 일어 날 수도 있고 악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악인과 함께 일을 하면 무명 번뇌가 진여를 훈습하여 즉시 진여가 무명 번뇌를 따라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번뇌와 저촉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사람과 공동으로 일을 하면 진여가 무명을 훈습하게 되고 무명이 진여의 훈습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은 일을 보게 된다.

이는 옛 성인이 말했던 "선한 사람과 사귀면 마치 향기로운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있으면 향기와 하나로 조화되는 것과 같고, 반대로 악인과 교제하면 마치 어물전에 가서 오래토록 있으면 그 냄새와 하나로 조화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수행인이 선정삼매에서 발현한 모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세 번째로 지관수행을 통해서 선정삼매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수행인이 좌선하는 가운데 안과 밖으로 일체 선근이 개발될 때에 반드시 지관수행을 닦아서 선근이 더욱 자라나게 해야만 한다.

그것은 지 수행을 해야만 할 경우 지를 닦고, 관 수행을 해야 마땅하다면 관수행을 하여 지와 관을 혼란스럽게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관수행 법문은 앞장의 정수행장에서 자세히 풀이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의미만을 대략 제시할 뿐이다.

수행 깊어지면 마왕이 찾아와 마음 교란시켜
한생각 망상 일으키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

覺知魔事 第八

梵音魔羅 秦言殺者 奪行人功德之財 殺行人智慧之命 是故名之爲惡魔 事者如佛以功德智慧度脫衆生 入涅槃爲事 魔常以破壞衆生善根 令流轉生死爲事 若能安心正道 是故道高方知魔盛

본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장까지는 설명은 끝났고 지금 8장에서는 수행자의 깨달음과 마군의 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공부가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지면 마왕이 기회를 틈타 수시로 찾아와 수행을 방해하고 선근을 파괴한다. 따라서 마군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알아 그에게 미혹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군은 범어로는 마라(魔羅)라고 하며, 한문으로 번역하면 살자(殺者)이다. 마군은 수행인의 공덕법을 빼앗고 지혜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를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임시로 연대하여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부처님은 지혜부처의 종자로서 생명을 삼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군의 일과 부처님의 일은 까마득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육도만행으로 중생들을 개과천선하게 하여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고 괴로움을 떠나 안락함을 얻게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밖에 따로의 법문이라고는 없다. 이는 이른바 생사를 떠나 열반을 증득하고 미혹을 버리고 피안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마왕의 일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그는 항상 중생의 선근을 파괴하여 생사로 유전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생사고해에 빠져 있는 한량없는 중생은 모두 마왕의 자손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가령 어떤 한 중생이 청정한 수행을 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면 마왕은 즉시 진로심을 일으키고, 생사를 따라 유전하면 환희심을 일으킨다.

올바른 도에 마음을 안주하면 도가 높아지고 도가 높아야만 마군이 성대함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내적인 마군과 외적인 마군이 수행인을 교대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을 할 경우 마왕은 즉시 찾아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요란하게 뒤흔든다.

우리의 현전 일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두루 보편하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망상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마군이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 생각 망상도 일으키지 않고 본래 밝은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면 마군의 궁전이 진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 설산에서 고행하고 성도하려 할 때 마왕의 궁전이 진동하였는데, 그때 마왕은 세존 한 사람이 성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따라 수행하여 마왕의 경계를 벗어나 마군의 백성이 감소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이때에 마왕은 마군의 병사에게 명령하여 세존을 교란시키라고 하였으나 세존을 대광명신통장에 이미 깨달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결같이 마음이 담연하여 일체제법은 법마다 모두 실제의 이치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므로 모든 마군의 병사들이 그 어떤 방법도 써 볼 수가 없었다.

마왕은 다시 자기의 딸을 시켜 유혹하게 하였으나 세존은 신통력으로서 마왕의 딸을 추한 여인으로 변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후 마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와 세존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도 역시 세존에게 항복을 당하였다. 그 때문에 팔상성도 가운데 항마의 설이 있게 된 것이다.

도가 높아야만 마군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도가 한 자 높으면 마군은 열 자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군을 봐도 마군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마군은 스스로 파괴되고, 괴이한 일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괴이함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등하여 가이없는 올바른 생각으로 한계가 있는 마군의 일을 소멸하는 것은 마치 끓는 물속에서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2)십이인연의 소급관찰[眞如還滅觀]

"사람이 늙어가면서 겪는 슬픔과 근심의 고뇌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노사(老死)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생명(生)이 있기 때문이며, 생명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부처님이 성도하기 7일전에 십이인연의 법칙을 깨우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연기론적 관점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계와 개체물리의 존재인 '유'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유를 '삼계유(有)'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세간(器世間)과 모든 유정들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반드시 기세간으로서의 세계가 있어야만 모든 개체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는 취(取)를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에 집착이라는 욕망심이 없다면 삼계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우리와는 어떤 상관성도 없게 됩니다.

집착심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야말로 모든 생명활동의 발원지입니다. 욕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는 외부 현상세계를 받아들이면서 탐애와 증오의 감정을 일으킨 것이 원인입니다. 그 때문에 애(愛)는 수(受)를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현상사물을 받아들여 감정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외부세계가 나의 인식주관과 부딪치면서 감각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는 촉(觸)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감각이 의지하고 발현할 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촉은 육입(六入)이라는 여섯 도구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감각기관은 다시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인식주관과 객관사물인 오온이 한 덩어리로 화합해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육입은 오온인 명색(名色)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식(識)도 역시 행업(行), 즉 식은 분별작용의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행의 일부분에 속하지만 단지 인식인 주관적 요소에 국한되므로 행에서 특별히 따로 떼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식을 의지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해서 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호의존관계성으로서의 인연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위로 추구해보면 식은 의지적인 충동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의지를 '생'이라고 합니다. 행은 다시 무의식 상태의 본능적인 활동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 같은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적 활동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초의 일념무명(一念無明), 즉 무시무명(無始無明)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



반단필름

악몽 같던 화마 후 3년, 낙산사 생태는 살아있다

(108) 양양 낙산사

최근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관계습도가 가장 낮은 3~5월 사이에 집중된다. 산불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상도 지구온난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양양 낙산사가 대재앙을 당했다. 2002년도에 시작한 108사찰 생태조사의 대미를 양양 낙산사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관음보살에로의 뜻 깊은 회향도 회향이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낙산사 생태가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도 큰 의의를 두었다.

낙산사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주문에서 시작하여 원통보전-해수관음상-보타전-의상대-홍련암을 아우르는 구역이 하나요, 경내 외곽 숲이 또 하나요, 바닷가 지역이 나머지 한 구역이다.

7호선 국도변에 접한 일주문을 지나 낙산사 홍예문까지는 다행히 화재를 당하지 않아서 해송과 육송이 울울창창하다. 일주문을 지나 낙산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홍예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화재에 소실되고 새로 복원했다.

홍예문을 지나 원통보전으로 가다보면 갈래길에 낙산배 시목(始木)이 서 있다. 조선 성종 때 낙산사 주변에 처음 심게 된 낙산배는 왕실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황실리(黃實梨)로 불렸다. 그러나 낙산사가 관광 개발되면서 옛 과수원은 돌보는 이 없이 풀더미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사천왕문 앞으로 소나무, 전나무, 떡갈나무, 감나무, 왕벚나무 등등 제법 나이가 든 나무들이 지난 번 화마에 용케 살아남아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떡갈나무는 떡을 싸먹을 만큼 잎이 넓고 두꺼운 참나무이다. 예전에 산중 암자나 요사채 불사에서는 서까래 재료로 많이 썼다.

낙산사는 관음성지답게 처처소소에 관음상을 모시고 있는데, 저마다 특색들을 갖고 있다. 원통보전은 종이로 만든 건칠보살상을, 홍련암은 철로 주조한 철보살상을, 보타전에는 나무로 조각한 목보살상을, 해수관음상은 석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이 모두가 자연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원통보전은 높은 담장으로 아담한 분위기는 있지만, 폐쇄적이라서 사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조선조를 거쳐 오면서 높아졌을 담장은 유감스럽게도 화마에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럴 바에야 이번 복원 기회에 담장을 좀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원통보전에서 해수관음상까지는 낙산에서 가장 그윽하고 호젓한 숲길이었으나, 지난 번 화재로 벌거숭이 길이 되고 말았다. 숲길 아래 보타전을 아우르는 비탈진 기슭 역시 화마를 용케 물리친 몇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와 귀룽나무를 빼고는 모두 화마에 불타 없어져 민둥산이 됐다.

3년 동안 생태복원 불사에 영일이 없었다. 낙산사 주변 산림 복원의 초점은 소나무 복원에 우선을 두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복원에 동원된 소나무는 다른 지방이 아닌 같은 양양군의 군유림에서 옮겨온 것들이라고 한다. 경사면에는 소금기에 강한 해송이 많이 식재됐다.

경내 생태복원이나 조경용으로 식재된 나무들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도 많지만, 심어 가꾼 나무들은 비교적 활착이 잘 되고 있다. 생태위기 시대의 자연은 사람의 정성으로 산다고 했다.

산불이 나면 취 종류, 고사리과, 벼과, 사초과, 칡 등의 초본들이 먼저 부활하는데, 낙산사도 예외가 아니다. 산박하, 물봉선, 산국, 마타리, 괭이밥, 미역취, 왕고들빼기, 등골나물, 괭이밥, 구절초 등이 고맙게도 절로 돋아서 꽃을 피웠다.

산불 이후 낙산의 생태는 이렇듯 줄탁동기(?啄同機)로 되살아나고 있다. 자연은 사라졌던 것들을 열심히 불러오고, 인간은 정성어린 손으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정성으로 심고 머지않아 낙산의 생태도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낙산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준다.

식물이 되살아나면서 곤충상도 되살아나고 있다. 단풍이 떨어지는 계절인데도 경내에서 관찰된 곤충들이 예상 외로 많았다. 방아깨비, 섬서구, 칠성무당벌레, 작은멋쟁이나비, 고추좀잠자리, 깜보라노린재, 말매미충 등이 부지기수이다.

해수관음상이 자리한 정상부분에서 홍련암에 이르는 동사면은 온통 이대 군락이다. 산불 이후 더욱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그냥 둘 것인지, 간섭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해수관음상에서 보타전으로 내려 가다보면 왼쪽 기슭에 공중사리탑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소나무숲이 산불에 비명횡사하면서 사리탑 역시 화상을 깊게 입었다. 사리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가 발견돼 절망 속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보타전 앞 관음지에는 몇 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한때 무분별한 방생으로 물고기들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외래종 붉은귀거북들이 실고 있다. 연못의 생명평화를 위해 거두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연못을 지나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훤칠한 키에 한껏 멋이 든 적송들이 도열해 있다. 화마를 온몸으로 꿋꿋이 물리친 장한 소나무들이다. 밑둥치마다 시커멓게 남아 있는 화상이 당시 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불이 발생한 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2차 피해 즉, 산사태이다. 의상대가 앉은 바닷가 쪽 절벽의 일부에도 사태가 나서 지금껏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홍련암 가는 길에는 해당화와 해국이 눈에 많이 띈다. 산불 이후 식재한 것들이지만, 바닷가 주변으로 자생하던 낙산사 지표종인 만큼 이들의 복원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우리나라 제일의 관음성지로, 관음보상의 응현인 파랑새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 기이하게도 낙산사와 홍련암


낙산사 경내 소나무.

종이·철·나무·돌 등 여러 재질의 관음보살 조성
생태위기 시대 자연은 사람의 정성으로 살아나

주변에는 푸른색(blue)을 띤 그 새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 파랑새의 정체는 우리의 텃새인 바다직박구리(blue rocktrush)이다.

산불이 나면 생태피라미드가 무너진다. 식물들이 먼저 피해를 입고, 식물을 먹는 곤충들이 사라진다. 이어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와 네발 가진 동물들이 자취를 감춘다. 다행히 낙산사 주변 식생이 되살아나고, 곤충들이 돌아오면서 새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1월 초, 여름철새는 이미 떠나고 겨울철새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라 텃새만 조사됐다. 붉은머리오목눈이, 참새, 박새, 쇠박새, 까치, 멧비둘기, 말똥가리 등이 관찰됐다. 바닷가에서는 알락할미새, 논병아리, 괭이갈매기, 바다가마우지 등이 관찰됐다.

일주문-유스호스텔-비치호텔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다행히 화마를 피해서 예전의 생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식생은 적송과 해송이 우점하고 있는 가운데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이 약세를 보이고, 간간히 키 작은 활엽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을 포함해 낙산사 경내외에서 확인된 귀화초본들로는 개망초, 망초, 애기수영 등 23종이 조사됐다. 일손에 여유가 생기면 거두어 낼 일이다.

고라니 서식은 배설물로 확인이 됐는데, 스님 청문에 따르면 이따금 야밤에 경내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바닷가 지역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전진항 횟집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나 파도에 밀려온 물고기 사체를 먹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는 우리나라 주요 사찰 가운데 바다를 낀 몇 안 되는 해안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해안은 크게 사빈해안, 갯벌해안, 암석해안 등으로 나눠지는데, 낙산사 해안은 사빈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산은 바다가 있어 더 아름답고, 바다는 낙산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 여기서 심심치 않다는 것은 먼 바다로부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산을 침식하면서 해식애(海蝕崖)와 같은 다양한 암석해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의상대와 홍련암도 바로 이 해식애 위에 조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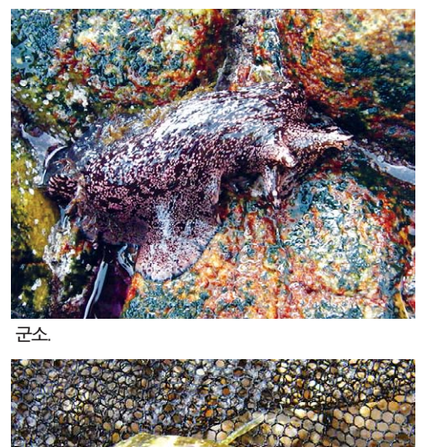
바닷가 쪽으로 마치 성벽을 방불케 하는 낙산사의 시멘트 옹벽이 보인다. 그냥 두는 것보다 벽면을 녹화하는 것이 좋다. 산불 이후 일손이 바빠서 미쳐 손을 못 댄 모양이다. 나중에라도 손쉬운 담쟁이덩굴만 올려놓아도 좋은 녹화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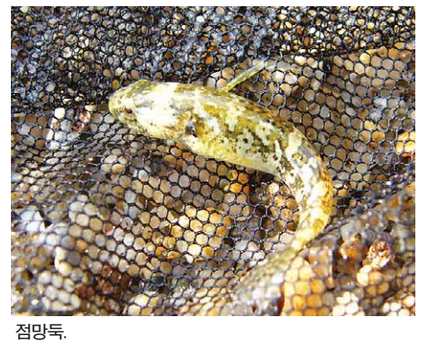
바닷가 사빈지역에는 바닷바람과 염도에 강한 식물들이 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국을 비롯하여 수송나물, 갯강아지풀, 갯메꽃, 갯방풍, 갯완두, 좀보리사초 등이 그것이다. 11월 초순 이 지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만도 술패랭이 등 6종이나 된다.

파도가 오르내리는 모래톱에 자하(Mysidacea)가 무리지어 죽어 있다. 자하는 일명 '곤쟁이'라고도 하는 작은 새우이다. 이들이 모래톱에 집단사한 것은 천적인 멸치나 숭어떼의 공격을 피해 모래톱에 올라와 죽은 것이다.

물속에 사는 군소(Aplysia kurodai)는 물속의 해초를 먹고 사는 연체동물이다. 크기는 20~30cm가량 되며, 생김새는 껍질 없는 고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연상이 된다. 적이 건드리면 자주색 물감을 퍼뜨려서 접근을 막는 습성이 있다.


낙산사 붉은귀 거북.


군소.


점망둑.

연안 서식 어류로는 멸치, 전어, 놀래기, 숭어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얕은 물속의 점망둑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동해안에서만 서식하지만, 크기가 7cm 미만인 작은 물고기이다. 배지느러미에는 흡반이 있어서 바위에 잘 붙는다.

때마침 바다가마우지가 바위섬 위에 앉아 날개를 말리우고 있다. 바다가마우지는 한강에서 보이는 민물가마우지와는 다른 종이다. 가마우지는 낙산해수욕장과 설악해수욕장 사이에 자리한 인적 드문 바위 해안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또한 바다직박구리와 함께 낙산사의 깃대종이라 할 만하다.

최근 들어 낙산사 앞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현상은 바다 속 바위가 마치 흰 페인트를 칠한 듯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환경의 이상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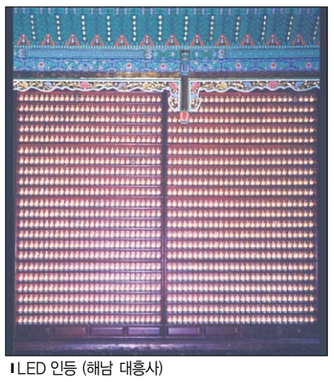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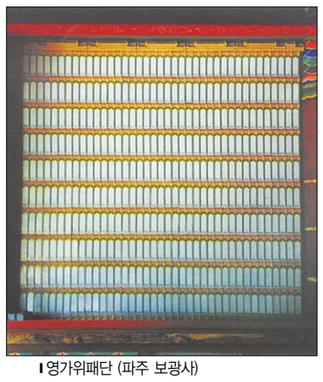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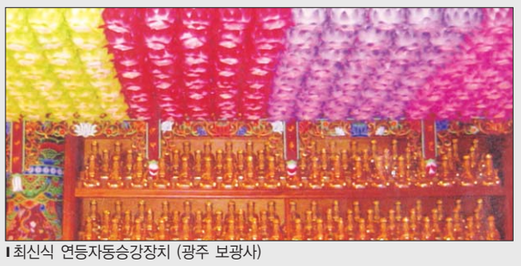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세요!


그림 · 최주현

마음 안으로 똑바로 들어가려면

질문: 저는 이번 수계 법회에 참석해서 또 연비를 받았습니다. 제 팔에서 피어오르는 향내음을 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팔만경설은 저렇듯 서슬 퍼렇게 마음의 도리를 설해 주고 있는데 물질에 끄달리고 관습과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한심해서 말입니다. 정말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발원이 세워졌습니다. 스님,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마음 안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설하여 주십시오.

답변: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면 피고 또는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를 탄생시켜서 놓으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긴 하죠. 그러나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덜 된 분이 있고,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습을 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나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 현재에 사시면서도 그러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 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로 보이거든요. 글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지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직결로 들어가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나로부터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놓으라니까 "다 놔지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다 놔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있으니깐 된 겁니다. 그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 이런 거구나!' 자라 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 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죽거리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둘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가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뺏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시고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얕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얕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둘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게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고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툴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지까지, 구경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말하다 말고 저 넘어갔습니다, 말하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요 웃어도 자기요, 못해도 자기요 잘해도 자기요, 망해도 자기요 승화가 돼도 자기예요. '몽땅 놔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돌아가니깐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알갱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다 얻지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를 못해서 공부를 모릅니다

질문: 저는 선원에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노보살입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하라고 그러셔도 배우지를 못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 가지고서 자주 나오질 못합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알고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선원의 스님네들한테 자꾸 와서 배우세요. 자주 나오시다 보면 다리를 들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이따금씩 그저 좀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고 그냥 훌쩍 가고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리가 부러지든 성하든, 한번 내가 지극하게 그걸 배워 보겠다 하고 자꾸 와지면요, 한 다리 증증대 이렇게 올려놓지 못한 게 또 한 다리 올라가고 또 한 다리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 아시죠? 나무! 나무뿌리가 있으니깐 나무가 살고 있죠? 그 나무는 댁의 몸뚱이고요, 그 뿌리는 나무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란 이름만 알면, 그걸 뿌리라고 생각

☞26면으로 계속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2. 13(토) 오전 9시부터 ~ 12. 14(일) 오후 1시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25면에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주인공 뿌리, 너만이 네 다리를 고쳐 줄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얘! 요놈들아, 널더러 돈 달래지 않을 테니까 저기 좀 데려다 다오." 그러세요. 자꾸 데려다 달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공덕도 세워 놓지 않고 어떻게 하렵니까? 자손들이 믿고 효도를 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러는 것만 스님네들이 봐도 댁의 다리가 훨씬 쉽게 나을 겁니다. 사람은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를 하면요, '어, 저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휴, 저렇게 지극한데….' 하고 오면서 가면서 다 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 스님,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대부분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여러분 중에는 병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장사를 할 때는 육안으로나 심안으로나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거기에 맞는 어떠한 장사를 해야 좋겠느냐,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남의 돈을 얻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남의 돈으로만 시작을 한다면 이것저것 갚고 나면 본전이 밑져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되죠? 또 한 가지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 물건하고 장소하고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라고 해서 눈, 귀, 육근(六根)이 모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경(六境)과 육식(六識)을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것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겉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잘 잡아 놓고,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은 바로 너밖에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는 이 도리가 그대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대로 중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작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첫째,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이 그것이 참선이자 좌선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마음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몸속에 든 의식들이 다 편안치 못합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내 마음 쓰는 대로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가져오고, 망하게 되면 그냥 물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캠핑 나왔는데, 다 무너지고 도둑을 맞고 걸머진 거를 다 집어 갔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법이 있죠.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도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고 '이건 다 넘어갔으니까 다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대로 가정이 불안하고, 헤어지게 되고 정말 죽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개구리가 개구리 알을 끌고 쭉 기어 올라가요. 그래 '저게 왜 그러나?' 그러고 그냥 물끄러미 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난데없는 소나기가 그 일대를 다 휩쓸었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비 올 거를 알고 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올려다 놓는데, 하다못해 옥수수도 그 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고 뿌리를 넓게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자기 몸을 딱 세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 덤벙대고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저 집은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게 없어." 하고 새들이 안타까워서 지저귀고 이러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새소리로만 듣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열을 끌어 쓰듯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어떠한 거든지 끌어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어떤 병이 들어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이 네 가지로써 치료도 할 수 있고, 바깥 경계의 모든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실천하시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려면 나부터 알아야, 나의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근본부터 알아야 그 줄을 붙잡고 모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근본자리는 보이지도 않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허공은 안 그렇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있듯이,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역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죽거리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공부, 즉 말하자면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셨지요?

스님과 한마음이 되려면

질문: 스님께서 소켓 얘길 자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님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 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스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답변: 나무와 나무, 일체 만물만생이 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스님이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자기 마음과…,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0)에다 영을 넣으면 영 하나로 돼 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있는 사이 없이 있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는 사이 없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하혈을 막 하는데 급하니까 "스님, 스님 마음 좀 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때나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 그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에 해당이 되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부족한 듯한 생각이 있으면, 무거운 것은 한 손으로 드는 거보다 두 손으로 들어야만 거뜬히 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도 다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이 들고 나신다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신(應身)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 겁니다. 그 나툰다는 것이 같이 응해서 하나가 돼 준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마음을 쓰면서도 자기 근본에 항상 묻고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맡겨나 가신다면 쓸 일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응해주시는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경지인지요?

질문: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화두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철대오 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신통하게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경지인지요? 스님께서는 단계 없는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어떤 단계인지요?

답변: 실천해 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그렇듯이 댁에서 겪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낳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린애도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둘 아닌 도리를 또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둘 아닌 도리에서 둘 아니게 화해서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견성도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불통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첫번에 유(有)의 법을 가르치고 두번째, 무(無)의 법을 가르치고 세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 뚝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대한불교 무량종

종단 간부 임원 공고

大韓佛敎 無量宗은 2008年 11月10日字 定期 中央總會에서
아래와 같이 宗團 幹部任員이 改編 되었음을 公告 합니다.

종 정 혜안효종 대종사

사서실장 보 인 기획실장 종 성

총무원장 보 경

총무부장 서 안 재무부장 보 광
교무부장 보 성 사회부장 원 정

감찰원장 오 현 교육원장 보 산 포교원장 다 정
종회의장 법 우 부 의 장 법 장. 보 월 사무총장 보 성
고시위원장 현 장 상벌위원장 보 각

불기 2552(2008)년 11월 10일

대 한 불 교 무 량 종 총 무 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서불대 연구교수

이타(利他)는 계절이 없다

문단의 원로 A씨의 이야기다. 50여 년 전 A씨가 대학에 진학 할 때의 일이었다. A씨는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두 군데에 합격했다. 누구라도 등록금이 훨씬 싼 국립대학에 입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국립대학을 포기하고 사립대학에 등록했다.

이유는 자기가 국립대학을 포기하면 같이 시험을 쳤다가 낙방한 친구 B씨가 대신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자신이 양보하여 가난한 친구가 등록할 수 있게 희생한 것이었다. 다른 이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명문대 입학을 양보한 A씨는 공직 생활을 거치고 문단 생활까지 착실히 하여 존경받는 인사로 은퇴했다. 은혜를 입은 B씨 역시 주요 공직에 일생을 바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보내고 행복하게 가족 속으로 은퇴했다.

이 이야기는 B씨로부터 들은 실화다. A씨는 평생동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다. 감동적인 이타였다.

불교에서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타행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이타 행위를 집단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개미나 벌은 자신을 위해 먹이를 모으고 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왕벌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유전자를 보전한다.

유전학자들은 이타주의는 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이타주의를 선택한 집단은 이기주의로 구성된 집단보다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자연의 선택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른 집단임에 틀림없다. 인간이 남을 위해 하는 보시 행위는 행위자 스스로는 물론 인간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선택을 인간에게 가르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손수 이타행을 하셨다. <중아함경>을 보면 제자들이 아나율타 존자를 위하여 옷을 만들고 있을 때 "아난아, 너는 왜 내게는 아나율타를 위하여 옷을 만들자고 청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며, 비구들이 옷 짓는데 찾아가 함께 옷감을 펴 마름질하고 잇대어 붙이고 기웠다.

또한 소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던 농부가 밥 때를 놓치고 설법자리에 오자, 집주인에게 농부를 위하여 남은 밥을 주라고 하신 다음 농부가 밥을 다 먹은 뒤에야 비로소 설법을 베풀었다. 대중이 의아해 하자 부처님께서 "농부가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줄 알고 그 먼 지방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법을 듣다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배고픔 때문에 여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래는 먼저 그의 배고픈 고통부터 해결해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배고픔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법구경>에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보시(布施)를 이타행의 으뜸이라 하셨다. 보시에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가 있다. 요즘같이 경제적 위기에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한 해의 끝 계절,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재시다.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은 생존의 욕구를 우선 충족해야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존경도 하게 되고 자아실현도 하게 되는 것이다.

살기 어려워지니 내 형편부터 살피고 재시를 베풀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 사정이 좀 나아지고 난 뒤에나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이런 마음을 경계해 부처님께서는 <백유경>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써 말씀해 주셨다.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매일 젖을 짜는 게 귀찮아 한꺼번에 짜려 했다. 그러나 젖이 말라 버려 결국 젖을 짜지 못하게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시 역시 재물을 따로 모아 쌓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젖 짜는 일과 같이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늘 마음을 내어 나누는 게 중요하다.

법문보다 한 끼 밥을 먼저 챙겨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다. 재시란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올 겨울, 불자들의 따뜻한 손으로 이웃의 언 몸을 훈훈하게 덥혀 주자.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반이 내게는 부처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1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 또 사람 덕분에 살아가네요." 살면서 고초를 많이 겪으신 보살님의 말이다.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그 보살님은 가족과 도반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공심공체 가족

● 어머니: 어릴 때부터 한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단정하고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시고 음식 잘하시고 부모,형제,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자식이나 이웃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 제가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버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항상 아버지로서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다정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자식이 하는 일은 크게 꾸지람 없이 묵묵히 지켜보아 주셨기에 저도 아이들을 묵묵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 숙모님: 정이 많으신 분이시고 특히 저에게는 어머니같은 사랑을 주시고 제가 힘들 때는 어머니처럼 도와주신 분입니다

● 외숙모: 친구같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께 할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 남동생: 동생이지만 오빠처럼 내가 힘들어 할 때 모든 면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지켜주어 든든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어 할 때 자기 마누라 몰래 도움을 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제가 누나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동생입니다

● 올케: 철은 좀 없지만 말이 없고 부모님께 잘 하니 항상 감사합니다.

● 막내 남동생: 지금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 때 멀리 전방까지 와서 이사를 다 해 주고 아이들과 힘들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감사할 여가가 없이 먼저 가버려 마음이 항상 찡한 동생입니다

● 외삼촌: 저는 학창시절에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갈 형편이 안 되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들한테 돈이 없다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 주신 분입니다.

● 시동생: 항상 제 편이 되어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시댁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신 분.

● 시누이: 착한 분입니다. 한 번도 시누이 역할을 하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돼주고 편히 시댁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심공체 도반

● 이 보살: 기도를 할 줄도 모르던 때 도와주시고 법문도 해 주시고 보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분.

● 김 보살: 서로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 원 보살: 봉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 제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 구 보살: 사람 살아가는 이치와 인간미를 발견하게 해 주심.

● 황 보살: 제가 아플 때 또는 아프기 전에도 나의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시는 분.

● 현 보살: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남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는 분.

● 한 보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노력한 사람,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면을 알게 되고 나를 더 잘 지키게 되지 않았나 싶어 감사하고 싶은 사람.

● 박 보살: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를 자극해 주신 분.

● 주 보살: 도반으로 친구로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어려워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주신 분.

● 박 보살: 친구인데 스승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친구라 옆에 있으면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친구.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찰의 도반들에게는 나의 마음과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하는 길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자신이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악연도 공부로 받아들이는 불자들 덕분에 이번 겨울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경승과 공무원불자의 재도약

불자들에게 종교편향의 상처는 깊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상처를 보듬고 아파해야 하느냐'는 반문이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 왔다. 그러한 반문은 '자성과 자정'을 다짐하는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종교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불자의 역량 기르기에 나서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외부에서 비롯된 상처에 집착해 미래의 비전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큰 상처가 된다. 11월 17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과방문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자비문중의 '관용'을 보인 것도 과거에 대한 집착 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편향 사건은 올 한 해 불교계를 휩쓸고 간 태풍이다. 그러나 성난 불심은 언제까지고 성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내적 자성을 통한 자정의 노력으로 방향을 전화하고 있다.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 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낭보다. 거기에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이제 경승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경찰 포교에 적극 나서자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궁합이 맞는 소식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야말로 불자의 진면목이다. 그 동안 경색국면에 묻혀 있던 경승활동의 재점화와 공무원불자들의 정당한 신행활동이 '종교편향'의 상처를 새로운 포교와 신행 인프라 구성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군승 40년, 새로운 포교전선 구축을

올해로 군승 파송과 군포교의 역사가 40주년을 맞았다. 군대를 일컬어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장병들을 비롯한 군종사자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0년 전 군법사를 파송하는 순간에도 타종교와의 치열한 포교전쟁이 가장 시급한 현실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나 가톨릭에 비해 수적으로 많지 않은 군법사들은 불철주야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또 지역 사찰들의 정기적인 관리와 신도단체들의 포교활동이 오늘날 군포교 전선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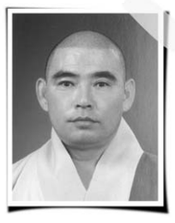
조계종에 군종교구가 설치된 이후 군포교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 군종교구는 올 한해 8만여 명의 장병들에게 수계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비해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하니 군종교구의 전법성과는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식만으로 군포교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불자장병들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당 등 각종 시설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법당조차 없는 단위 부대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군포교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병들은 물론 군 간부 불자들의 불심 고양과 수적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법회와 조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재정의 확충과 인력 확대도 더 없이 필요하다. 40년을 넘은 군포교 역사, 이제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군포교 전선을 구축할 원력이 절실한 때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생활불교 법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천연백수정108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 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구선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명상

- 일정 :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상기병, 그 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
- 문의 :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 자음원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냉기제거와 장부순화, 신경순화와 치매 중풍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 뼈 속에 박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 2008년 12월 5일 - 11일(목요일)
- 장소 :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한명클상원리원

- 본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사암아침한의원내
- 동대문지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찻집 / 011-658-9817
- 보령지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화사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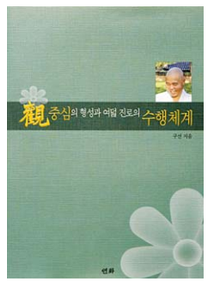
觀 쉴 줄 아는 지혜

[구선지음 / 368쪽]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 식이 비롯되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

반야심경을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견의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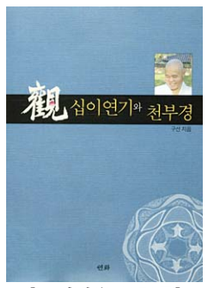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구선지음 / 312쪽]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견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

대승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해진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아홉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매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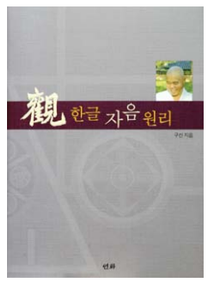
觀 십이연기와 천부경

[구선지음 / 376쪽]

생명에게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식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십이연기」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는 나의 심식의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식의에 심어지나니 경건하고 정중하게 뭇 생명을 바라보라. -「천부경」중에서-

■ 상세내용 :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십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십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닮은 꼴을 살피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觀 한글 자음 원리

[구선지음 / 256쪽]

문자는 자기의식을 담는 그릇이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해지고 심성이 고와지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경락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 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십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편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멸문의 연기에서 벗어나 진여문에 들어가게 된다.

구입문의 : 연화출판사 010-4589-1897